

서울의 시

서울문화마당 23

서울의 시

발간사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 긴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서울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벌어진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울고, 웃고, 슬퍼하며 그들의 심상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 시들 속에는 서울의 파괴, 발전, 도약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항기 서울은 근대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기존 경복궁과 육조거리를 중심으로 하던 서울도 이국적인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서울에도 서양식 가옥이 생기고, 전차와 학교도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서울의 발전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발전 이면에는 어두운 부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그에 따른 저항은 새로운 형식의 시가에 애국 계몽과 자주독립의 열망을 담게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서울은 일제 식민 통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기차역이 생기고, 백화점이 생겨났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더 옥 근대적으로 변했지만, 식민 도시 ‘경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 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발전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침략자들을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은 그 자체로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서울 안에서 사람들은 함께 절망하고, 슬퍼하고, 위안받았습니다. 이 시기 서울의 발전된 모습은 시 안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수상한 거리의 숙녀’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누이이자 그리운 여인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일제로부터 광복된 서울에도 빛과 어둠이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광복을 맞이하여 시로 그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새로운 조국 건설을 기대하며 뜨거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감격은 6·25전쟁으로 인해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참

상과 이산의 아픔을 시로 담담하게 표현하고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이 상황에도 서울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서울은 급속히 재건되어 현대적인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개발 이면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도시 서울에 적응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에 분개하고, 잊어버린 것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빛나는 대도시 서울은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한편으로 소외와 파괴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시인들은 이러한 서울의 모습과 사람들을 때로는 안쓰럽게 때로는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시를 감상하고, 시인들이 담아낸 근현대 서울의 정서를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책의 집필을 맡아주신 집필자 선생님과 귀중한 의견을 내주신 감수자 선생님, 서울역사편찬원 연구원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 9.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발간사	004
여는 글	012

제1장 근현대사 속 서울의 빛과 그림자

1. 식민지의 시인들이 노래한 서울 020

- 개항기의 개화가사와 창가
- 최남선과 경부철도의 노래
- 모더니즘의 장소, 남촌
- 순이를 만나는 거리, 북촌
- 저주받은 도시, 혹은 젊음의 초상

2. 광복 후의 서울 055

- 광복의 감격과 혼란
- 전쟁과 이산
- '후반기'와 모더니즘
- 명동 시대의 시인들

3. 서울 가는 길 – 산업화 시대의 서울 081

개발독재시대 서울의 그늘

동지를 잃은 서울의 새

4·19혁명의 시

청계천의 여공들

시란 무엇인가

거대 도시 서울의 숲, 북악산 아래 장소들

4. 서울의 합성 – 민주화 시대와 서울 120

경찰서의 시인들

노동 문학의 시대

5. 바람 부는 날에는 – 강남의 시 138

정신없는 영동

압구정동의 오렌지족

욕망의 성채들

서울올림픽과 잠실의 재개발

제2장 서울의 일상과 장소들

1. 서울역과 주변 동네들 164

다양한 얼굴의 서울

서울의 얼굴, 서울역

근대의 유산이 남은 장소, 청파동

남산 아랫마을의 추억, 남대문시장과 회현동

시인들이 사랑한 거리, 인사동

북촌과 남촌의 경계선, 청계천

2. 동대문에서 청량리까지 189

서울의 동쪽 관문, 동대문

가도 가도 추억이 남는 거리, 왕십리

영원한 만물시장, 홍학동

걸어가는 모든 마음들, 청량리

3. 정동에서 홍대까지 208

기와 담장이 있는 풍경, 정동

강변의 추억이 깃든 언덕, 마포와 아현동

기난했던 시절의 기억들, 북아현동

청춘은 오래 그곳에 머물러 있거라, 신촌

서울의 첨단과 유행의 장소, 홍대

4. 남산 주변의 마을들 229

먹빛 꽃잎이 떨어지는, 필동
그곳에 당신이 있을 것 같은, 명동
색이 다른 거리의 장소성, 이태원

5. 사당동에서 여의도까지 242

되돌아가다 마주친 얼굴들, 사당동
하늘에 제일 가까운 동네, 신림동
어두운 골목의 사람들, 영등포
강이 우는 정경, 여의도

6. 서울의 연결망, 지하철의 풍경 257

닫는 글 261
참고문헌 264
도판출처 266

서울의 시

문학은

늘 장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존재해왔다. 작품의 배경을 이루는, 단순한 자연 경관으로 등장하든 간에, 장소는 문학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적 부분 중 하나가 된다. 인간은 어딘가의 장소에 정주하여 살아가거나 이동하면서 장소를 경험하는 존재이고, 그때 장소는 인간의 문학적 상상력을 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소재가 되어준다. 장소가 인간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고 삶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다.

문학은 특정 장소에 대해 다른 어떠한 지식도 전해주지 못하는 의미 있는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 문학이라는 실천 행위 속에서 우

리는 단편적인 지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장소 경험을 이해하거나, 사회적 공간을 설명하는 언어들을 만나게 된다. 문학은 또한 그 장소를 살아갔던 많은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그 장소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못하는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 문학을 통해 재현된 장소는 실제의 장소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근대성은 인간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시간과 공간의 존재 양식을 바꾸어놓았다. 근대적인 합리성의 전개와 더불어 시간과 공간은 표준화되고, 구체적인 사건으로부터 추상적인 공간이 분리되었다. 또한 근대적인 발전과 새로운 생산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공간의 정복이라는 측면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철도의 확장과 전신의 출현, 증기선의 발달과 운하의 건설, 그리고 라디오 통신과 자동차 여행의 시작 등은 근대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근대적 공간의 합리적 조직은 생산적인 면뿐만 아니라 소비적인 면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량 생산에 조응하는 대량 소비를 위하여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 같은 대규모 유통 시설이 발달했다. 세계적 상품 시장의 확보를 위해 개최된 세계 박람회들은 19세기 후반기부터 나타난 주요 변화의 지표들이다.

근대적 생산 공간과 소비 공간이 전개됨에 따라 나타난 모더니티가 가장 활기 있게 구현된 공간은 대도시이다. 게오르그 짐멜은

화폐 경제의 중심지인 대도시에서 모더니티가 지닌 공간 경험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대도시의 발전이 개인 삶의 형식을 순수하게 객관적인 삶의 형식으로 만들어 간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도시는 모든 개인적인 것을 초월하는 문화의 터전이다. 대도시에서는 건물과 교육 시설들, 공간을 뛰어넘는 기술의 기적과 편의 시설들, 공동체적 삶의 형태들 그리고 국가 제도들 안에 엄청난 양의 정신이 비인격적인 결정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관심을 끄는 자극들이 도처에서 밀려오고 시간과 의식의 충전을 통해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마치 강물에 휩쓸리듯 저절로 떠밀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서 개인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비인격적인 내용들과 제공물들로 채워진다.

자본주의 확장과 근대성의 공간적 보편화는 세계의 공간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제국주의적 정복과 제국주의 간 경쟁을 통해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세계의 공간은 탈영토화되고 이전에 가졌던 의미들을 잊어버렸으며, 식민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지배의 편의에 따라 새롭게 영토화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수도인 경성이 맞닥뜨렸던 근대성의 경험 또한 이런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식민지 공간을 제국의 지배 질서로 포획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식민지 수도 경성의 급속한 도시화를 들 수 있다. 일제는 한일강제



부민관과 태평로

병합 이후 한성부라 불리던 식민지 조선의 수도 명칭을 경성부로 바꾸고 경기도에 소속시켜 그 위상을 낮추었다. 경성은 이렇게 한 국가의 수도에서 일제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부 도시로 그 지위가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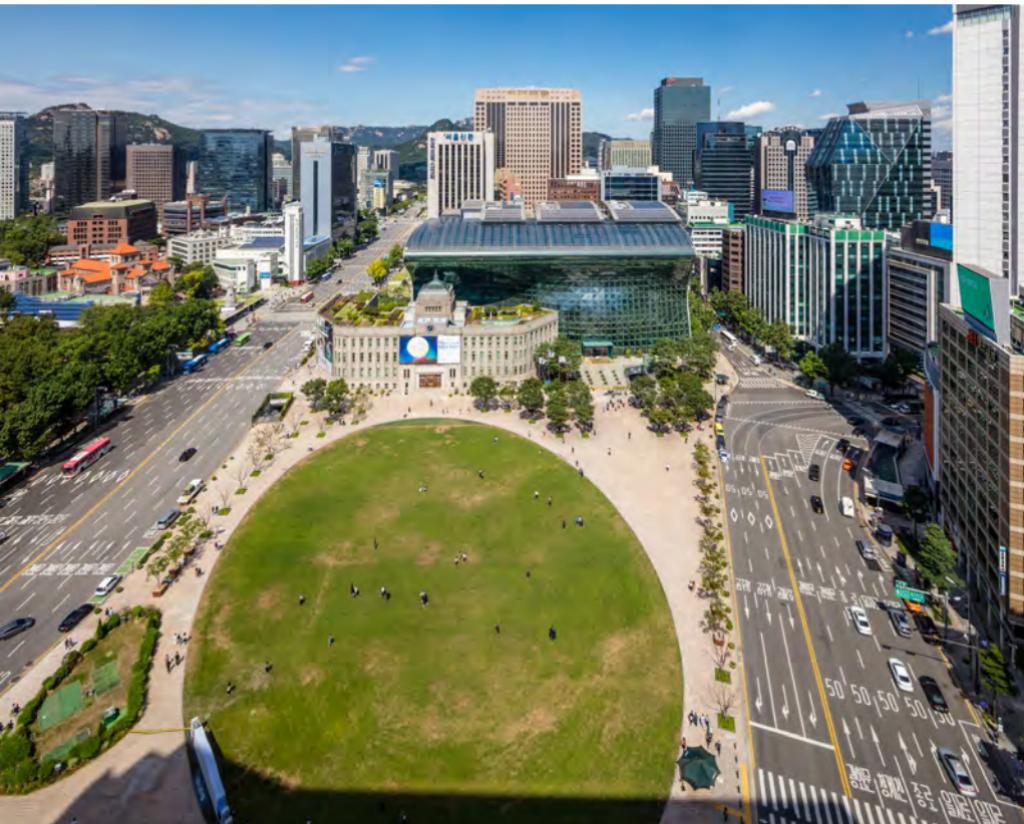
일제 강점 이후 경성의 물리적인 공간 구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거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로 들 수 있는 것은 거리가 직선화되고 확장된 것이다. 도시의 거리, 즉 도로의 직선화와 노폭 확장은 근대적 현상의 하나이며, 무엇보다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일제가 경성에 건설한 '동양의 모범적 도로'인 태평통은 조선시대 육조거리인 광화문통과 경성역을 잇는 노폭 35m의 직선거리로 노폭

55m의 기존 광화문통과 함께 경성의 가장 큰 도로였으며 식민지 근대화의 신호탄이 되었다. 발터 벤야민은 19세기의 수도 파리를 연구하면서 직선화와 노폭 확장을 주안점으로 삼았던 제2제정기의 파리 지사 오스망의 계획이 근대화보다는 내란에 대비할 목적을 가진 것이었고, 도로 폭을 넓혀 바리케이드 건설을 불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병영과 노동자 구역을 직선으로 연결 하여 유사시 군대 출동을 신속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미화라고 말하였다. 식민지 통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획책된 도시계획에 숨어 있는 공간 지배 전략은 지배의 메커니즘을 공고히 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의 변화와는 달리 모더니티의 결과로 맞이한 도심지 변화는 식민지 경성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식민화 초기 인구 20만 명 규모의 중소 도시에서 출발한 식민지 지방 도시 경성은 1920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인구 증가 와 시가지 팽창과 더불어 일제 말기에 이르면 불과 20년 만에 인구 8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로의 전환되어 ‘식민지 메트로폴리스’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광복 후 서울이 보여준 변화와 발전은 식민지 시기의 근대적인 변화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서울이 아니었던 경기도의 많은 땅들이 서울로 편입되었고, 지방 사람들이 산업화 바람을 타고 서울로 몰려들었다. 서울은 또한 근대화 이후의 정치적이고 역사적

인 격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했는데, 시인들은 이러한 서울의 변화와 역동을 자신들의 작품 속에 담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은 시를 읽으면서 이러한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100여 년에 이르는 시기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서울시청 부근 태평로일대



제 1 장

근현대사 속 서울의 빛과 그림자

1. 식민지의 시인들이 노래한 서울
2. 광복 후의 서울
3. 서울 가는 길 - 산업화 시대의 서울
4. 서울의 합성 - 민주화 시대와 서울
5. 바람 부는 날에는 - 강남의 시

근 현 대 사 속
서 울 의
빛 과
그 림 자

1

식민지의 시인들이 노래한 서울

개항기의 개화가사와 창가

1876년 조선은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을 설치하여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후 서구 열강과 수교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으며, 각종 개혁이 진행되었다. 서울은 이 변화하는 개항기의 중심이었다. 개항기에 지식을 전파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던 신문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발간되었고, 출판 활동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 의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YMCA) 앞의 거리 풍경

학교를 비롯한 관공립학교도 서울에 우선적으로 설립되었다. 서양식 가옥, 음식, 의류 그리고 신식 운송 수단인 전차 등 외국의 문화를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곳도 서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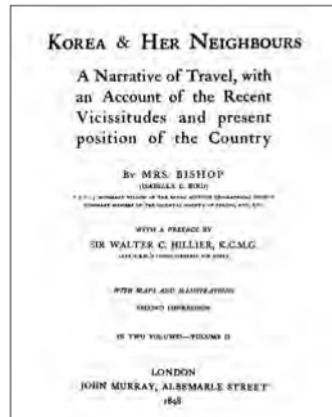
개항 이후 서울의 도시 경관 또한 많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기존 경복궁과 육조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의 상징적 도시 경관은 경운궁과 정동 지역의 이국적인 도시 경관으로 바뀌었다. 이후 일제의 침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숭례문 주변 성곽이 훼철



〈도성대지도〉에 보이는 경복궁 앞 육조거리 세부도



이사벨라 버드 비숍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되고, 수도로서의 경관 체계가 위협받게 되었다.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1894년 처음 방문한 이후 총 네 번에 걸쳐 조선을 방문하고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란 여행기를 남겼다. 그의 여행기에서 서울에 관한 첫인상은 “서울에는 예술품이 없으며 골동품이 드물고 공원도 없다. 왕의 거동 이외에는 불만한 것이 없으며 극장도 없다. 다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서울에는 없다. 서울은 유서 깊은 도시이지만 유적도, 도서관도, 문학도 없으며 최근에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심하여 사원을 남겨놓지 않았다. 반면에 아직도 조선 사람을 사로 잡고 있는 미신 때문에 묘비 하나 남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1897년 두 번째 방문에서 서울에 대한 인상은 완전히 뒤바뀐

다. 비숍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서울을 알게 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인구 25만 명의 도시인 서울이, 세계의 거대한 수도들 중의 하나로 당당히 간주될 자격이 있음을, 어느 수도도 이보다 아름다운 곳은 없다는 것을 마침내 인식하게 되었고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해발 36미터, 북위 37도, 동경 127도에 위치한 서울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뚜렷한 윤곽의 봉우리들과 가파르게 치솟아 있는 산들이 위용을 떨친다. 비록 최고로 높은 삼각산의 높이가 800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도성 안에서 호랑이와 표범을 사냥할 수 있다고 뽐낼 수 있는 도시란 그리 흔치 않다! 출입 금지의 이 메마른 산들은, 세월의 흐름을 증거라도 하는 듯, 수직의 거대한 검은 암석과 봉우리로 부서지면서, 울창한 소나무 숲 밖으로 얼굴을 내민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진홍빛 장관이 연출되는데 이때 출입 금지의 산봉우리들은 투명한 분홍빛 자수정처럼 빛나고, 코발트빛 그림자 를 드리우며, 푸른 하늘은 금빛으로 물든다. 초봄이 오면 새파란 안개가 산을 덮고, 연보랏빛 진달래가 산등성이를 물들이며, 불꽃같은 자두며 홍조의 벚꽃이며 흐느적거리는 복숭아꽃이 소스라치게 의외의 곳에서 나타난다.

김수영은 그의 시 〈거대한 뿌리〉에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을 만난다.

나는 이사벨 베드 비숍 여사와 연애하고 있다 그녀는
1893년에 조선을 처음 방문한 영국 왕립지학협회 회원이다
그녀는 인경전의 종소리가 울리면 장안의
남자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갑자기 부녀자의 세계로
화하는 극적인 서울을 보았다 이 아름다운 시간에는
남자로서 거리를 무단통행할 수 있는 것은 교군꾼,
내시, 외국인의 종놈, 관리들뿐이었다 그리고
심야에는 여자는 사라지고 남자가 다시 오입을 하려
활보하고 나선다는 이런 기이한 관습을 가진 나라를
세계 다른 곳에서는 본 일이 없다고
천하를 호령한 민비는 한 번도 장안 외출을 하지 못했다고……

김수영, 〈거대한 뿌리〉

1960년에 이사벨라 베드 비숍의 여행기를 읽고 한국의 전통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쓴 이 시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서울의 풍경
을 이방인의 시선을 통해 확인하는 대목은 인상적이다. 서울의 밤
풍경이 '갑자기 부녀자의 세계로 화하는 극적인 순간'에 대한 비숍
여사의 증언은 남녀유별의 구습과 개항기의 자유사상이 혼재되어
있던 서울의 기묘한 풍경에 대한 포착이었을 것이다.
개항기에는 전통 시가의 가사체에 새로운 사상을 담은 시가들
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개화가사라 부른다. 이것들은 고전시가 형

식을 그대로 계승하여 3.4조나 4.4조의 음수율을 택하였지만, 그 내용은 애국 계몽과 자주독립 등 개항기의 열망을 반영하였다. 개항기 시가 중에는 민중의 현실 의식을 반영하면서 자신들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일제의 침략과 신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시가들이 있다. 신민요 형식을 띠고 있는 〈아리랑 타령〉에는 이러한 당대 민중들의 현실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이씨의 사촌이 되지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띠여라 노다가세

남산 밑에다 장충단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총만 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띠여라 노다가세

황제인 고종~~이씨~~보다 당대의 외척 세력이었던 민씨 일파가 권력을 잡고 매관매직을 일삼던 당대 정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1절 다음으로 등장하는 2절에는 “남산 밑에다 장충단 짓고/군악대 장단에 받들어총만 한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장충단은 을미사변 때 전사한 충신들의 영령을 제사 지내기 위해 1900년에 지어졌다. 하



장충단비

지만 을미사변 후 신식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식 훈련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다. 이 〈아리랑 타령〉은 6절에서 “말꽤나 하는놈 재판소 가고/일꽤나 하는놈 공동산 간다”라는 유명한 구절을 낳기도 하였다.

1907년 7월 24일 정미7조약이 맺어지자 전라도 순창 사람인 이 석용은 사람들을 모아 의병들을 규합하고 ‘의병창의동맹 義兵昌義同盟’을 결성하였다. 그는 〈격중가 激衆歌〉를 지어 의병들에게 부르도록 하였다.

가을바람 소슬 [秋風蕭瑟]하니

영웅 없이 때를 만남 [得意時]이라

장사 壯士가 없을 소나

구름같이 모여든다

어화 우리 장사들아

격중가를 불러 보새

한양성중 漢陽城中 바래보니

원수 놈이 왜놈이요

원수 놈이 간신이라

삼천리 우리 강산

오백 년 우리 종사 宗社 어찌할까

아마도 의병을 일으켜

왜놈을 쫓아내고
간신을 타살打殺하야
우리 임금[今上] 봉안奉安하고
우리 백성 보전하여
삼각산이 숫돌 되고
한강수 띠 되도록
즐기고 놀아 보새
우리 대한 만만세

근대 애국계몽기 시기에 국권이 위태롭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은 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영웅을 대망하는 사상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이 시에서는 그러한 영웅대망론을 극복하고, 전국에서 모여든 장사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드러나고 있다. 한양 성중에 침략을 노리는 일본인들과 이들에 부화뇌동하는 간신들이 들끓고 있다는 인식은 의병을 일으켜 이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격문으로 이어진다. 오백 년 종사를 보존하여 삼각산(북한산)과 한강이라는 서울의 자연이 ‘마르고 닳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병들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시가이다.

너보아라 하난듯 웃둑하게서
큰광채를 빛하던 저독립문은

오늘와서 잠시간 빛없을망정
태양같이 환한날 머지안했네
남산밑에 지어논 장충단저집
나라위해 몸바친 신령뫼신데
태산같은 의리엔 목숨보기를
터럭같이 하도다 장한그분네

-최남선, 〈한양가〉 부분

〈한양가〉는 대한제국 광무 9년(1905)에 최남선이 지은 창가이다. 전통적 율조(3·4조, 4·4조)에서 벗어나 7·5조의 율조를 보여주었던 개항기 창가의 형식을 드러내는 이 창가는 부국강병과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이를 서울의 대표적인 건축물과 장소들을 통해 전하고 있다. 인용한 〈한양가〉의 두 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문은 갑오개혁 이후 자주독립의 결의를 다짐하기 위해서 본래 중국 사신을 영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던 영은문이 있던 자리에 새로이 건립한 서울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한양가〉에서 이 독립문이 지금 잠시 빛을 잃은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태양같이 환하게 빛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표현을 통해 다시 한 번 제국들로부터의 독립을 모색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의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장충단의 ‘장한 그분들’의 마음을 소환함으로써 애국계몽기 국민들의 마음 또한 태산 같은 의리로



독립문

나라를 위해 힘쓰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 창가는 이밖에도 용산, 노량진, 삼각산, 경복궁, 남산 등 서울의 주요한 장소들을 거론하면서 오랜 역사를 지닌 수도 ‘한양’이 지닌 역사적 자긍심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매천 황현은 1899년 한양에 와서 10년 만에 크게 변화한 서울의 모습을 보고 〈입경사 入京辭〉라는 시를 남겼다.

십 년 만에 다시 한양성에 들어서니
오직 남산만이 예전처럼 푸르르네
좁은 길 유리창에 전등불이 켜져 있고
하늘 가로지른 전선 따라 전차 소리 요란하네
배를 타고 멀리서 온 이들은 신식 예법 행하고
임금님은 천추에 황제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가지셨네
쓸데없는 걱정으로 가득했던 이 꽃이 우습구나
저 하늘이 어찌 갑자기 무너지리오.

황현, 〈입경사〉

황현은 서울의 거리에 전등불이 켜지고 전차가 요란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시대의 변화를 체험한다. 그리고 고종이 황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나라의 운이 아직 다하지 않았다고 느껴 자신의 걱정이 부질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와 조선의 국운이 크게 쇠퇴하여 1910년 일본에 국권을 강탈당하는 경술국치가 일어나자, 황현은 절명시를 남기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 그는 유서에서 “내가 죽어 의를 지켜야 할 까닭은 없다. 다만 나라가 선비를 기른 지 500년인데, 나라가 망하는 날 한 사람도 책임을 지고 죽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500년 왕도를 이어온 조선은 매천 한 사람의 선비로 인하여 그 오랜 역사의 얼굴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최남선과 경부철도의 노래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것은 1905년이었다. 1899년 국내 최초로 경인선 철도가 개통된 지 6년 만이었다. 같은 해 9월에는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_{下關}를 연결하는 관부연락선을 매개로 경부철도와 일본철도를 연결하는 연대 운수가 시작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경부철도와 경의선의 연락 운행이 개시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일본과 만주를 잇는 철도 시대가 열린 것이다. 경부철도 기차는 지금의 서울역인 남대문역을 출발하여 평균 속도 시속 20km로 부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최남선은 이 경부철도에 대해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남대문을 등지고 떠나 나가서/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으니/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

르겠네”라고 노래했다. 바람처럼 기차가 달려간다는 표현을 통해 시속 20km의 속도가 지금의 감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느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는 〈경부철도의 노래[京釜鐵道歌]〉 제2연에서 “늙은이와 젊은이 섞여 앉았고/우리 내외 외국인 같이 탔으나/내외친소[内外親疎] 다 같이 익혀 지내니/조그마한 딴 세상 절로 이뤘네”라고 노래한다. 철도의 개통이 곧 서구 문화의 유입을 대표하는 사건이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 창가는 경부선의 시작인 남대문역에서부터 종착역인 부산까지 철로 연변의 여러 역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그에 걸들여 그 풍물·인정·사실들을 서술하고 있다. 철도의 개통 덕분에 비로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장환은 〈수부[首府]〉 제7연에서 “여행들을 합니다./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서울을 옵니다/영미어[英米語], 화어[華語], 내지[内地] 말 조선말/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뒤리뒤섞어 이야기를 합니다./돈을 모은 이는 수부로 이주합니다/평안한 성금법[成金法]이외다”라고 묘사하며 서울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노래했다. 영어와 네덜란드어와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여 들고 돈을 모으기 위해 이주하는 식민지의 수도, 그것이 경성이었다. 조선시대에 한성이라 불리던 서울은 일제강점기에 경성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일본어 발음인 게이조라고 불렸다. 물론 경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였던 것이었으나 이 시기 이후부터는 역사적 혹

은 문화적으로 일제 강점과 관련된 이름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시인들은 여전히 이 오래된 고도를 서울이라고 불렀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소월은 〈서울 밤〉에서 “넓다란 거리라면 푸른 전등/막다른 골목이면 붉은 전등/전등은 반짝입니다”라고 하면서 붉은 전등과 푸른 전등이 켜진 서울의 거리를 노래했다. 먼 하늘은 늘 어둡지만 서울의 밤거리는 언제나 전등이 빛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 서울의 밤이 지닌 특징이라고 본 것일까. 이상화는 ‘도회_{都會}’라는 부제가 붙은 〈달밤〉이라는 시에서 이러한 전등이 달밤의 정경을 느끼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 하다못해 오늘 밤만 등불을 꺼버리자/촌각시같이 방구석에서, 추녀 밑에서/달을 보고 얼굴을 붉힌 등불을 보려무나”라고 노래했다.

모더니즘의 장소, 남촌

김소월이나 이상화의 시에 나오는 ‘등불’들은 모두 시골의 정경과 대비되는 서울의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소박하고 정감 있는 빛의 세계를 보여준다. 1930년대에 들어 서울은 왕조의 수도에서 본격적인 모더니즘의 도시, 소비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서울에 본격적인 빛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서울의 빛은 등불에서

네온사인의 화려한 조명으로 대체되었다. 당대 서울 거리에서 네온사인 빛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는 조선은행 앞 광장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34년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법인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서울의 전통적인 공간을 재배치하고, 종로와 황금정(을지로), 본정(충무로)을 연결하는 남북 도로를 건설하였다. 이 중에서도 일본인들의 거리인 남촌 중심에 있었던 조선은행 앞 광장은 조선총독부가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 공모를 하여 모더니즘 도시의 중심부로 선보인 장소이다. 이곳에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순환식 회전 교차로 시스템이 도입되고, 광장 중심부에 분수대를 설치하였다. 이 조선은행 앞 광장은 일본 제국주의의 권력과 근대성을 과시하는 랜드마크이자 상징 광장으로 기능했다. 조선은행,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우체국 등 서양식 대형 건물로 둘러싸인 공간을 중심으로 상업 광고와 네온사인이 설치되었다. 조선은행 앞 광장은 당시 근대 도시 문화를 전시하는 첨단의 공간이었다.

이상의 소설 <날개>에서 주인공이 올라간 옥상 정원이 바로 미쓰코시 백화점 5층에 만들어져 있던 정원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조선은행 앞 광장을 중심으로 한 남촌 일대를 당대 유행하던 양장을 하고 거닐던 청년들의 행렬은 이른바 ‘혼부라’라고 부르던 당대의 풍습을 대변했다. 이 풍습은 일본 청년들이 도쿄의 금융과 소비의 중심이었던 긴자[銀座] 거리를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며 근대의 문물을 소비하던 ‘긴부라[銀ぶら]’에서 따온 말로, 긴자 대신 서울



1930년대 미쓰코시백화점 옥상 카페

명동 거리인 혼마치[本町]를 산책하던 풍습을 의미한다. 식민지의 중심인 남촌을 '혼부라'하며 거닐던 식민지 청년들의 내면은 기쁨과 우울을 오가는 복잡한 것이었을 것이다. 시인 박필양은 이러한 정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도회.

밤 도회는 수상한 거리의 숙녀인가?

그는 나를 고혹의 뒷골목으로

교태로 손짓하며 말없이 부른다.

거리 우의 풍경은 표현파의 그림
붉고 푸른 채색등, 네온싸인,
사람의 물결 속으로 헤엄치는 나의 젊은 마음은
지금 크나큰 기쁨 속에 잠겨 있다.

쉬일 사이 없이 흐르는 도회의 분류奔流 속으로
내가 여름밤의 조그마한 날벌레와 같이
뛰어들제. 헤엄칠제. 약진할제.
아름다운 환상은 나의 앞에서
끊임없이 명멸하고 있다.

그러나 이윽고 나는 나의 피로한 마음 우에
소리도 없이 고요히 나리는 회색의 눈[雪]을 본다.
아아 잿빛 환멸 속의 나의 외로운 마음아.
페이브먼트 우엔 가을의 낙엽이 떨어진다.

이것은 1930년대의 서울
늦은 가을 어느 밤거리의 점경.
기쁨과 슬픔이 교착되는 네거리에는
사람의 물결이 쉬임없이 흐르고 있다.

박팔양, 〈점경點景〉

박필양은 프롤레타리아 문학 단체인 ‘카프’ 활동을 했으나, ‘카프’를 탈퇴한 후에는 모더니즘 문학 단체인 ‘구인회’에 가담하기도 했던 특이한 이력을 지닌 시인이다. 그는 이 시대의 어떤 시인보다도 도시적 감수성을 잘 드러낸 시편들을 발표했는데, 그에게 도시는 강렬한 매혹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음울한 우울을 제공하는 장소였다. 〈점경〉이라는 시에 나타난 서울의 모습 또한 그러하다. 〈점경〉에서 시의 화자는 서울이라는 도회의 밤이 지닌 매력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밤거리의 네온사인과 군중의 물결 속에 섞여 들면서 그는 알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선사하는 삶의 생동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내 화자는 그 안에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스스로의 외로운 마음을 돌아본다.

조선은행이 있던 소공동 일대는 당시 장곡천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1904년 러일전쟁 때 일본군 사령관이었고 식민지의 두 번째 총독으로 부임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거주했다 하여 하세가와마치[長谷川町]라 불린 지명이다. 이 장곡천정은 일본인들의 거리이자 많은 다방들이 있어 당대의 문화예술인들이 즐겨 찾던 곳이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우에노미술학교를 졸업한 후 귀국한 이순석이 장곡천정에 개업한 ‘낙랑파라’는 대표적인 다방의 하나였고, 이 밖에도 많은 다방들이 문인과 모던 보이들의 사랑을 받던 장소였다. 이상은 종로와 명치정에 여러 다방을 차린 바 있고, 극작가 유

치진도 장곡천정에 찻집 ‘프라타느’를 개업하였다.

찻집 미모사의 지붕 위에
호텔의 풍속계 위에
눈이 내린다
물결치는 지붕지붕의 한끝에 들리던
먼— 소음의 호수 잠들은 뒤
물기 낀 기적만 이따금 들려오고
그 위에
낡은 펠림 같은 눈이 내린다

이 길을 자꾸 가면 옛날로나 돌아갈 듯이
등불이 정다웁다
그 등불 위에 눈이 내린다
보면 볼수록 하이얀 눈이

빈 포케트에 손을 찌른 채
나는 잠자코 눈을 맞는다
내리는 눈발이 속살어린다
옛날로 가자 옛날로 가자

김광균, <장곡천정에 오는 눈>



장곡천정 소재 카페 낙랑파라

잘 알려진 시 〈와사등〉에서 도시의 고층 건물 속의 고독한 자아에 대해 이야기했던 시인 김광균은 바로 이 장곡천정의 눈 오는 거리를 다시 걷고 있다. 그는 찻집 미모사와 호텔의 풍속계 위로 내리는 ‘낡은 필름 같은’ 눈을 보면서 그립던 옛날을 떠올리고 있다. 찻집들과 호텔과 백화점 등으로 화려한 네온사인을 자랑하던 당시의 변화가 장곡천정은 낡은 필름같이 내리는 눈으로 인하여 그리움을 전하는 정감 있는 거리로 변하고, 시인은 그 정다운 등불들을 바라보며 옛날을 그리워한다.

또 다른 식민지의 시인 정지용은 서울 거리의 풍경을 아스팔트로 기억한다. 그는 〈아스팔트〉라는 시에서 “서울 거리에서 흙을 밟을 맛이 무엇이랴/아스팔트는 고무 밑창보담 징 한 개 박지 않은



정지용 동상

우피 그대로 사풋사풋 밟어야 쫀득쫀득 빙하우는 맛을 알게 된다”라고 하며 보행자의 순수한 기쁨과 도시의 포장된 거리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풀포기가 없어도 종달새가 내려오지 않아도 좋은, 폭신하고 판판하고 만만한 나의 유목장 遊牧場 아스팔트!”라고 말하며 도시의 포장된 거리 자체를 놀이터로 삼는 모더니스트다운 감성을 보여주며, “탁!탁! 튀는 생맥주가 폭포처럼 싱싱한데 황혼의 서울은 갑자기 팽창한다”라고 도회인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순이를 만나는 거리, 북촌

일제강점기의 서울은 분리된 도시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 에 도시 대중문화의 발전과 함께 일본에서 형성된 대중적 소비문화가 식민지 조선에 도입되면서, 도시 전체에 그 파급력을 확산시킨다. 도시 문화의 소비자본주의적 경향이 본격화되면서 형성된 식민지 대중문화 시장은 제국의 문화 상품을 소비의 대상으로 전시했는데, 그것은 제국과 식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양분되던 식민지 도시 공간 사이에 다양한 경계 지대를 만들어낸다. 청계천을 중심으로 갈라진 조선인과 일본인의 거리가 그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서울에서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던 거리가 조선은행 앞 광장을 중심으로 한 남촌이었다면, 청계천을 경계로 남

촌과 분리되어 있던 북촌은 조선의 옛 거리이자 조선인들의 공간이었다. 카프의 시인이며 비평가인 임화에게 종로 거리는 “눈바람 찬 불쌍한 도시 종로 복판에 순이야!/너와 나는 지나간 꽃피는 봄에 사랑하는 한 어머니를/눈물 나는 가난 속에서 여의었지!”〈네거리의 순이〉라고 노래했던 조선 여인 순이의 거리이다. 그녀는 ‘근로하는 모든 대중의 누이’이고, ‘바로 종로 네거리’는 광포한 눈보라가 휘몰아가지만 화자와 순이가 청춘의 정열을 살아가야 할 장소이다. 그 장소에서 그들은 ‘도적놈’에 대한 증오를 싹틔우고, 미래를 위하여 땀 흘릴 것이다. 임화는 이어서 〈다시, 네거리에서〉에서도 순이를 호명한다.

오오, 그리운 내 고향의 거리여! 여기는 종로 네거리,
나는 왔다, 멀리 낙산 및 오막살이를 나와 오직 네가 네가
보고 싶은 마음에……

넓은 길이여, 단정한 집들이여!
높은 하늘 그 밑을 오고 가는 허구한 내 행인들이여!
다 잘 있었는가?
오, 나는 이 가슴 그득 찬 반가움을 어찌 다 내토를 할까?
나는 손을 들어 몇 번을 인사했고 모든 것에게 웃어 보였다.
변화로운 거리여! 내 고향의 종로여!

웬일인가? 너는 죽었는가, 모르는 사람에게 팔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잊었는가?
나를! 일찍이 뛰는 가슴으로 너를 노래하던 사내를,
그리고 네 가슴이 떠나지도록 이 길을 훌러간 청년들의 거센 물결을,
그때 내 불쌍한 순이는 이곳에 엎더져 울었었다.
그리운 거리여! 그 뒤로는 누구 하나 네 위에서 청년을 빼앗긴 원한에
울지도 않고,
낯익은 행인은 하나도 지나지 않던가?

임화, 〈다시, 네거리에서〉

시의 화자는 다시 네거리로 돌아왔다. 거리에는 ‘옛날의 점잖은
간판들’이 사라지고 ‘낯선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그는 이 변화한
거리에서 근로하는 여인 순이를 찾는다. 그러나 순이는 보이지 않
고, 거리는 변화롭고 분주한 장소일 뿐, 껴질 줄 모르는 청춘의 정
열로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아니다. 화자는 그러나 아직도 네거리
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다. 거리는 ‘단지 피로와 슬픔과
절망만을 그들에게 선사하지는 않’을 것이며, ‘비록 잠잠하고 희미
하나마 내일에의 커다란 노래를 그들은 가만히 듣고 멀리 문밖으
로 돌아’갈 것이라고 화자는 말한다. 앞서 남촌의 거리에서 기쁨과
우울의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던 모습과는 달리, 종로는 식민지 주
민들의 고난과 희망을 노래하는 장소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종로 거리

임화의 시가 식민지 조선의 청년 노동자들의 사랑과 정열을 노래했다면, 같은 종로 거리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로 한 여인을 부르는 시인도 있다.

내 너를 찾아왔다. 수나^{叟那}

너 참 내 앞에 많이 있구나

내가 혼자서 종로를 걸어가면

사방에서 네가 웃고 오는구나.

새벽닭이 울 때마다 보고 싶었다

내 부르는 소리 귓가에 들리더니.

수나, 이것이 몇만 시간 만이냐.
그날 꽃상여 산 넘어서 간 다음,
내 눈동자 속에는 빈 하늘만 남더니,
매만져볼 머리카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없더니,
비만 자꾸 오고 촛불 밖에 부엉이 우는 돌문을 열고 가면
강물은 또 몇천 린지,
한번 가선 소식 없던 그 어려운 주소에서
너 무슨 무지개로 내려왔느냐.
종로 네거리에 뿐우여니 흘어져서,
뭐라고 조잘대며 햇볕에 오는 애들.
그중에도 열아홉 살쯤 스무 살쯤 되는 애들
그들의 눈망울 속에, 핏대에, 가슴속에 들어앉아
수나! 수나! 수나! 너 인제 모두 다 내 앞에 오는구나.

서정주, 〈부활〉

카프의 시인 임화에게 ‘순이’가 근로하는 모든 대중의 누이이자
연인이었다면, 서정주의 시에서 수나는 단 하나의 여인으로 화자
에게 남아 있는 여인이다. 그날 꽃상여가 산을 넘어가고, 소식을 전
할 수 없는 어려운 주소에 수나가 있다는 말은 그녀의 죽음을 강
하게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인은 죽은 수나의 기억을 찾아 종로
거리를 혼자 걷는데, 그에게 “종로 네거리에 뿐우여니 흘어져서/뭐

라고 조잘대며 헷볕에 오는” 여인들의 모습은 모두 수나로 다가온다. 떠나버린 여인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시편이다.

이 시에 등장하는 수나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점은 서정주가 〈부활〉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 우리말로 ‘순아’라고 썼다가 첫 시집인 《화사집》에 수록하면서 인물의 이름이 ‘유나_{夷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후 ‘순아’와 ‘유나’, ‘수나’가 혼재되어 각 시집에 수록되고 있는데, 최근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간행된 《미당 서정주 전집》에서는 전공자들의 논의 끝에 이 시의 인물을 ‘수나_{斐那}’로 결정하였다.

저주받은 도시, 혹은 젊음의 초상

식민지 조선의 수도 서울에서, 누군가는 죽은 연인을 찾고 누군가는 노동하는 대중의 누이를 찾는다. 서울에는 잘 계획된 근대적 거리인 남촌의 모더니즘이 있고, 그 등불을 그리워한 시인들이 있었다. 식민지에서도 일상은 존재하였고, 시인들이 그러한 정경을 담고 있다는 점은 오래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 중에는 식민지 도시 경성을 저주받은 도시로 인지하고 있는 시인도 있다.



남산 전경

오오 잘 있거라! 저주받은 도시여,
‘폼페이’같이 폭삭 파묻히지도 못하고,
지진 때 동경처럼 활활 타보지도 못한
꺼풀만 남은 도시여, 나의 서울이여!
성벽은 토막이 나고 문루는 혈려
‘해태’조차 주인 잃은 궁전을 지키지 못하며
반 천년이나 네 품속에 자라난 백성들은
산으로 기어오르고 두더지처럼 토막^{土幕} 속을 파고들거니
이제 젊은 사람까지 등을 밀려 너를 버리고 가는구나?

남산아 잘 있거라, 한강아 너도 잘 있거라
너희만은 옛 모양을 길이길이 지켜 다오!
그러나 이 길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겠느냐
내 눈물이 마지막 너를 조상하는 눈물이겠느냐
오오 빈사瀕死의 도시, 나의 서울이여!

심훈, <잘 있거라 나의 서울이여>

심훈이 중언하는 바에 따르면, 서울은 폼페이나 도쿄처럼 자연
재해를 경험하지 않고서도 폐허가 된 도시이다. ‘성벽은 토막이 나

오늘날의 한강 모습



고 문루는 헐려’라는 시어는 주인을 잃고 제국의 식민지가 된 서울의 실상을 드러내며, 그러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이제 서울을 버리고 탈출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 심훈은 서울의 상징으로 남산과 한강을 호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날이 오면>에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삼각산_{三角山}이 일어나 더덩 실 춤이라도 추고/한강 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량이면”이라고 간절히 기원했던 그 서울의 산하일 것이다.

1941년 서울의 연희전문학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시인 윤동주 또한 일본의 하숙방에서 서울을 그리워하는 시편을 남겼다.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조그만 정차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艱辛한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폐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속, 속, 햇빛에 비취, 날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봄은 다 가고— 동경東京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차장 가까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아아 짊은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윤동주, 〈사랑스런 추억〉

시인은 도쿄 교외의 조용한 하숙방에서, 서울 옛 거리를 서성이던 봄날의 자기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가 서울의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렸듯이, 도쿄의 정거장 가까운 언덕을 서성이면서도 희망과 사랑처럼 옛 거리에 남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한다. 자신의 삶과 조국의 아픔에 끊임없이 괴로워하던 순결한 청년의 영혼은 그 서울의 거리에 짊은의 초상이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

누군가는 근대적 활력을 느끼고, 누군가는 저주하며 그 장소를 떠나갔으며, 누군가에게 그 장소는 오래도록 짊은이 남아 있는 도시였다. 시인들이 근대 도시의 서정과 활력을 노래하던 서울의 중심부는 또한 식민 통치의 현장이었고, 일본인들의 거주지였으며, 상업의 중심지로 자연스럽게 발전해가던 장소였다. 이 번창한 식민 도시의 거리들은 근대인들에게 자기 구성의 방식으로 작동했다. 백화점과 쇼핑몰과 유흥가로 번창하는 거리와 그곳에 진열된 상품들은 경성의 주민들을 소비자로 호명하고 새로운 욕망의 매개체로 훈육한다. 그리하여 도심은 훈육된 소비자에게 관객이자 주연이라는



승실중학교 시절의 윤동주(뒤쪽 오른편)

이중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소비의 드라마가 연출되는 무대가 된다. 그러나 또한 이런 모더니티의 체험이 식민성과 연동하고 있던 맥락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식민지 시인들이 체험한 모더니티의 경험은 그 이면에 식민성과 통치의 전략을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2

광복 후의 서울

광복의 감격과 혼란

1945년 8월 15일 서울은 광복을 맞았다. 함석헌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라고 말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에 시달리던 조선 민중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왕의 항복 선언과 조선의 광복은 거짓말처럼 찾아온 사태였을 것이다. 광복은 그만큼 예기치 않게 다가왔으나, 또한 그 돌발성에 비례하여 기쁨은 더욱 배가되었다. 많은 시인들이 광복의 감격을 노래했다.



광복 소식에 서울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

아, 저마다 손에 손에 깃발을 날리며
노래조차 없는 군중이 만세로 노래 부르며
이것도 하루아침의 가벼운 흥분이라면……
병든 서울아, 나는 보았다.
언제나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너의 거리마다
오늘은 더욱 짐승보다 더러운 심사에
눈깔에 불을 켜들고 날뛰는 장사치와
나다니는 사람에게

호기 있어 먼지를 씌워주는 무슨 본부, 무슨 본부,
무슨 당, 무슨 당의 자동차.
그렇다. 병든 서울아,
지난날에 네가, 이 잡놈 저 잡놈
모두 다 술 취한 놈들과 밤늦도록 어깨동무를 하다시피
아 다정한 서울아
나도 밑천을 털고 보면 그런 놈 중의 하나이다.
나라 없는 원통함에
에이, 나라 없는 우리들 청춘의 반향은 이러한 것이었다.
반향이여! 반향이여! 이 얼마나 눈물 나게 신명 나는 일이냐

아름다운 서울, 사랑하는 그리고 정들은 나의 서울아
나는 조급히 병원 문에서 뛰어나온다.
포장 친 음식점, 다 썩은 구루마에 차려놓은 술장수
사뭇 돼지구렁같이 늘어선
끌끌내 더러운 거릴지라도
아, 나의 뼈와 살은 이곳에서 굽어졌다.

병든 서울, 아름다운, 그리고 미칠 것 같은 나의 서울아
네 품에 아무리 춤추는 바보와 술 취한 망종이 다시 끊어도
나는 또 보았다.

우리들 인민의 이름으로 씩씩한 새 나라를 세우려 힘쓰는 이들을……

그리고 나는 외친다.

우리 모든 인민의 이름으로

우리네 인민의 공통된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은 얼마나 이것을 바라는 것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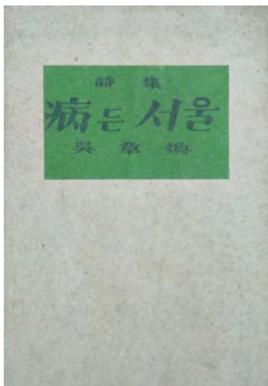
아, 인민의 힘으로 되는 새 나라

오장환, 〈병든 서울〉

오장환의 〈병든 서울〉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지 한 달쯤 후인 9월 27일에 쓰인 장시이다. 이 시의 화자는 병실에서 광복을 맞이하고 울음을 우는데, 그것은 광복의 기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홀로 죽어갈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탄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는 광복이 실제로 다가왔음을 자각한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광복된 것은 1945년 8월 15일의 일이지만, 많은 민중은 일왕의 항복 선언이 라디오로 방송된 다음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광복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병든 서울〉의 화자 역시 광복 다음 날 이를 실감하면서 새로이 다가올 나라 만들기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은 자신이 기대하였던 “싱싱한 사람, 굳건한 청년, 씩씩한 웃음”을 통한 새 국가 건설이나 “인민의 힘으로 되는 새 나라”

를 만들어가는 활력이 아니라 온갖 장사치와 정치꾼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었다. 일제강점기에도 도시의 모더니즘을 통해 도회 생활에 대한 묘사와 비판을 잊지 않았던 시인은 광복된 서울을 ‘병든 서울’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큰물이 지나간 서울의 하늘이……/그때는 맑게 개인 하늘에/젊은이의 그리는 씩씩한 꿈 들이 흰구름처럼 떠도는 것을……” 시인은 바라고 있다. 그때 서울은 “아름다운 서울, 사무치는, 그리고 자랑스런 나의 서울”로 다가올 것이다.

오장환은 시집 《병든 서울》에 실린 〈이 세월도 헛되이〉에서도 “내 나라의 심장 속/내 나라의 수챗물 구멍/이 서울 한복판에/밤을 도와 기승히 날뛰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광복 전후의 혼란한 정국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나의 도시가 한 나라의 심장이자, 수챗물 구멍이기도 하다는 인식은 서울의 중요성과 혼란에 대한 시인의 감각을 드러낸다. 그 속에는 밤낮없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날뛰는 무리들이 있다. 광복의 감격은 곧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 온갖 정치적 기획들의 분출로 인한 혼란으로 이어졌다. 일제 36년의 압제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식민지의 그늘



오장환 시집 《병든 서울》 표지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여운형과 청년들

을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희망에 부풀었다. 여운형은 8월 15일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를 구성하고 나라 만들기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건준은 좌우파의 합작으로 새로운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을 주도했으나, 그러한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반도는 38선으로 분단되었고, 사람들은 신탁통치안에 대한 찬반으로 갈라졌다.

불빛 노을 함께 갈았은 눈이라 노한 노한 눈들이라

죄다 바쉬진 창으로 추위가 다가서는데 몇 번째인가 어찌하여 우리는
또 밀려나가야 하는 우리의 회관에서

더러는 어디루 갔나 다시 황막한 별판을 암고 숨어서 쳐다보는 푸르른
하늘이며 밤마다 별마다에 가슴 맥히어 차라리 울지도 못할 옳은 사
람들 정녕 어디서 움트는 조국을 그리는 것일까

폭풍이어 일어서는 것 폭풍이어 폭풍이어 불길처럼 일어서는 것

구보랑 회남이랑 홍구랑 영석이랑 우리 그대들과 함께 정들인 낡은 걸
상이며 책상을 둘러메고 지나간 데모에 휘날리던 깃발까지도 소중히
감아 들고 지금 저무는 서울 거리에 갈 곳 없이 나서련다

내사 아마 꺽도 약한 시인이길래 부끄러이 낮을 돌리고 그저 울음이
복받치는 것일까
불빛 노을 함께 같았은 눈이라 노한 노한 눈들이라

이용악, 〈노한 눈들〉

이용악은 〈노한 눈들〉에서 해방기의 이 정치적 격변을 이야기하
고 있다. 시인은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분노에 대
해 쓰는데, 그것은 새로운 조국 건설의 꿈이 좌절될 때마다 폭풍처

럼 일어서는 동료들의 노한 눈을 기억하는 일로 연결된다. 시인은 광복된 서울에서 함께 나라를 만들어갈 친구들의 이름을 부른다. 구보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작가 박태원이고, 회남은 1930년 대의 대표적인 신변 소설가였던 안희남, 홍구는 카프 활동을 했던 소설가 홍진복의 필명이며, 영석은 역시 카프 출신의 소설가 김영석이다. 이들은 광복 후 결성된 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하여 새로운 나라의 문학을 만들기 위해 함께하였다. 그들은 ‘지나간 데모에 휘날리던 깃발’을 소중히 감아 들고 저무는 서울 거리로 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이용악의 시는 광복 후 좌우 이념들이 서로 경쟁하며 민족의 모순이 점철되던 시기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있다. 〈노한 눈들〉에는 좌익 문학 단체였던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했던 흔적이 엿보이지만, 이데올로기적 시선이 아니라 민족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마음을 드러내는 그 ‘눈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쟁과 이산 離散

광복의 감격과 혼란 속에서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어 분단이 고착화되어가던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한다.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처절한



고려대학교 교내에 있는 조지훈 시비

전화 속에서 서울에서 활동하던 시인들 또한 전쟁 속으로 속절없이 휩쓸려갔다. 시인 조지훈은 성북동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청록과 동인이었던 박목월의 연락으로 전쟁의 발발을 알게 되었으나, 다음날 고려대학교에서 ‘시론’ 강의를 강행하였다.

오후 2시

백악白堦의 3층에서 <시론>을 얘기한다.

의정부 방면의 총성이 들려온다.

교정의 스피커에서 전황 보도가 떤다.

(중략)

산머리를 뭉몽한 포연이 덮는다.

황혼에 목남木南이 찾아왔다.

서울 후퇴는 불가피라고

우리는 어쩔 것인가

조지훈은 교정에서 강의를 진행하던 중 그를 찾아온 시인 이한직을 만나 서울에서 후퇴해야 할 만큼 급박해진 전황을 전해 듣는다. 이후 박목월·박두진·서정주·이한직 등의 시인들은 피란길에 오른다. 이들은 인도교가 끊어진 한강에서 뱃전에 매달려 도강을 감행한 후 대전에서 '문총구국대'를 결성하고 대구에서 지방 문인들과 합류하여 약 3개월 동안 종군작가단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각 부대에서 강연회를 열거나 문필 활동을 통해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조지훈은 〈다부원多富院에서〉, 〈도리원桃李院에서〉, 〈너는 38선을 넘고 있다〉 등 많은 종군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첩첩이 문을 닫아걸고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나버렸다.

이룩하기도 전에 혼들리는 사직을 근심하고

조국의 이 간난한 운명을 슬퍼하여

(중략)

불의의 그늘에선 숨도 쉬기 싫어서

차라리 일체를 포기하고 밭가승이가 되고쳐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나버렸다.

첩첩이 문을 닫아건 종로의 적료寂寥

아아 이제 나마저 떠나고 나면

여기 오랑캐의 노래가 들려오리라

허나 꽃피는 봄이 오면

서울은 다시 우리의 서울

내 여기 검은 흙 속에 가난한 노래를 묻고 간다.

조지훈, 〈종로에서 - 다시 서울을 떠나며〉

9·28수복으로 서울로 돌아온 시인 조지훈은 부친이 납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평양행을 결심한다. 그는 도보와 군용트럭을 이용해 평양으로 올라가 약 50일간 그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조지훈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부득이 12월에 서울로 다시 돌아왔다가, 1951년 1·4후퇴 때 서울을 떠나 대구로 향한다. 〈종로에서〉는 그가 서울을 떠나며 지은 시이다. 모두가 문을 닫아걸고 피난을 떠난 서울에서 흔들리는 조국의 사직을 걱정하는 우국의 심정이 잘 드러난 시이다.

서울에서 6·25를 체험하였던 마종기 시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인 2015년에 발표한 시를 보면 그 당시의 참상이 어떠하였는지 조금은 실감할 수 있다.

경학원 자리, 마른 소나무에 동여매고 애매한 동장 아저씨를 총살시켰지.
눈을 뜯 채 이마에서 피가 뻗더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처음 지켜본 국민학교 육학년, 6·25사변 때였지만.

9·28수복 전날 밤, 사방에서 불길이 큰 산같이 오르는데 경학원 자리,
숨겨둔 쌀가마를 훔치러 갔지. 도망하고 둑굴어 죽고 총 쏘는 아귀사
이에서, 부대 자루에 쌀을 넣고 도망쳤었어. 우리는 하도 짚었으니까.

몇 해 피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경학원 자리. 그대로 앙상한 소나무
를 깎아놓은 채 있고, 조금은 춥고 무서웠지만, 눈 오는 밤을 혼자 걸
으면서 사랑하려고 했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만이 좋은 시인
이 되는 길인 줄 믿고 있었지.

영성한 시인, 영성한 의사가 된 뒤에도 가끔 찾아간 경학원 자리. 메마
르고 헐벗고 먼지 덮였지만 내 어린 땀방울이 뛰는 것 보면 마음 가라
앉더니, 이제 그나마 외지 생활의 면 나그네 되어 가끔 꿈속에서 만나
면, 오너라, 오너라 하던 정겨운 소리 점점 멀리 들리고, 베개 적시는
꿈 깨어난 한밤중,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경학원 자리.

마종기, 〈경학원 經學院 자리〉



서울역 앞 전투

경학원은 일제강점기 때의 유교 교육 기관으로 지금의 성균관대학교 내에 자리해 있던 곳이다. 시인은 그 자리에서 동장 아저씨가 나무에 묶인 채 총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일을 전하고 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한 것이 시인의 나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시인은 이후 피란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앙상한 소나무 한 그루가 그대로 서 있던 기억을 들려준다. 어린 시절에 자신이 자란 동네인 경학원 자리에서 목도하였던 전쟁의 참화는 그가 시인이 된 후에도 가끔씩 꿈속으로 찾아

오고 있다.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 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설움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기러기같이

서리 묻은 설달의 기러기같이

하늘의 얼음장 가슴으로 깨치며

내 한평생을 울고 가려 했더니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리어

이 헛빛 이 물결을 내게 주는가

저 땀들레나 쑥니풀 같은 것들

또 한 번 고개 숙여 보라 함인가

황토 언덕

꽃상여

폐과부의 무리들

여기 서서 또 한 번 더 바라보라 함인가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 하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설움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서정주, <풀리는 한강 가에서>

서정주의 <풀리는 한강 가에서>는 6·25전쟁 이후 절망에 빠진 사람의 심경을 담담히 서술하고 있다. 폐허가 된 강가에 선 시인은 얼었던 강물이 풀리어 강이 유유히 흐르는 정경을 바라보고 있다. 폐허가 된 일상이 늘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언젠가는 강물이 풀리듯이 우리의 절망과 폐허도 때가 되면 슬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연약하지만 비와 바람을 이겨내고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민들레나 쑥잎풀 같은 것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황토 언덕의 꽃상여를 보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힘을 풀리는 강물을 보면서 얻게 되는 과정을 이 시는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다.

박목월 또한 <폐원廢園>이란 시에서 6·25전쟁이 끝난 후 자신이 근무했던 정동의 이화여고 교정을 보면서 “여기는/정동貞洞/성미하엘 종루鐘樓가 보이는데//하얀/돌층계에 앉아서//추억의 조용한 그네 위에 앉아서”라고 자신의 쓸쓸하고 서글픈 심정을 노래한 바

있다. 정동의 성미하엘 종루는 이화여고 부근 성공회 성당의 종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후에 시인은 이 대목을 “여기는 명동 사원 가까이”라고 개작하기도 했다.

을지도6가를

우리는 걸었다. 안개 속을

선생님, 아래도 살아야 할까요.

아암, 살아야지

내 대답은 한결같았다.

싸구려 장수로 해가 저물면

그래도 밤에는 야간 대학에 나오는,

뭐, 학문이 무슨 큰 보람이라만

조국은 양단되고

휴전선은 지척

서울은 밤안개

길이 희미하다.

박목월, 〈동행〉

박목월의 시 〈동행〉은 전쟁이 끝난 후 황폐해진 서울 거리를 걷는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조국은 양단되고/휴전선은 지척’인 서울의 밤은 앞을 볼 수 없는 안개로 가득차 있다. 제자



6·25전쟁 당시 폐허가 된 서울 시내

는 그 거리를 걸으며 삶의 의미를 묻고, 스승인 시인은 각박한 삶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희미한 전망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제자에게 말하고 있다.

‘후반기’와 모더니즘

1950년대에 서울을 노래했던 시인들로 ‘후반기’ 동인들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다. 1950년에 박인환·김경란·조향·이한직 등으



6·25전쟁 당시 전쟁고아

로 구성되었다가 부산 피란지에서 이봉래·김규동이 합류했던 이 시동인은 1950년대의 모더니즘 운동을 주도했다. ‘후반기^{後半期}’라는 용어는 1950년대부터 20세기의 후반기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후반기’ 동인들은 6·25의 전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학적 출발을 이루자는 뜻을 담아 동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서울에서 전쟁의 참화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또한 메트로폴리스로 비대해져가던 도시의 현실을 노래했다. 서울은 실향민들과 전쟁고아들,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 도시로 상경한 사람들로 혼란스러우면서도 근대화가 진행되어 거대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후반기’ 동인 중에서도 특히 서울의 감성을 노래한 시인으로 김경린을 들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서울이라는 공간의 근대화와 도시화를 시에 담고 있다. 김경린은 〈태양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서울〉에서 전후 서울의 불안과 고독을 노래했다.

태양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서울의 거리는

프라타나스가 하도 푸르러서

나의 심장마저 염색될까 두려운데

외로운

나의 투영을 깔고

질주하는 군용 트럭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가져왔나

비둘기처럼

그물을 헤치며 지나가는

당신은 나의 과거를 아십니까

그리고

나와 나의 친우들의

미래를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김경린, 〈태양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서울〉

서울 거리의 가로수인 플라타너스는 심장을 파랗게 물들일 정도로 푸르르지만, 도로에는 아직 군용 트럭이 질주하는 전쟁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 플라타너스가 상징하는 자연과 청춘의 푸르름에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의 거리를 질주하는 군용 트럭이 드러내는 전쟁의 불안이다. 그는 자신과 친우들이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직한 목소리로 전하고 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인의 마음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다. 김경린과 같은 ‘후반기’ 동인이었던 박인환은 조금 더 깊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감성에 다가서고 있다.

가을은 내 마음에
유혹의 길을 가리킨다
숙녀들과 바람의 이야기를 하면
가을은 다정한 피리를 불면서
회상의 풍경을 지나가는 것이다

전쟁이 길게 머물은 서울의 노대에서
나는 모딜리아니의 화첩을 뒤적거리며
적막한 하나의 생애의 한시름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러한 순간

가을은 청춘의 그림자처럼 또는

낙엽모양 나의 발목을 끌고

즐겁고 어두운 사념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박인환, 〈가을의 유혹〉

‘전쟁이 길게 머물은’ 서울의 한가운데에서도 누군가는 생의 적 막과 청춘의 낭만에 대한 상념을 이어갔다. 전쟁이 길게 머문 노대에서도 숙녀들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을 회상하거나 모딜리아니의 화첩을 뒤척이는 모습이, 해방기 모더니즘과 댄디즘을 대표하던 박인환이라는 시인의 초상에 어울린다는 느낌을 준다. 〈목마와 숙녀〉 등의 시로 유명한 박인환은 메트로폴리탄으로 살 아가는 도시인의 자화상을 자신의 시에 담았다.

계절을 잊은 남루를 걸치고

늦은 사람들 속 사람에 부대끼며

수많은 시선에 사살되면서

하늘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언제 저 푸른 하늘이 마시고 싶어

이렇게 가슴 태우며

오늘도 이 거리에서

나는 어데로 가는 것이냐

간판이 커서 슬픈 거리여

빛깔이 짙어서 서글픈 도시여

김규동, 〈하늘과 태양만이 남아 있는 도시〉

김규동은 〈하늘과 태양만이 남아 있는 도시〉에서 삽막한 인공 도시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그에게 서울은 '간판이 커서 슬픈 거리'이자 '빛깔이 짙어서 서글픈 도시'로 남아 있다.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대도시 서울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조명했던 것이 '후반기' 시인들의 시편들이었다. 이들은 1950년대 모더니즘 문화를 수용하면서 1950년대의 삶을 문화사 차원에서 생생하게 형상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명동 시대의 시인들

1950년대 명동은 서울 문화의 중심지였다. 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이 명동에 모여들어 새로운 도시와 시민의 합창을 꿈꾸었다. 명동의 음악감상실, 다방, 소극장, 화랑들이 그러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주었다. 명동 한복판에 있는 명동예술극장은 그



명동예술극장

당시 명동이 문화예술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하는 살아 있는 유산이다. 1936년 ‘명치좌’라는 이름의 영화관으로 문을 연 이 공간은 광복 후에는 ‘시공관’으로 불렸으며, 1957년에서 1973년까지는 ‘국립극장’으로 운영되었다. 1950년대 이후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이곳에서는 영화·연극·무용 등 각종 공연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열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1973

년 국립극장이 장충동의 새 부지로 이전하면서 정부는 이 건물을 대한투자금융에 매각했다. 그 후 이 곳은 명동의 상업적 중심지로 거듭나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자리로 이름을 남기기도 하였고 문화관광부가 이 부지를 매입하여 지금의 ‘명동예술극장’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김수영과 박인환 등 1950년대의 문인들은 이 명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해방기 서울의 문화와 모더니즘을 일구어나갔다. 김수영의 시 〈사랑의 변주곡〉을 보자.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도시의 끝에
사그리져가는 라디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사랑처럼 들리고 그 소리가 지워지는
강이 흐르고 그 강 건너에 사랑하는
암흑이 있고 삼월을 바라보는 마른나무들이
사랑의 봉오리를 준비하고 그 봉오리의
속삭임이 안개처럼 이는 저쪽에 쪽빛
산이

사랑의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들의
슬픔처럼 자라나고 도야지우리의 밤찌끼

같은 서울의 등불을 무시한다
이제 가시밭, 덩쿨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
까지도 사랑이다

(중략)

복사씨와 살구씨와 곶감씨의 아름다운 단단함이여
고요함과 사랑이 이루어놓은 폭풍의 간악한
신념이여
봄베이도 뉴욕도 서울도 마찬가지다
신념보다 더 큰
내가 문혀 사는 사랑의 위대한 도시에 비하면
너는 개미이냐

아들아 너에게 광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을 알 때까지 자라라

김수영, 〈사랑의 변주곡〉

봄베이와 뉴욕과 서울 같은, 메트로폴리탄들도 우리 일상의 작은 움직임들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라는 단단한 열매에 비하면 개미와 같이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김수영은 거대 도시의 욕망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사랑을 길어 올려 도시의 삶을 살아가려 한다. 시인은 이 도시에서 자라날

아들의 세대를 위하여 사랑에 대해 말하고, 사랑을 알 때까지 자라기를 기원한다. 그러한 사랑만이 이 도시의 피로를 이겨내고 도시 자체를 사랑의 위대한 도시로 만들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시인은 기성세대의 실패를 자인하는 듯 “아버지 같은 잘못된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 신념보다 더 큰 사랑의 위대한 도시가 펼쳐질 것이고, 그 안에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가 있다면, 실패는 부끄럽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씨와 살구씨가/한번은 이렇게/사랑에 미쳐 날뛸 날이 올 거다”라는 확신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3

서울 가는 길 - 산업화 시대의 서울

개발독재시대 서울의 그늘

1960년대 들어 한국은 산업화의 길로 달려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시골을 떠나 도시로 인구가 몰려드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근대화의 모습이지만, 한국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 정책과 도시화 정책은 이른바 '서울공화국'이라는 현상을 낳았다. 일자

리와 자본이 집중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화는 고향 마을에서 상부상조하던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도시에서의 삶은 개인의 계층에 따른 인구 분산을 낳았고, 삶의 존엄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왔다. 1960년대의 시인들은 이러한 산업화 시대 서울의 풍속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간다

울지 마라 간다

흰 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 넘어

팍팍한 서울 길

몸 팔려 간다

언제야 돌아오리란

언제야 웃음으로 화안히

꽃피어 돌아오리란

땡기 풀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간다

울지 마라 간다

모질고 모진 세상에 살아도

분꽃이 잊힐까 밀 냄새가 잊힐까

사뭇사뭇 못 잊을 것을
꿈꾸다 눈물 젖어 돌아올 것을
밤이면 별빛 따라 돌아올 것을

간다
울지 마라 간다
하늘도 시름거운 목마른 고개 넘어

꽉꽉한 서울 길
몸 팔려 간다

김지하, 〈서울길〉



1960년대 세종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길은 곧 ‘몸 팔러 가는 길’이다.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서울에서 노동의 장소를 찾았고, 그 행위는 여러 의미에서 ‘몸 파는 일’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길은 언젠가 돌아오리란 안쓰러운 약속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여정이 된다. 그러나 서울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향의 분꽃과 밀 내음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은 늘 고향을 잊지 못해 꿈속에서도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제기3동 정릉천 변에 첫 하숙을 잡은 것이 67년 겨울이었다. 하숙비가 한 달에 칠천 원인가 팔천 원이었을 것이다. 저녁을 먹고 천변에 나가면 건너편 성동역 뒤, 김지하의 시 <비어>에 나오는 안도安道가 마지막으로 숨어들었을 것 같은 마을, 판자촌 쪽방들의 불빛이 자욱했다. 그리고 그 데지우리 같은 골목에 싸락눈처럼 흩어져 나여린 누이들이 몸을 팔았다. 구례구역이나 순천역, 금지역이나 주생역에서 갓 올라온 듯한 얼굴들이.

이시영, <1967년 가을>

이시영의 시 <1967년 가을>이 증언하는 모습이 바로 산업화 시대 서울로 올라온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지방의 어느 고장에선가 상경한 어른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몸을 파는’ 모습은,



청계천 주변 판자집

부정할 수 없는 산업화의 그늘을 적시하고 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난 소년 소녀들은 가난한 노동자가 되어 서울의 어느 거리를 떠돈다. 이시영은 판자촌 쪽방에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김지하 시인의 〈비어〉에 나오는 안도를 떠올린다. 안도란 인물은 “시골서 올라와 세 들어 사는 안도_{安道}란 놈이 있었겄다./소같이 일 잘하고/쥐같이 겁이 많고/양같이 온순하여/가위 법이 없어도 능히 살 놈이어 든 그 무슨 전생의 악연인지 그 무슨 맙쓸 살이 팔짜에 끼었는지/만사가 되는 일 없이 모두 잘 안 돼”라고 김지하가 노래한 1960년대의 전형적인 고통받는 민중이자, 당대 특권층의 경제 독점을 풍자하는 인물이다. 그러한 민중들이 숨어 사는 판자촌 골목에서 대

한민국의 시골 어디에선가 올라온 나이 어린 여성들이 몸을 팔고 있는 모습은, 1960~1970년대의 서울을 다룬 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장면이다.

신동엽은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 어딘가의 시골로부터 상경한 한 소년을 만난다.

이슬비 오는 날.

종로5가 서시오편 옆에서
낯선 소년이 나를 불들고 동대문을 불었다

밤 열한 시 반,
통금에 쫓기는 군상 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새로 사 신은 운동환 벗어 품고
그 소년의 등허리선 먼 길 떠나온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희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 땅 어촌 말씨였을까.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 되돌아섰다.
그러나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
눈녹이 바람이 부는 질척질척한 겨울날,
종묘 담을 끼고 돌다가 나는 보았어,
그의 누나였을까.
부은 한쪽 눈의 창녀가 양지 쪽 기대앉아
속내의 바람으로, 때 묻은 긴 편지 읽고 있었지.

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세종로 고층 건물 공사장.
자갈지게 등짐하던 노동자 하나이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반도의 하늘 높이서 태양이 쏟아지고,
싸늘한 땀방울 뿐어낸 이마엔 세 줄기 강물
대륙의 섬나라의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의
물결이 둉굴고 있었다.

남은 것은 없었다.

나날이 허물어져가는 그나마 토방 한 칸.

봄이면 쑥, 여름이면 나무뿌리, 가을이면 타작마당을 휩쓰는 빈 바람.

변한 것은 없었다.

이조 오백 년은 끝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북간도라도 갔지.

기껏해야 버스 길 삼백 리 서울로 왔지.

고층 건물 침대 속 누워 비료 광고만 뿐이라는 거머리 마을,

또 무슨 넉살 꾸미기 위해 짓는지도 모를 빌딩 공사장.

도시락 차고 왔지.

이슬비 오는 날.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그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엔 밤이 내리고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에선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신동엽, 〈종로5가〉

이 시에서 화자는 종로5가의 한 신호등 앞에서 동대문은 어디로 가는가를 묻는 한 소년과 만난다. 이 소년은 바로 고향을 떠나 낯선 서울 거리에서 어느 곳인가의 공장을 찾아가고 있는 길이었을

것이다.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를 지닌 소년은 충북이나 전라도의 어느 시골에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하였을 것이고, 시인은 소년의 아버지와 누이를 함께 발견한다. 그들은 소년보다 먼저 고향을 떠나 도시 노동자가 되거나 종로의 어느 뒷골목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어 있다. 앞서 김지하의 〈서울 길〉에서 몸 팔러 가는 서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이 시는 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도시 노동자나 창녀로 변해가는 농민과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들의 모습은 ‘이슬비 오는 날’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 ‘비에 젖고 있었다’.

1970년대에 서울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도정에서 더 많은 인구가 몰려들었고, 도심의 개발이라는 변화와 그 반대급부인 혼란을 맞이하였다. 과거를 거부하고 현대성을 지향하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는 그만큼 많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낳았다. 강북의 도심 재개발, 판자촌 철거, 강남 개발은 1970년대 서울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고향을 버리고 서울로 이주한 사람들이 머물던 판잣집은 불량 주택이 되어 철거 대상이 되었고, 도시 빈민들은 서울의 외부로 추방되었다.

시인 김태준은 〈철새〉의 마지막 연에서 “‘조심해라, 얘야’/앞에 가던 아버지가 발을 헛딛었다/발 헛딛은 자리,/서울이었다”라고 고향을 떠난 자의 당혹감에 대해 말했다. 고향을 떠나 목표로 삼고

올라온 도시이지만, 발을 잘못 디딘 듯한 아찔함을 느끼게 만드는 도시, 서울. 그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 사람들은 낯익은 고향의 얼굴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용산 역전 늦은 밤거리

내 팔을 끌다 화들짝 손을 놓고 사라진 여인

운동회 때마다 동네 대항 틸레이에서 늘 일등을 하여 밥솥을 타던

정님이 누나가 아Neal는지 몰라

이마의 흥터를 가린 긴 머리, 날랜 발

학교도 못 다녔으면서

운동회 때만 되면 나보다 더 좋아라 좋아라

머슴 만득이 지게에서 점심을 빼앗아 이고 달려오던 누나

수수밭을 매다가도 새를 보다가도 나만 보면

흙 묻은 손으로 달려와 청색 책보를

단단히 동여매주던 소녀

콩깍지를 털어주며 맛있니 맛있니

하늘을 보고 웃던 하이얀 목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지만

슬프지 않다고 잡았던 메뚜기를 날리며 말했다.

이시영, <정님이>



유락여성 단속 관련 기사 스크랩

등이 굽은 물고기들
한강에 산다. 등이 굽은 새끼를 낳고
숨 막혀 헐떡이며 그래도
서울의 시궁창 떠나지 못한다. 바다로 가지 않는다. 떠나갈 수 없는 것
그리고 이젠 돌아갈 수 없는 곳
고향은 그런 곳인가

김광규, 〈고향〉

김광규는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의 삶을 한강에 사는 등 굽은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다. 물고기들이 넓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한강의 탁한 물속에 갇혀 살듯이, 서울 사람들의 삶 또한 그런 것이다. 그들은 늘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그들의 삶은 터전인 서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등지를 잃은 서울의 새

한편 산업화 속에서 점점 거대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던 서울이라는 장소에서 소외를 경험한 것은 비단 고향을 떠나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만은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거대 도시의 한 켠에서는 그로 인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된 존재가 생겨나고 있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서울의 갑자스러운 재개발이 서울 원주민들을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새들까지도 거처를 잊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인식은 너무도 유명한 시편 〈성북동 비둘기〉를 낳았다. 서울에 새로 번지가 생겼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지 않던 산 중턱에까지 사람들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점거했다는 뜻이다.

도시 개발은 필연적으로 자연환경의 훼손을 가져왔고, 그 자연에서 살던 비둘기나 다른 동물들의 거처 또한 위협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 모퉁이에
쉼처럼 외롭게 남겨진



1970년대 홍제동과 무악동 일대의 모습

개발 제한 구역

홍제동 뒷산에는

꿩들이 산다.

가을날 아침이면

장끼가 우짖고

까투리는 저마다

꿩병아리를 데리고

언덕길
쓰레기터에 내려와
콩나물 대가리나 멀치 꽁다리를
주워 먹는다.
지하철 공사로 혼잡한
아스팔트 길을 건너
바로 맞은쪽
인왕산이나
안산으로
날아갈 수 없어
이 삭막한 돌산에
갇혀버린 꿩들은
서울 시민들처럼
갑갑하게
시내에서 산다.

김광규, 〈서울 꿩〉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만큼 널리 알려진 시는 아니지만, 김광규의 〈서울 꿩〉도 서울살이의 각박함을 조류를 통해 비유하고 있다. 그가 주목한 것은 홍제동 뒷산에 사는 꿩의 무리들인데, 그들은 자연에 사는 존재이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먹이는 언덕길 아래

쓰레기터에 널려 있는 콩나물 대가리나 멸치 꽁다리뿐이다. 주변에는 지하철 공사 등으로 혼란한 개발이 벌어지고 있고, 그들은 다른 자연으로 날아갈 수 없어 삭막한 돌산에 갇혀 있다.

서울이 삭막한 대도시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많은 시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서울 사람들의 각박한 삶에 대해 노래했지만, 그 안에서도 더욱 그리운 사람들의 체온과 사랑을 잊지 않는다.

눈물겹도록 슬픈 일이 있다면

그건

아름답다.

돈암동 종점행 합승을 타면

창경원 앞에서 시작하는

플라타너스 그늘에

누군가의

따순 손이 그립다.

여기는

피곤한 하루라도

걸어가고 싶은 길.

박봉우, 〈가로의 체온〉

〈휴전선〉의 시인 박봉우는 평생토록 한결같은 목소리로 분단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평화를 노래한 시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가로_{街路}의 체온〉에서 박봉우는 사랑하는 사람을 고향에 두고 ‘빈 가슴으로 걸어가는’ 서울의 시민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혼자만이라도 서울의 길들을 훌러가다 보면, 어디선가 시인을 알아주는 애인의 맑은 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망 없는 희망이라도 품어보는 것이 서울살이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4·19혁명의 시

1960년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4·19혁명일 것이다. 1960년 4월,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민주주의 시민혁명인 4·19는 마산·대구·광주와 같은 지방 도시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지만, 그 중심을 이루었던 도시는 바로 서울이었다. 3·15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가 일어났던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혁명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졌다. 4월 18일 서울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동원된 정치깡패들의 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4월 19일 서울의 많은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



4·19 혁명 당시 종로에서의 시위대 행렬

여 경무대로 행진하였고 마침내 대통령 이승만의 하야 선언을 이끌어냈다.

김수영은 4·19 다음 날인 4월 20일에 이승만을 신랄하게 비판한 시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를 썼다.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그 지긋지긋한 놈의 사진을 떼어서

조용히 개굴창에 넣고

썩어진 어제와 결별하자

그놈의 동상이 선 곳에는

민주주의의 첫 기둥을 세우고

쓰러진 성스러운 학생들의 웅장한

기념탑을 세우자

아아 어서어서 썩어 빠진 어제와 결별하자

김수영,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이 시에서 말하는 ‘그놈’, ‘그 지긋지긋한 놈’이란 말할 것도 없이 독재자 이승만을 의미한다. 썩어진 어제와 결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내, 독재자라는 우상을 상징적으로 처벌하고 다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수영의 단호한 진단이다.



4·19혁명 직후 철거되는 이승만 동상

에 4·19기념탑이 생기면서 김수영의 시가 하나의 예언이 된 듯한 느낌도 있다.

4·19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단단한 마음을 이 시를 통해 느낄 수 있다. 쓰러진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웅장한 기념탑을 세우자는 구절은 상징적인 것이었지만, 이후 서울의 수유리

구겨진 마음들을

어서어서 펴서

아른아른한 아지랑이

부드럽게 춤추며

봄볕 속의 길로 나서자.

착하고 격렬했던 뜻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며

너와 나의 길
가릴 것 없이
우리들의 길로 한데 합쳐서

손에 손에 자식들을 이끌어
한 형제로
앞서가며 뒤서가며
마음을 활짝 열어
깨어나는 생명들의 소리를 듣자.

파고다공원에 내리는 봄볕도
수유리 419기념탑에 내리는 봄볕도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추나니,
춤을 추나니.

조태일 〈봄볕 속의 길〉

조태일이 〈봄볕 속의 길〉에서 노래한 것도 비슷하다. 우상과도
같았던 독재자를 처벌한 후에는 비로소 구겨진 마음들을 펴고 봄
볕 속의 길로 나설 수 있을 것이며, 격렬했던 뜻을 서로 나누어 같
은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에서는 그런 ‘착하고 격렬했



국립4·19민주묘지의 4·19학생혁명기념탑

던 뜻'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탑이 이미 수유리에 생긴 후여서, 시인은 그 탑에 내리는 봄볕에서 앞서간 생명들이 깨어나는 소리를 듣고 있다. 〈휴전선〉의 시인 박봉우는 1960년 《사상계》 7월호에 〈참으로 오랜만에〉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 시에서 “영원히 미쳐갈 줄 알고 염려한/명동·종로·광화문·무교동 주점의/참으로 고독했던 사랑스런 이름들”을 호명하며, 자유당 독재 12년 만에 다시 찾은 아침을 기뻐하였다.

수유리에 생긴 4·19기념탑은 이제 1960년 4월의 혁명을 기념하

는 사람들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다. 4·19혁명 다음 해인 1961년 2월,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시 도봉구 수유리에 4·19희생자들의 유해를 안장할 공원묘지를 설립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후 1963년에 희생자 185위의 영령을 안장한 4·19묘역이 수유리에 들어섰고, 이후 '4·19묘역 성역화 사업'을 거쳐 1995년에 기존의 묘역을 대폭 확장하고 상징 조형물과 기념관 등을 조성하여 4·19국립묘지로 승격시켰다. 많은 시인들은 이곳 수유리에서 4·19의 그 날을 떠올린다.

검은 도시도 멀리 사라지고
기념비들만 수척하게 서 있는 공원에서
나는 어둠을 닦으며 비문을 읽는다.
진달래꽃이 산언덕에서 고운 패혈처럼
피를 토하고 접동새들이 울고 술 많은 모발을
하늘로 날리며 돌밭 길로 묘비 새로 서성거리던
형제들의 그림자도 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그날의 함성을 환청으로 들으며
비문을 읽는다. 피의 거리의, 피의 거리의
어둠에 떠는 어둠의 소리를 읽는다.

최하림, <1976년 4월 20일>

최하림은 4·19혁명 16주년 기념일 바로 다음 날짜가 제목으로 된 이 시에서 수유리 공원의 어둠을 밖으며 그날 죽어간 사람들의 비문을 읽고 있다. 그 자신이 4·19 세대였던 최하림은 수유리 공원에서 승리한 그날의 기억보다는 그날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간 사람들, 친구들의 합성을 환청처럼 듣고 있다. 4·19의 그날로부터 16년이 흘렀지만 그날 쓰러져간 친구들이 부르는 어둠의 소리는 여전히 시인의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술 많은 모발을 지니고 있던 그날의 청년들은 어느덧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다. 김광규는 4·19가 난 지 18년 후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발표한다.

4·19가 나던 해 세밀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뿐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혜화동 로우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 냄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4·19 묘역



4·19혁명 18년 뒤 쓰인 이 시에서 김광규는 4·19 때 빛나는 청춘이었던 세대가 어느덧 중년이 되어 서로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이제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걱정하는 나이가 되었고, 더 이상 혁명을 꿈꾸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동승동 길, “우리의 옛사랑이 꾀 흘린 곳”, 청춘과 4·19를 보냈던 혜화동 로터리의 플라타너스 가지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고, 시인은 문득 부끄러움을 느낀다.

청계천의 여공들

군사독재 정권은 수출제일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며 산업화로 달려나갔다. 정부는 수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공업에 기반한 산업이 아니라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발, 섬유, 식품 등의 경공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했다. 서울에 생긴 공장 지대에는 고향을 떠난 젊은 노동자들이 모여들어 고된 노동에 자신의 청춘을 맡기게 되었는데, 특히 이러한 경공업 단지에 적합한 인력으로 채용된 것이 집을 떠난 여성들이었다. 산업체에서 여성 노동자를 대량으로 고용하면서, 수출 전선의 ‘전사’와 산업 역군이 된 이 여성들은 한편으로는 그들

을 비하하는 멸칭인 ‘공순이’로 불리기도 했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1979년 YH무역 여공들의 신민당 당사 점거 사건은 1970년대 산업화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당신들과 나의 세월도 아닌
타인들의 세월 속을 굴러다니느라
다 녹아났네, 다 녹아났네.
고구려 병정들의 천년 후를 내다보던
백제 처녀들의 천년 후를 내다보던
눈망울이었을까 나도 몰라.

가난 속을 한 속을 굴러다니다가
아아 가난해진 눈빛이여 빛이여,
벗발 속에 어른대는 지도,
지도 속에 번지는 산하여, 언어여.
미쓰야, 미쓰야, 억울하겠다
어서어서 나의 산하 나의 언어의 빛깔을 죽어 먹어라.
어느 뜨거운 모성母性을 엮어 울을 치고
어느 때도 보지 못했던 공화국을 잉태해야지.

어찌하여 어찌하여 또 살아갈

내 인습의 어지러운 족보에서
굴러다니는 몇 개의 눈깔사탕.

조태일, 〈눈깔사탕 1〉

1970년대의 대표적인 저항 시인 중 하나인 조태일은 그의 시 〈눈깔사탕 1〉에서 이 시대의 산업 역군이라는 미명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젊은 여공들에 주목한다. 그 여성들은 저 고대 국가 고 구려와 백제의 멸망을 기억하는 슬픈 눈망울을 지닌 채,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으며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의 여성성과 모성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화국의 완성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으로 희수되고 있었는데, 시인은 그들의 가난한 눈빛과 억울함을 잊지 않는 것으로 시대의 사명에 응답하고 있다.

시란 무엇인가

김종삼은 1969년에 발간한 시집 『북치는 소년』에 수록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에서 시의 본질에 대해 묻고 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 둘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1960년대 남대문시장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녘 남대문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시인의 대답은 서울의 거리들, 무교동·종로·명동·남산과 서울역 앞을 걷는 것이다. 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으로 다만 걷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곧 시란 걷는 것이라는 답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서울의 장소들을 빛나게 만들어준 시편들이란, 바로 이 걷기로부터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걸었기 때문에, 문득 보이는 것이 있다. 남대문시장의, 그 순하고 명랑하고 슬기로운 사람들 모습이다. 도시계획에 의해 기하학적으로 정련된 거리는 걷는 시인들에 의해 서 의미 있는 장소로 다가오게 된다.

거대 도시 서울의 숲, 북악산 아래 장소들

1970년대 산업화의 물결 속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서울로 몰려들었고, 서울은 커다란 빌딩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도시가 되어 갔다. 고향의 숲과 자연이라는 안식처를 잊은 사람들은 거대 도시 서울 안에서도 한적한 자연과 휴식을 맛볼 수 있는 동네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을 것이다. 그들은 고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동네를 서울의 어느 장소에서 발견하기를 바랐는데, 그런 바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장소를 서울의 산 밑 동네에서 찾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동네가 서울 외곽 북한산과 북악산 자락의 성북구 정릉동과 강북구 수유동·우이동 등이다. 시인들이 이러한 동네에 살거나, 이 장소들을 노래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솔잎 사이사이

아주 빛질이 잘된 바람이 내 뇌혈관에

새로 닿아와서는

그동안 허술했던

목숨의 운영을 잘해보라 일러주고 있고……

살 끝에는 온통

금싸라기 햇빛이

내 잘못 살아온 서른다섯 해를

덮어서 쓰다듬어주고 있고……

그뿐인가

시름으로 고인 내 간장肝臟 안 웅덩이를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

말갛게 씻어주며 흐르고 있고……

친구여



정릉 원경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이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資產을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

박재삼, <정릉 살면서>

박재삼이 서울 북쪽에 있는 마을 '정릉'에서 느낀 것은 무엇보다 솔잎 사이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다. 서울의 어느 도심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바람을 시인은 '아주 빛질이 잘된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릉에는 바람뿐만이 아니라 시인의 고단한 생

을 위로하는 금싸라기 같은 햇빛이 내리고, 시인의 시름에 찬 육체를 씻어주는 설개천이 흐르고 있다. 서울살이에서 드물게 느낄 수 있는 이 자산을 시인은 소중하게 간직하려 한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아내이자 조선 왕조의 첫 왕비가 된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은 본래 서울의 한복판, 정동에 있었다. 정동 **貞洞**이라는 지명도 정릉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고 이성계가 죽자 1년도 안 되어 정릉을 도심의 궁에서 한참 떨어진 경기도 양주군이었던 지금의 성북구 정릉동 자리로 옮겨버렸다. 신덕왕후는 두 아들 방석과 방번을 넣았는데 그 중 방석을 이성계가 총애하여 세자로 책봉하였다. 이방원은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두 이복형제를 죽였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후 다시 신덕왕후의 묘를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옮김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세자에 책봉되었던 배다른 형제에 대한 복수를 다시 한번 수행한 것이다.

정릉동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길음동이 나온다. 신경림은 길음동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기는 서울이 아니다

팔도 각 고장에서 못 살고 쫓겨온

뜨내기들이 모여들어 좌판을 벌인 장거리

예삿날인데도 건어물전 앞에서는 한낮에

윷이냐 삶이냐 윷놀이판이 벌어지고
경로당 마당에서는 삼채굿 가락의
좌도 농악이 흥을 돋군다
생선 장수 아낙네들은 덩달아 두레삼도 삼고
늙은 씨름꾼은 꽃나부춤에 신명을 푸는데
텔레비전에서 연속극이라도 시작되면
일 나간 아낙들이 돌아올 시간이라면서
미지기로 놀던 상쇠도 중쇠도 빠지고
싸구려 소리가 높아지면서
길음시장은 비로소 서울이 된다

신경림, <길음시장>

도심에서 벗어난 북한산 아래 마을은 또한 팔도에서 서울로 무작정 올라온 사람들이 시내에서 벗어나 겨우 거처를 마련한 동네이기도 하다. 특히 길음동 일대는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온 사람들의 무허가 간이 주택이 빠르게 세워지면서 빈자리가 없을 만큼 주택의 밀집도가 높아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알려져 있다. 길음동 주민들은 서울의 한 동네에서도 그들이 떠나온 시골 마을의 장날을 재현하고 있다. 건어물전 앞의 윷놀이판과 경로당 마당의 농악 한 마당이 펼쳐지는 무대는 고단한 서울살이 속에서도 옛 공동체의 향수를 잊지 않으려는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길음시장 내부

있다. 그들이 일상의 축제를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면, 서울의 길음시장은 “비로소 서울이 된다”.

길음시장은 1970년대부터 있던 이 마을에 자리 잡은, 역사가 오래된 재래시장이다. 길음동과 정릉동 경계까지 이어져 이 일대 주민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주었던 장소이다. 신경림은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라는 시에서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이것이/어머니가 서른 해 동안 서울 살면서 오간 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산 한 자락, 주택가들이 계곡과 만나는 지점쯤에 화계사가 있다.

여느 새벽보다도 일찍이 화계사 숲속의 약수터로 오르다가 보았다
자색紫色 안개에 휘감긴 아름드리 태고목太古木들의 숙연한 전신침묵
全身沈默을. 한결같이 그 주변에서 무릎을 끊고 있는 큰 바위들의 단좌
端坐를.

그때던가 어제까지도 죽었다고 생각해 오던 고목들의 출렁거리는 뿌리
등치끼에서 놋쇠와 놋쇠가 부딪듯이 찡,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나는 걸음을 멈추고

이 겨울 내내 산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어느 강철의 근육을 향그
러운 쇠망치로 때려 깨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조정권, 〈수유리 시편〉

조정권은 〈수유리 시편〉에서 도심에서 가깝지만 태고의 자연과
침묵을 느낄 수 있는 사찰 화계사 숲길을 오른다. 안개에 휘감긴
고목과 큰 바위들의 단좌를 도심과 멀지 않은 위치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세계의 어느 대도시에서도 흔치 않은, 서울만이 가진
매력이라 할 것이다. 수유리와 화계사라는 지명을 제하고 이 시를
읽으면, 이 시가 쓰인 장소가 서울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산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어느 강철의 근육을 향그러운 쇠망
치로 때려 깨우는 소리”가 서울의 어느 한구석에서 들려오고 있다
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시인의 상상력과 감성에 의한 놀라
운 인지의 결과이지만, 또한 실재의 서울이 얼마나 자연과 친화적



화계사

인 환경 속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서울의 어느 곳에 살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어느 순간 겨울 산중에서 태고의 침묵을 때려 부수듯 심연에서 들려오는 쇠가 부딪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 적막한 걸음으로 우이동牛耳洞 숲을 걸어가면서 본다

눈이 여린 가지에 내려 쌓이고

길들을 덮고

각각의 사물이 제 자신으로 돌아와

말없이 눈을 맞아들인다

무성한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양상한 지체枝體만으로 선

겨울 상수리나 가지 새로 울며 날아가는 겨울새나
더 이상 아무 가질 능력 없이 비렁뱅이 신세로
떠도는 도시 유랑인의 마음과도 같이

우리 머리에 내리고
들산에 내리고 흙에 스미는 눈
우이동의 눈이여 우리는 무엇으로 너희를 맞을 수 있을까
저 아름다운 사부랑 눈이라 해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눈 위로 걸어가는 우리 밸자국이
이미 노래이며 향수임을 누가 부인하며
맑은 공기나 찬 바람이 진종일 소나무 숲을
울리어 제 존재를 드러내듯이
눈 속에서 우리 존재가 제 본성을 드러내고
원래 의미를 되살림을 누가 마다할 수 있을까

우이동의 눈이여 나는 걸어가면서 생각는다
우리가 처음 보던 바다와 겨울나무 밤새들
그리고 잠 아니 오는 밤의 불안한 의식 속에서 들은 냇물 소리
그런 시간의 아이들의 순한 얼굴과 아내의 옛 모습
눈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

최하림, <겨울 우이동 시>



우이동 산책로

적막한 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서울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겨울 우이동 시〉에서 시인은 눈이 내리고 있는 우이동의 어느 숲을 걷는다. 그 눈은 들과 산에 내리고 흙에 스미는데, 눈을 맞으며 시인은 우리 존재의 본성에 대해 생각한다. 눈 위로 걸어가는 행위는 이미 노래이며 향수라는 것, 결코 부인하거나 마다할 수 없는 그 존재의 진실은, 서울의 어느 거리를 걸으며 시인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이다.

근 현 대 사 속
서 울 의
빛 과
그 림 자

4

서울의 함성 - 민주화 시대와 서울

경찰서의 시인들

산업화의 물결은 1980년대에도 이어졌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1980년대의 정치적 격변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개발독재 세력이 물러나고, 이른바 '서울의 봄'을 맞는 듯했던 정국은 다시 앞을 볼 수 없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문학은 이러한 시대와 사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고, 사회의 모순과 정치의 비합법에 맞서 싸웠다.



종로경찰서

새로운 독재세력들은 1970년대의 개발독재를 이어가며 그 그늘에 많은 민중들의 피와 눈물을 남겨놓았고, 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그들을 생각하는 시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독재에 대항했다. 독재에 저항했던 시인들은 자기 집처럼 경찰서와 감옥에 들락거리게 되었고, 그러한 고난의 기억을 빛나는 시로 남겼다.

신경림 구중서 조태일 시인이 계엄법 위반으로 종로경찰서에 잠시 구금되어 있을 때였다. 소식을 듣고 달려갔더니 세 사람이 나란히 면회실로 나오는데 표정들이 가관이었다. 조태일 시인은

허공에 연신 동그라미를 그리며 담배가 피고 싶다고 했고
신 선생은 몇 올 안 되는 염소수염을 달고 서림이처럼 헤해거렸고
구 선생은 약간 빼딱한 옆모습으로 서서 아이처럼 초밥이 먹고
싶다고 했다. 초밥집을 찾아 인사동, 관훈동 일대를 헤맸으나
그것도 막상 찾으려고 보면 없는 법. 종로서 앞 육교를 벌써
세 번째 오르며 김윤희 선생이 투덜거렸다. “아니 자기가 무슨
자니 브라더스야 뭐야? 이 한여름에 빼딱하게 서서 초밥 타령은?”

이틀을 더 머물다 그들은 서울구치소로 넘어갔는데 수갑이
모자라 세 사람을 한데 묶는 바람에 가운데 낀 신 선생이
그들의 큰 걸음을 따라잡느라 오리처럼 심하게 뒤통거렸다고 한다.

이시영, <1980년 여름 종로경찰서>

이시영의 시가 증언하고 있는 것도 경찰서에 잡혀간 시인들의 모습이다. 시인 신경림·조태일과 문학평론가 구중서가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종로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을 때 그들을 면회 갔던 장면을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땅의 민주와 평화를 위해 시를 썼을 뿐인 문학인들이 계엄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죄명으로 경찰서와 구치소에 구금되어야 했던 야만적 시대의 한 장면이라 할 것이다. 시인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지식인과 학생들이 감옥으로 끌려갔다.

너를 기다린다 나의 오랜 친구여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나는 어둠이 오는 길목에 서서
너를 가둔 감옥의 읊씨년스런 벽을 보며
오후 다섯 시 반의 애국가를 듣는다
모든 사람들이 결음을 멈춘
이 삼엄한 정지태의 한순간에
오히려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음을
나는 느끼며 두려워한다

(중략)

누군들 두려움 없이
국기 앞에 설 수 있으랴
짓밟혀 쓸겨가는 길목마다
가슴 찢어 두려운 네 이름 새기고
타오르는 온몸 어둠에 던져
너를 부른다 자유여 나의 오랜 친구여

정희성, 〈친구에게〉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는 서대문형무소가 있는 곳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탄압과 민족의 수난을 대표하는 장소가 서대문형무소였다. 현재는 옥사와 사형장, 망루 등을 복원하여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이 되어 있다. 역사관 안에는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기 삶을 헌신했던 지사들의 이야기들이 각종 유물과 기록으로 전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형무소역사관을 둘러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감옥이 광복 후에도 서대문구치소로 사용되었고, 1970~1980년대에 많은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지식인과 학생들을 감금하였던 장소라는 점이다.

정희성의 시 <친구에게>는 그러한 장소에 감금된 친구 혹은 자유라는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정희성은 <고척동에서>라는 시에서도, “더디고 더딘 새벽이여/새벽의 친구여/공화국의 밤은 깊고



옛 서대문형무소 일대



서대문형무소 내부

깊어/별은 저리 총총하고/하늘 밑 외롭고 적막한 막바지길에/우리
를 이렇게 세워두는구나/담벼락에 기대 너를 기다리며/차마 바라
보는 구치소의 불빛/눈시울 뜨거워라”라고 말하며, 시대의 어둠 속
에서 차가운 벽 속에 갇힌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예수가 낚싯대를 드리우고 한강에 앉아 있다 강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가 젖은 옷을 말리고 있다 들풀들이 날마다
인간의 칼에 찔려 쓰러지고 풀의 꽃과 같은 인간의 꽃 한 송이
피었다 지는데,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예수가
겨울비에 젖으며 서대문구치소 담벼락에 기대어 울고 있다

정호승, 〈서울의 예수〉

정호승은 민주화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예수라는 존재를 불러온다. 그에게 예수는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곁으로 다가온 존재이다. 서울이라는 장소는 “총소리가 들리고 눈이 내리더니,/사랑과 믿음의 깊이 사이로 첫눈이” 내리는 곳이고, “가슴으로 칼끝에 쓰러진 그대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왜 사람들은 평화롭게 잠들지 못하는가, 왜 인간의 질곡이 이토록 깊고 어지러운 것인가를, 사람들의 곁에 내려온 예수의 시선으로 묻고 있는 것이 〈서울의 예수〉라는 시이다.

수유리에

서늘한 산철쪽이 피었다 진 후

무서운 기다림으로

산은 깊어지네

무서운 설렘으로

숲은 피어나네

핏물 든 젊음의 상복으로

아카시아 흰 꽃이 온 산을 뒤덮은 후 뜨겁고 암담한

우리들의 희망 위에

몇 트럭의 폐퍼포그와 쇠루탄이 뿌려지네

외로운 코뿔소들이 그 위를 행진하네

오 나의 봄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일까

하늘에 칼을 대는 산바람 속에서 긴긴 봄날, 땅까떻까
서울의 백성들은 가무를 즐기고
쓸쓸히 목을 꺾은 젊은이의 무덤에
넋을 달래는 진혼제가 올려진 후
나는 생각하네, 친구여
한 나라의 자유를 위한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복종이기에
간을 적셔 쓴 몇 줄의 시로는 나
구원받지 못하리라 예감하네
더운 목숨의 외로움 탓으로
칼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언어와
끈질긴 목숨의 죄 때문에
홱절로 부지하는 당대의 문화가
어느 날 꽃이 피긴 피리라는 중도보수주의는
필경 무덤까지 따라와
수 세대에 이어질 쇠사슬로 덮일 것이네
오 우리들의 광장엔 광대들뿐이고
누군가의 빈손이 허공을 휘젓네

고정희, 〈프라하의 봄 1〉

1980년대 민중 문학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시인 고정희이다. 그녀는 정치와 노동 문제에 긴밀히 연동된 현실 참여 시를 쓰고, 여성 해방 운동의 가장 앞선 자리에서 있었던 시인이다. 시인은 또한 수유리에 있었던 한국신학대학을 다니고 수유리에서 생활하면서, 수유리라는 장소에 대한 애착을 시로 남기기도 했다. 〈프라하의 봄 1〉에서도 수유리에서 봄을 맞은 시인이 폐퍼포그에서 최루탄이 날리는 시대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4·19묘지가 있기도 한 그 장소에서 시인은 ‘한 나라의 자유를 위한 죽음’을 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칼이 되지 못하는 언어로 질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전하고 있다.

노동 문학의 시대

1980년대는 지식인 작가들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 현장의 문제와 모순에 대해 글을 쓰는 이른바 노동 문학의 시대로 기억되고 있다. 박노해나 백무산 등으로 대표되던 노동 문학은 노동자인 시인 자신이 직접 경험한 노동 현장의 고통과 서러움, 계급적 모순과 이에 대한 해방 의지 등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구로공단이 있던 구로동과 가리봉동 일대는 이 노동 문학의 산실로 기억되고 있다.

1960년대 구로구에 노동집약적 섬유·봉제 업체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 구로공단의 출발이었다. 또한 이 지역의 재개발 과정에서 이주한 난민들이 모여 살면서 이 일대는 노동자들이 몰려 사는 대표적인 공단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박노해는 시집 『노동의 새벽』에서 이 구로공단 일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삶을 노래했다.

가리봉시장에 밤이 익으면,
피가 마르게 온 정성으로
만든 제품을
화려한 백화점으로,
물 건너 코 큰 나라로 보내고 난
허기지고 지친
우리 공돌이 공순이들이
싸구려 상품을 샘나게 찍어두며
300원어치 순대 한 접시로 허기를 달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구경만 하다가
허탈하게 귀갓길로
발길을 돌린다.

박노해, 『가리봉시장』

〈가리봉시장〉은 구로구 가리봉시장을 배경으로 삼아 이 부근의 공단에서 일하던 공장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을 노래한 시이다. 개발독재 시대에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사람들은 나라에서는 '산업 역군'이라고 불렸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공돌이'와 '공순이'로 불렀다. 공순이, 공돌이들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점에

서 분명 한국 현대사에서 기억해야 할 이름이지만 또한 그들을 얕잡아 부르는 사회적 차별의 시선을 담고 있는 이름이기도 했다. 그들은 하루의 고된 노동을 끝내고 가리봉시장의 노점에서 순대 한



박노해 시집 『노동의 새벽』

가리봉시장



접시로 허기를 달랜다. 자신들이 만든 상품이 비싼 가격으로 외국으로 팔려나가고 백화점에 진열되어도, 정작 자신들은 그 상품들을 자신의 것으로 구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전시된 싸구려 상품들조차 구경의 대상일 뿐이다. 노동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노동 문학이 지향한 태도의 하나일 것이다.

초라한 스물아홉 사내의

사진 껍질을 벗기며

가리봉동 공단에 문힌 지가

어언 육 년, 세월은 밤낮으로 흘러

뜻도 없이 죽음처럼 노동 속에 흘러

한 번쯤은 똑같은 국민임을 확인하며

주민등록 경신을 한다

(중략)

노동 속에서 문드러져

네와 나 사람마다 다르다는

지문이 나오질 않아

없어, 정형도 이형도 문형도

사라져버렸어

박노해, 〈지문을 부른다〉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지문이 사라진 손을 가지고 있었다. 주민등록을 갱신하여 이 나라의 국민 됨을 증명해야 하지만, 손의 지문이 사라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은 그들이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당위마저 위협받고 있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불의 연대’로 불리던 1980년대가 지나고,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1세기를 몇 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쓰인 조기조의 〈구로동 아리랑〉은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얻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구로동 구종점 네거리 인력 시장

가로등은 꺼지고 해는 높았는데

아라리요 아라리요 얼굴 보고 골라가고

쓰라리요 쓰라리요 땅치 보고 골라가고

팔려가지 못한 사람들 진눈깨비로 서성이네

조기조, 〈구로동 아리랑〉

구로동 옛 종점 부근에 있는 인력 시장에 새벽마다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 일용직 노동자들 중 어떤 이는 일자리를 겨우 찾아가지만, 선택받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날 하루는 그야말로 공



옛 구로공단 여성노동자들이 거주했던 쪽방을 재현한 모습(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치는 날이다. 그들의 “혼자 남은 내 빨길은 공단 쪽으로 돌려지는 데” 그러나 “일하던 우리 공장은 문 닫은 지 석 달째”이다. 구로공단이 해체되면서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사장은 “밀린 월급 떼어 먹고 도망”갔다.

구로공단과 가리봉공단은 2000년대에 들어와 빠르게 변신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공단 지대이자 노동 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구로동 일대는 첨단 아웃렛이 들어서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변모했지만, 여전히 소비문화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 동포들이 밀집한 거주 지역으로 자리 잡아 서울의 대표적인 다문화 공간이 되었다.



오늘날 구로공단에 들어선 아울렛 매장

김사이는 2008년 출간한 시집 『반성하다 그만둔 날』에 수록한 〈초록눈〉을 통해 노동 문학의 현장이었던 가리봉동을 기억하고자 한다. “가리봉 오거리 가는 공장들 담 아랜/우울한 가슴들이 다 모였다/담벼락에 달라붙어 놀은 먼지들 빈 담뱃갑/썩은 나뭇잎 비닐봉지 팔다리는 물론, 머리 없는 나무들/한겨울 매일같이 옷깃 세우고 지나다닌 길/아무것도 보지 않고/그저 그러려니 사는 게/사는 게 그러려니 하면서”. 시인은 가리봉동에서 ‘그저 사는 게 그러려니’ 하며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누가 어디에 사냐고 물어볼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
내 고향보다 더 허름한 빈민촌 같아
자꾸자꾸 눈에 밟히고 불편하면서도
무슨 짓을 해도 티가 나지 않을 것같이 거리낌 없었던
떠나고자 몸부림쳐도 구로동이었다
내 시가 시작된 곳
젊음의 뒷이기도 했던
이 거리 구석구석 몸에 새겨졌다
떠나야겠다
시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

김사이, <머물기 위해 떠나다>

시인은 이제 구로동과의 결별을 준비한다. 고향보다도 더 허름한 서울의 어느 변두리,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기가 꺼려지는 장소, 그래서 선뜻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말하기 어려운 곳, 그곳이 구로동이다. 그 장소는 자신의 시가 시작된 곳이면서, 또한 늘 떠나고자 몸부림쳐도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곳이기에, 젊음의 뒷처럼 느껴졌던 장소이다. 이 시가 드러내는 구로동의 장소성은 외적 지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내밀한 기억과 체험에 맞물려 있다. 그곳은 몸이 머물던 곳만

이 아니라 자신의 시가 태어난 곳이고, 따라서 시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던 곳이기도 하다.

별 하나 초롱초롱 키우지 못하고

새 한 마리 자유롭게 날지 못하는

서울의 하늘

물 한 모금 깨끗하게 마실 수 없고

고기 한 마리 병들지 않고 살 수 없는

서울의 강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공기 한 바람 상쾌하게 들이켤 수 없는

서울의 거리

나는 빠져나간다

지옥을 빠져나가듯 서울을 빠져나간다

영등폰가 구론가 어딘가

시커먼 굴뚝 위에 걸려 있는 누르팅팅한 달이

자본의 아가리가 토해 놓은 서울의 얼굴이라 생각하면서

김남주, 〈서울의 달〉

1980년대의 독재와 자본주의에 맞섰던 대표적인 시인 김남주는 〈서울의 달〉에서 서울의 얼굴을 ‘자본의 야가리가 토해 놓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자본의 얼굴이자 심장인 서울은 지옥과 다를 바 없는 곳이고, 그래서 늘 지옥을 벗어나듯 서울을 빠져나갈 결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빠져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사람들은 서울의 지옥도에 대해 말하면서도 늘 서울로 모여들어 그것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근 현 대 사 속
서 울 의
빛 과
그 림 자

5

바람 부는 날에는 - 강남의 시

정신없는 영동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66년 서울의 도시 기본계획에서 영동지구가 부도심 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였다. 강남이라는 이름을 대체하고 있던 ‘영동’이라는 이름은 ‘영등포의 동쪽’을 의미하는 지명이었다. 한강 남쪽, 영등포의 동쪽에 자리 잡은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들은 어느 순간 서울에서 가장 많은 중장비들이 몰려들어 상전벽해의 변화를 만들어낸 장소가 되었고,



영동지구에 완공된 공무원아파트

이제 우리는 그곳을 ‘강남’이라 부르고 있다.

개발되기 이전 강남의 여러 마을은 광복과 6·25전쟁 이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농사를 짓던 서울의 채소 공급지였다. 강남에서 생산된 초식^{草食}이나 과일들은 서울의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의 청과물 상회에서 위탁 판매되었다. 하지만 강남이 개발로 인하여 초식 농사가 자취를 감추었고 흑석동이나 한남동의 상권 또는 중간 물류 기지로서의 기능은 자연히 쇠퇴하였다.

본래 땅값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울 수 있는 토지의 생산량에 좌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남이 개발되면서 농사를 짓는 땅의 지가가 높았던 과거의 기준은 무너졌고, 강남의 지가는 치솟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강남의 땅에 대한 투기가 시작되었다. 이들의 발길은 복덕방이 밀집해 있던 양재역 주변으로 몰려들어 강남의 땅값을 천정부지로 춤추게 했고, '말죽거리 신화'라는 말을 등장시키기도 했다.

영동시장 정류장에 내리셔서
서쪽으로 뚫린 지저분한 길에 들어서면
진로당과 신신육고간 간판이 보이고
장미 의상실과 또만나요 다방 다음에는
인생철학관 백운당과
카페 러브포엠과 코롬보와 티파니
세느가 나란히 있고
피어리스 문방구점이고
수퍼 쌀상회 다음에는 쳐적이 만화 가게입니다
연탄 가게와 맞붙은 이 가게 앞 돌계단에서는
다섯 살에서부터 일곱 살쯤 된 애들이
만화책을 보거나

로보트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이 보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놉니다

이 돌계단 옆을 왼쪽으로 꼬부라지면

셋째 집이 바로 여깁니다

찾으실 수 있겠나요

아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김규동, <미궁에로의 지도>



1973년 지어진 영동시장 아파트

1925년생인 시인 김규동이 1989년에 펴낸 시집 『오늘 밤 기리기 떼는』에 실린 시 〈미궁에로의 지도〉는 강남이 개발되고 난 뒤 그 거리에 나선 노시인의 당황스러움을 담백하게 전하고 있다. 강남 한복판인 영동 정류장에 내려선 시인에게 보이는 것은 복잡한 상점의 간판들이다. 오늘날의 강남을 생각하면 매우 시골스러운 간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거리의 온갖 모습들이 시인에게는 온통 정신없는 풍경일 뿐이다. 그는 자녀의 집을 찾아가면서 본 거리의 풍경을 전하면서, 자신이 익숙한 마을이 아닌 어딘가 정신없이 개발 중인 도시의 한 인상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교대역

3호선 교대역에서 2호선 전철로
갈아타려면 환승객들 북적대는 지하
통행로와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오르내려야 한다 바로 그 와중에
그와 마주쳤다 반세기 만이었다
머리만 세었을 뿐 얼굴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로 바쁜 길이라 잠깐
악수만 나누고 헤어졌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그와 나는 모두
서울에 살고 있지만

김광규, <교대역에서>

강남 한복판에 있는 전철역 환승 통로에서 시인은 지인을 만난다. 반세기만이라고 하니 매우 오랜만의 만남이었으나, 두 사람은 각자 바쁘게 가야 할 길이 있었다. 짧은 만남 후의 헤어짐, 그것이 서울에서 옛 친구를 만나는 방식이다. 두 사람 다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해도,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는 우연한 만남을 여러 번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향에서 올라와 같은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반세기 동안 만나지 못하기도 하는 곳, 거대 도시 서울이다.

압구정동의 오렌지족

강남은 198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을 상징하는 소비문화의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젊은 세대 사이를 파고들었던 자기 과시와 소비문화를 상징하는 용어로 '오렌지족'이란 단어가 있다. 오렌지족은 1980년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고 강남구 지역에 자리를 잡은 부유층 자녀들과, 유학을 다녀와 값비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특정 계급의 청년들을 지칭하는 은어였다. 향락적 소비문화를 탐닉하며 가성세대와는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소비문화를 보여준 이들이 오렌지족이었다. 오렌지족이란 용어는 압구정동 카페에서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면 오렌지 주스를 한 잔 건넸다거나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거리에서 여성들을 유혹할 때 오렌지를 들고 있었다는 데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미디어에서는 이들의 새로운 문화에 주목했고, 이때부터 압구정동 일대에서 향락적 소비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을 오렌지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시인 유하는 시집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에서 배나무밭이었다가 강남의 가장 부유한 동네로 변한 압구정동에 몰려든 사람들의 물질적 욕망에 주목했다. 자기 과시의 욕망과 성적 욕망이 뒤엉켜 타락한 산업 사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태어나던 해에 서울로 편입된 압구정동의 변화를 묵묵히 반추하고 있다.

압구정동에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라는 까페가 생겼다
온통 나무로 인테리어한 나무랄 데 없는……
그 옆은 뭐, 매춘의 나영희가 경영한대나 시와 포르노의 만남 또는
충돌…… 몰래 학생 주임과의 충돌을 피하여 펜트하우스를 팔리 다니던,
양아치란 별명을 가진 놈이 있었다 빨간 책과 등록금 영수증을
교환하던 녀석, 배나무 숲 너머 산등성이 그애의 집을 바라볼 때마다
괴식, 별거벗은 금발 미녀의 꿀매 같은 유방 그 움푹 파인 배꼽 배……
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밤이면 웅골지게 익은 배가
후두둑후두둑 녀석은 도둑고양이처럼 쟁싸게 주워 담았다
배로 허기진 배를 채운 새벽, 녀석과 난 텅 빈 신사동 사거리에서
유령처럼 축구를…… 해골바가지…… 난 자식아, 여기 최후의 원주민
이야
그럼 난…… 정복자? 안개 속 한남동으로 배추 리어카를 끌고 가던
외팔의 그애 아버지…… 중학교 등록금…… 와르르 무너진 녀석의
펜트하우스, 바람부는 날이면 녀석 생각이 배 맛처럼 떠올라 압구정동
그 넓은 배나무 숲에 가야 했다 그의 십팔번 김인순의 여고 졸업반
휘파람이 흐드러진 곳에 재건대원 복장을 한 배시시 녀석의 모습
그 후로부터 후다닥 상전벽해 桑田碧海된 지금까지 그를 볼 수 없었다
어디서
배꽃 가득한 또 다른 압구정동을 재건하고 있는지…… 바람 부는 날이면
배 맛처럼 떠오르는 그 애 생각에 배나무 숲 있던 자리 서성이면……

그 많던 배들은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수많은 배들이…… 지금
이곳에 눌러앉은 사람들의 배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 배나무보다
단단한 배포가 되었을까…… 배의 색깔처럼…… 달콤한 불빛, 불빛
이 더부룩한…… 싸늘한 배앓이…… 바람부는 날이면……

유하,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1〉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라는 이름은 황지우가 쓴 시의 제목이다. 이 시의 제목을 차용한 카페가 압구정동에 들어선 것에 주목하면서, 유하는 시의 서정과는 무관한 압구정동의 풍경과 그 풍경이 불러온 자신의 추억을 이야기한다. 온통 배나무 숲이었던 추억 속의 그 장소는 지금은 상전벽해가 되어 사라졌다.

유하는 ‘욕망의 통조림 또는 묘지’라는 부제가 붙은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2〉에서 “압구정동은 체제가 만들어 낸 욕망의 통조림 공장이다/국화빵 기계다 지하철 자동 개찰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압구정동에서는 당대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헤어스타일과 패션으로 무장하고 스포츠카를 탄 채 거리에 나타나야 한다. 그러한 “국화빵 통과 제의를 거쳐야만 비로소 압구정동 통조림통 속으로 풍덩 편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압구정동의 욕망을 노래한 것은 유하만이 아니다.

예수께서 재림한 날이 다소 가까워지자 구정동에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에 앞서 사람을 보내셨다 그들은 먼 길을 떠나
구정동에 당도하자 예수가 머물 거처를 수소문하였으나
구정동 주민들은 그런 수상한 자를 차고에서라도 채울 수
없다며 집 안에 맞아들이기를 단연 거절하였다 또 이 지역을
순회하던 방범대원은 주민등록마저 없는 자가 어찌 언감생심
구정동 금파트에서 이슬 가릴 생각을 하느냐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를 본 제자 김교신과 함석현이 주님, 씨알 없는 땅에서
미련을 거둘까요, 하고 물었으니 예수께서는 돌아어서 그들을
꾸짖고 나서 구정동 사랑가를 부르시며 목 놓아 우셨다

고정희, 〈밥과 자본주의 - 구정동아 구정동아〉

고정희는 자신의 기독교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압구정동에 예수를 출현시킨다. 예수는 자신의 재림 전에 사람을 보내 압구정동에 거처를 수소문하였으나, 압구정동은 출신과 재력을 증명할 수 없는 외지인을 좀처럼 환영하지 않는다. 압구정동의 아파트는 당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였으므로, 그러한 ‘금파트’에 외지에서 온 인물을 하룻밤이라도 머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압구정동 주민의 태도이다. 이 시가 압구정동에 대한 지나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압구정동이란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 속에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서울의 첨단 소비와 자본주의 번성을 상징하는 장소의 하나가
압구정동이지만, 그곳이 원래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한강 변
의 조용한 마을이었다는 사실은 기억 속으로 사라진 듯하다. 그러
나 어느 시인은 그러한 기억 속의 풍경을 그린 듯한 압구정을 떠올
리고 있다.

이조 후기의 겸재 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 ‘압구정’에는 강변의 작은 둑
단배 두 척에 어부가 한 사람씩 서 있다.
몇 점쯤 되었는지 안개비가 마을 쪽에 자욱하다.
성진 소나무 숲 사이로 작은 초가집 몇 채가 언덕에 기댄 채 한가하게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다.

압구정, 좀이 먹은 그림의 강물 자리에는 살찐 물고기 떼가 몰리고 있는지, 구름이 천천히 자리 잡자 참새인지 제비인지 몇 마리 날던 새가 공중에 멈추어 선다.

오래 밀린 잠이 이제야 돌아오기 시작한다.

내가 고국에서 밀려나던 60년대 초에는 강남구도 압구정동도 없었다. 내가 떠난 뒤 늙은 소나무 언덕을 짹쓸이로 깎은 자리에 고층 아파트가 수없이 줄 서고 높은 백화점이 일어서고 그 사이에는 상점과 식당과 소음이 들어찬 모양이다.

땅 밑으로는 뱀들을 쫓아내고 전철 레일을 깔았다.

전철은 큰 소리로 건물 지하 주차장의 밑과 사이를 누볐다.

밤인지 낮인지 모를 찬란한 풍경은 과연 끝이 있을까.

간지럼 타는 압구정의 충혈된 눈은 누구와도 초점이 맞지 않는다.

마종기, 〈압구정동〉

마종기는 겨재 정선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압구정을 바라보고 있다. 압구정은 조선조 세조 때부터 영의정을 지낸 한명희가 그의 호를 따서 지은 정자이다. 겨재의 그림 속에서 그 압구정이 있는 동네는 소나무 숲 사이로 작은 초가집 몇 채가 있을 뿐인 조용한 마을이다. 안개 자욱한 강변에 둑단배 두 척이 떠가는 모습에서 현



정선의 〈압구정〉

재의 압구정동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인은 강남이 개발되기 전의 압구정동을 기억하고, 귀국한 뒤에 그 강변의 언덕에 고층 아파트가 늘어서고 백화점이 들어선 현재의 모습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입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욕망의 성채들

잠실에는 잠실섬[蠶室島]이라는 이름을 지닌 섬이 있었다. 잠실섬은 옛 지도에 상림_{桑林}이라 표기될 정도로 뽕나무가 무성했다. 잠실이라는 이름은 주민들이 누에 치는 일을 주업으로 삼았던 동네이기에 붙은 것이다. 잠실섬 옆에 있던 부리도_{浮里島}는 홍수가 나면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잠실섬과 부리도는 평상시에는 하나의 섬이었지만 홍수가 나면 두 개의 섬으로 분리됐다. 탄천과 한강이 만나는 언저리에 있었던 무동도_{舞童島}는



섬의 남쪽에 춤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잠실섬은 본래 강북에 연결된 육지였으나 어느 해인가 큰 홍수로 신천강(신천川)이 생기면서 섬이 되었다. 작가 조세희는 소설 〈민들레는 없다〉에서 잠실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잠실은 모래로 만들어진 동네이다. 모래땅에 모래 아파트들이 가득 들어 있다. 둑을 쌓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 도로를 내기 전에는 범람한 강물이 여름 잠실을 덮쳐 누르곤 했었다. 모래 동네에 사는 사람



잠실의 아파트 단지와 롯데타워

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 잠실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이고, 아파트가 거기 있기 때문에 들어가 살 뿐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잠실을 벼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시멘트와 철근이다. 시멘트와 철근을 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모래만 남아 훌날리게 될 것이다. 모래는 모래끼리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 뭉치지 못한다. 슬픈 일이다. 모래뿐 아니라. 그런데도 잠실에 사는 사람들은 시멘트와 철근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나 누가 잠실에 산다고 말하면 일단 그를 위로하라. 그는 살벌한 모래땅, 모래 아파트에 사는 모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 마땅하다.

조세희가 잠실의 과거를 떠올리며 그곳을 버티게 해준 것이 시
멘트와 철근이라고 말했다면, 이후 잠실의 변화를 지켜보던 시인
들은 그곳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 거대한 욕망이라고 생각한다.

저것은 거대한 욕망의 성체다

이성을 살해한 음울한 중세의 성벽과
빛나는 P.C. 자기질 타일 외장의 롯데월드
그것은 무엇을 방어하고 있나요.
당신을, 우리를, 무산대중을?
꿈과 희망의 동산이요, 사랑과 행복의
당신의 휴식 공간 롯데는
우리를 모두 젊은 베르테르의 사랑에 빼지게 한다
욕구의 끊는 기름과 조갈의 불화살을 쏴
끊임없이 당신을 상품화하고
끊임없이 당신을 당신이 소비하도록
구애한다
“여러분은 지금 롯데월드로 가시는 전철을……”

/욕/망/을/드/립/니/다/

/쾌/락/을/드/립/니/다/

—“내리시면 바로 당신을 진열해드립니다”

이 지하철은 저 성채의 비밀 통로인 모양이다

함성호, <잠실롯데월드-건축사회학>

잠실에는 롯데월드라는 거대한 테마파크가 있다. 그 안에 있는 중세의 성벽과 빛나는 타일 외장들은 이 소비 사회의 핵심적인 장소로 떠오른 잠실이라는 곳의 허상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다. 그곳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은 모래 위에 지어진 동산이기에, 자칫하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곳이다. 그 위에 거대한 욕망을 쌓아 올린 동네가 잠실이라면, 그 상징적인 성채가 롯데월드인 셈이다.

서울올림픽과 잠실의 재개발

잠실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서울올림픽 개최가 있다. 잠실은 1970년대부터 국제 스포츠 행사를 고려한 도시 설계가 이루어진 장소였다. 잠실지구 개발은 ‘올림픽타운’ 조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송파구 방이동의 봉촌토성 일대에는 대단위 체육 시설이 조성되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연이은 개최는 서울에서도 특히 잠실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올림픽대로의 개통과 주요 간선 도로의 정비, 지하철 2호선 건설 등이 그것이다.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도시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울 곳곳에 있던 판자촌과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는 근대화 이후 서울에 자리 잡고 있던 판자촌의 주민과 상인들에게는 삶의 환경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위기를 의미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세계인들이 도착하는 김포공항에서 그들이 머무르게 될 송파구의 올림픽촌까지 이어진 올림픽대로 주변에 있던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불량 주택들이 모두 철거 대상이 되었고, 서울 사당동·신림동·목동 그리고 상계동에까지 무차별적인 철거 폭력이 행사되었다.

안경을 쓰기로 했다

올림픽과 프로야구와 맨션아파트의 잠실

올림픽에 대비한 77억짜리 공사장

녹슨 철근을 휘면서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 셋가루 때문이 아니라

부신 햇살 때문이 아니라

가판점 싸구려 안경을 하나 사서

포니 로얄 그라나다 줄줄이 떠나가는

아파트 단지의 연휴를

테니스장의 잘빠진 몸매와

골프장의 피등피등한 선진 조국을

귀 따가운 야구장의 합성을

단단하게 가려버리기로 했다

주눅이 들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철근을 휘다가도 잘못 휘어져온

철근을 바루다가도
눈물겹게 가슴을 때리는 그리움들
그리움의 끝에 이가 갈리도록
치솟는 분노 시퍼렇게 불꽃이 튀는
증오의 눈초리를 숨기기 위해
내가 더 앞으로 가서 달려오는 너의
분노와 만나기까지
그때까지만
색깔이 진한 안경을 쓰기로 했다

잠실에 와서
올림픽을 위한 공사장
녹슨 철근을 휘면서

김해화, 〈잠실 이야기〉

김해화의 시 〈잠실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올림픽을 위한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시선 속에 감추어진 증오의 눈초리와 분노이다.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서 누군가는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누군가는 올림픽 준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야 하는 상실을 경험했지만, 서로 다른 입장에 있던 그 사람들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있었음을 김해화의 시를 통해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소소한 바람은 무심하게 흘러가다
바람에 따라 폭풍으로 몰아치기도 하는데

가리봉동에서 여자씨의 죽음은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주먹다짐처럼 스쳐가고
원곡동에서 여자씨의 죽음은
이주민끼리의 치정이나 원한쯤으로 치부되고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본다
음악을 들으며 밥을 먹으며 술을 마시며 본다
오늘의 날씨처럼 일상적인 바람이 본다

수백 수천의 월세를 내면서도 가지고 싶은
그 이름의 욕망
강남에서 바람이 불었다
강남 한복판에서 바람에 불이 붙었다

스쳐가고 치부되던 여자씨들

강남에서 활활 타올라
조울증 걸린 세상으로 목소리를 낸다

유색과 백색의 거리이기도 하고
히잡 쓴 여자와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의 거리이기도 한
가리봉동과 강남의 거리는
내 밖과 내 안의 거리다

김사이, 〈균열〉

가리봉동에서 내 시가 너무 오래 머물렀다고 말했던 시인 김사이는 그 가리봉동의 바람이 불어가는 장소를 따라가고 있다. 이 일상에 부는 바람들이 몰려가는 장소는 강남이고, 그곳에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바람에 불이 붙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제 2 장

서울의 일상과 장소들

1. 서울역과 주변 동네들
2. 동대문에서 청량리까지
3. 정동에서 홍대까지
4. 남산 주변의 마을들
5. 사당동에서 여의도까지
6. 서울의 연결망, 지하철의 풍경

1

서울역과 주변 동네들

다양한 얼굴의 서울

시인 장정일은 〈서울에서 보낸 3주일〉이라는 시에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금세 외로워지는 서울”이라고 말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욕망의 용광로’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그 욕망이란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욕망하는, 타자의 욕망들로 가득 찬 도시라는 것이 시인의 진단이다. 따라서 시인은 “비에 젖은 서

울의 쌍판은 마스카라 번진 창부 얼굴 같구나.”라고 서울의 얼굴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얼굴이 이렇듯 욕망으로 가득 찬 모습만은 아닐 것이다. 시인들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다양한 장소에서 그 장소 고유의 정체성을 자신의 기억과 연동시키는 이야기들을 생산해왔다. 서울의 여러 동네들, 그 고유한 장소들을 시인들이 기억하고 노래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서울의 얼굴, 서울역

서울역은 전국의 도시와 서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서울의 관문이다. 광복 후 서울역은 이춘향도의 현장으로 압축적 도시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고향을 떠나 상경한 많은 사람들이 처음 만나게 된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얼굴이 되었다. 도시에 도착한 사람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서울의 얼굴은 당연히 서울역 앞 전경이다. 현재는 새로운 역사가 세워졌으나, 구 서울역사 건물은 아직 그 모습을 간직한 채 남아 있다.

구 서울역사 건물은 1922년에 착공, 1925년에 완공되었다. 설계는 도쿄제국대학 교수인 츠카모토 야스시[塙本靖]가 맡았는데 자신의 스승인 다쓰노 키고[辰野金吾]가 설계한 도쿄역을 본떠 구상했다



서울역

고 한다. 1층은 르네상스 궁전 건축 기법으로 처리하고, 1층 윗부분과 2층은 붉은 벽돌로 쌓고 부분적으로 화강석을 장식하여 마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건물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구 서울역사를 복원하여 2011년부터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난 문화역서울284에서는 연중 내내 다양한 전시, 공연, 문화 행사, 상설 프로그램 등이 열리고 있다.

서울역은 서울의 상징적 지표였기에 비단 기차 승객을 위한 곳이었을 뿐 아니라 만남의 장소, 산책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서울역

은 이렇게 서울로 편입하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
인 동시에, 이미 서울 사람이 되어버린 이들이 잠시 서울을 벗어나
고자 할 때 거치는 관문이기도 하다.

서울은 객지의 총본부 같다, 투덜대고 싶다.

서울역에 내릴 때마다 대뜸 낯설다. 대낮인데도 덜컥,
저물 것처럼 왁자지껄하다.

이제 저 엄청난 인구가 모두 널 모를 것이니, 뭐든 짚어지고 너 혼자 걱
게 될 것이다.

마음을 에워싸는 먹물 같은, 노숙 같은 그들이 당연
전국에서 가장 크고 침침하고 놑눅할 것이다.

집에 가고 싶거나, 집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서울 가면 풀린다. 서울역에 내리면 곧장 그길로 되돌아가려는 마음이
바로 집이다.

탈출하라, 늦어도 당일 일몰 전 오후 4시를 넘지 마라.

유동인구 속에서도 여지없이 들킨다. 사방 천 리가 적막한
그 어둠의 투망이 대로상에서 하필 널 덮칠 것이다.

문인수, 〈남행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서울역 전경

문인수의 시 <남행하게 된다>는 서울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서울로 진입할 때마다 낯설게 다가오는 서울역의 인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역은 늘 왁자지껄한 곳이지만, 서울의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운 도시의 입구이다. 그 도시에 진입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며 홀로 걸어야 한다. 마음을 에워싸는 그늘이 침침하고 사방천리가 적막한 것이 서울의 삶이다.

문인수가 서울의 삶은 노숙과도 같다고 말한 것은 비유적인 의미이지만, 실제로도 서울역사 부근은 노숙자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별이 되려다가 실패한 인생들이 별을 보며 병나발을 불었다
환속에 실패한 그림자가 지하도 계단에 앉아 등을 구부렸다
세상의 호명을 기다리던 자판기 속
분내 나는 화장지 한 겹 한 겹 광장 모퉁이로 모여들었다
말의 단맛을 본 공중전화는 어떤 시대와도 소통되지 못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저쪽의 부재를 알리는 단속음이
오래 들려왔다 야음을 틈타 상경했던 완행열차 쇳소리 같은
추억이 잠시 서울에 세 들어 살다가, 서울이 되려다가
실패한 신도시와 함께 총알택시를 타고 떠나고 있었다

이성목, 〈옛사랑, 서울역 광장에서〉



오늘날의 서울역 광장 모습

이성목은 그 서울역 노숙자들의 삶에 주목한다. 그들은 한때 별이 되고자 서울로 올라왔으나, 이제 별을 보며 병나발을 불고 지하도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잠이 드는 존재로 전락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전해지지 못하고, 전화에서는 부재를 알리는 단속음만 들려올 뿐이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비정함이 드러나는 장소가 서울의 얼굴인 서울역이라는 점은 깊이 생각해볼 울림을 준다.

근대의 유산이 남은 장소, 청파동

서울역은 처음 건설될 때 종단역이 아닌 통과역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철로가 서울 도심 지역을 이분화하였고, 도심 공간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서울역을 지나는 철도에 의해 청파동은 서울 도심으로부터 단절되었다. 그 결과 서울역 뒤편에 놓이게 된 청파동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근대화의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주거, 상업, 산업의 형태를 유지하며 독특한 장소성을 띠게 되었다.

청파동은 서울역 뒤편에 자리한 동네이다. 원래 이곳은 푸른 야산이 많아서 푸른 언덕을 의미하는 청파_{靑波}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청파동은 본래 역촌으로 발달하여, 고려시대에는 22도의 하

나인 청교도 靑郊道의 청파역 靑坡驛으로, 조선시대에는 한성과 삼남 지방을 연계하는 병조 직할의 청파역으로서 교통 통신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던 장소이다. 이 동네는 조선시대 반석방의 서쪽이며 석교동·주교동·신촌동 각 일부분과 청파 일계 일부분을 병합하여 만들어졌다. 청파동 일대는 인근의 용산 및 마포가 수로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상업 지역으로 발전하였다. 시인 최승자는 〈청파동을 기억하는가〉라는 시를 남긴 바 있다.

겨울 동안 너는 다정했었다.

눈의 흰 손이 우리의 잠을 어루만지고

우리가 꽃잎처럼 포개져

따뜻한 땅속을 떠돌 동안엔

봄이 오고 너는 갔다.

라일락꽃이 귀신처럼 피어나고

먼 곳에서도 너는 웃지 않았다.

자주 너의 눈빛이 셀로판지 구겨지는 소리를 냈고

너의 목소리가 쇠꼬챙이처럼 나를 찔렀고

그래, 나는 소리 없이 오래 찔렸다.

찔린 몸으로 지렁이처럼 기어서라도,

가고 싶다 네가 있는 곳으로.
너의 따뜻한 불빛 안으로 숨어 들어가
다시 한번 최후로 찔리면서
한없이 오래 죽고 싶다.

그리고 지금, 주인 없는 해진 신발마냥
내가 빈 벌판을 헤맬 때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꽃잎처럼 포개져
눈 덮인 꿈속을 떠돌던
몇 세기 전의 겨울을

최승자,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이 시는 제목에서 드러내고 있는 바와 달리 청파동이란 장소를 특정할 만한 시어는 시 속에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몇 세기 전의 겨울’을 꽃잎처럼 포개져 지내던 어떤 특별한 사랑을 했던 장소가 ‘청파동’일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그 사랑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시인은 ‘지렁이처럼 기어서라도’ 그 시간, 그 장소, 따뜻한 땅속을 함께 떠돌던 너와의 사랑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최승자는 1980년대에 《이 시대의 사랑》과 《즐거운 일기》 두 권



청파동 전경

의 시집을 상재하며 문단의 가장 유니크한 시인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시는 강렬한 시어와 순도 높은 비유를 통해 사랑 없는 시대
에 사랑하는 일의 강렬한 아름다움과 비극성을 보여준 바 있다.
지나간 연대를 떠올리고, 지나간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이
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남산 아랫마을의 추억, 남대문시장과 회현동

남대문시장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와 분위기를 띠게 된 것은 조

선시대 초기에 형성되어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거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남대문시장은 대한제국 시기인 1897년 선혜청 창내장이 조성된 것을 시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 및 일본인 지역 유지들이 남대문시장의 관리권을 가지며 서울 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이때 미국·과물·어물 등의 식품류를 비롯하여 잡화 등을 판매하는 서민을 위한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계 백화점 네 곳이 근처에 있었다. 광복 이후에는 6·25전쟁과 큰 화재로 많은 건물들이 전소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과 세관의 단속을 피해 마치 도깨비가 나타났다 사라지듯 밀수 수입품·군수품 등을 반짝 팔아치워 ‘도깨비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없는 물건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물건이 모이고 흘러진다는 서울의 대표적인 종합 시장인 남대문시장은 서울역에서부터 송례문, 명동, 동대문시장으로 이어지는 도심의 주요 관광 코스 중 하나이다. 다종다양한 상품 이외에도 먹을거리, 구경거리가 풍부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최근에 주요 상품으로 자리 잡은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의류·주방용품·침구·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수입품을 비롯하여 안경, 카메라, 관광 상품, 심지어 정육과 어물, 청과물 등을 다루는 재래시장까지 속해 있다.

식민지의 모더니스트 박팔양은 〈남대문〉이라는 시에서 “서울은 행복스러운 도성이외다/그는 그의 가슴에 남대문을 안았으니/사랑



남대문시장의 노점들(2012년)

하는 사람을 안은 젊은 사나이와 같이/즐거움과 든든함으로/그의 마음은 하나 가득할 것이외다”라고 말했다. 그의 시는 승례문(남대문)의 존재를 예찬하는 것이나, 그 주변에 있는 남대문시장의 존재 또한 서울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든든함을 가져다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철 회현역

남대문시장 쪽 출구 계단

무뚝뚝하게 닫힌 상가의 셔터
어둑하고 얼룩한 계단
하얗게 식은 연탄 화덕
스무 마리쯤의 오징어와 타일 벽에 기대어
잠든 아주머니
코를 찌르는 연탄가스
막 빠져나오면
노란 굴이 수북한 손수레
노점상의 애절한, 붉은 눈
눈이 붉은 밤.

황인숙, <열한 시 반>

황인숙의 시는 남대문시장의 밤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지하철 4호선 회현역 5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남대문시장으로 연결되는데, 그 어둑하고 얼룩한 계단 타일 벽에 기대어 잠든 아주머니는 남대문시장 노점상이다. 연탄 화덕에 오징어를 구워 팔고 있는 그 아주머니의 피로는 활기찬 남대문시장의 이면에 있는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대변한다.

남대문시장에서 남산 쪽으로 길을 건너면 회현동이다.

그날 회현동 집, 하루 종일 눈

내리다 말다 했다.

황동규, <젊은 날의 결>

문학평론가 김병익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황동규의 회현동 옛집에 대한 기억을 들려준 적이 있다. “그의 집은 회현동의 일본식 이층집이다. 6·25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의 대학 시절 나는 그의 이층 방에서 순수한 열정과 순진한 상상력이 어울린 젊은 자작시들을 낭송해 들려주던 그의 높은 목소리와 아래층 우리 소설문학사에 또 하나의 높은 봉우리를 이룬 그의 아버지 황순원 선

회현동 남대문시장 일대



생님의 방에서 훔쳐온 담배 개비를 피워대던 다다미방이 따뜻하게 회상된다. 그 동네는 오래전에 헐리고 아주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소설가 황순원과 그의 아들 황동규가 살던 회현동 집 앞의 눈은 지금 다 사라지고, 동네 또한 다른 모습으로 변하였을 것이다.

시인들이 사랑한 거리, 인사동

인사동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14년이다. 일제강점기부터 골동품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던 인사동에는 1970년대에 들어와 화랑, 표구점 등의 미술품 관련 상점들이 이곳으로 집중되면서 현재와 비슷한 문화의 거리로 발전했다. 인사동은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거리이다. 여기에는 골동품 상점, 화랑, 표구방, 필방, 전통공예품 상점 등이 집중되어 있고, 전통찻집·전통주점·전통음식점이 번성하고 있다. 인사동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이다. 인사동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 상주인구보다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다.

전통문화의 거리로 알려진 인사동은 예로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이 출몰하던 장소이다. 식민지 시기에 이상이 카페 ‘쓰루’를 열었던 곳도 인사동이었고, 인사동을 무대로 삼은 시와 소설들은 대부



인사동 거리

분 이 장소에서 벌어진 문인들의 회합과 음주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인사동에는 시대별로 시인과 작가들이 주로 출몰하는 유명한 다방과 주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인사동이 궁금하다

며칠 안 나가는 동안

눈에 번쩍 띄이는 벼루가 나왔다가

눈 밝은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았을까 하고

그래서 틈만 나면

인사동 거리를 가웃거리지만
- 그 벼루 조각 한번 참!
은 만나지 못하고
찌든 며 냄새만 가슴에 환하게 담고
목 부려진 백자 주병처럼
고개 꺾고 돌아오는

이근배, 〈인사동 산책 - 벼루 읽기〉

이근배 시인이 〈인사동 산책〉이란 시에서 표현한 것처럼 인사동에 들르면 가장 눈에 띄는 상점들 중 하나가 각종 골동품점과 화방일 것이다. 인사동은 다양한 면모를 지닌 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김형경의 장편소설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에 나오는 한 인물은 인사동 거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남기고 있다. “시현은 인사동 거리를 걸으며 그곳이 바람 든 여염집 여편네 같다고 생각한다. 체면과 탐욕이, 명분과 실리가 적절히 섞여 있는 그 모습이, 과거와 현재가, 예술과 상호이, 그리고 온갖 딜레탕트적인 주변 예술이 뒤섞여 이제는 노쇠와 퇴락밖에 남지 않은 비만한 중년 부인을 닮아가고 있다.” 시현의 논평처럼 인사동 거리는 과거의 소박함을 잊고 변모 중이다. 여전히 주말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빼놓지 않고 찾아드는 명소이지만, 세월의 변화 앞에서 인사동 거리 또한 조금씩 표정을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인사동의 술집 중 빼놓지 말아야 할 곳으로 귀천^{歸天}을 들 수 있다. 이곳은 시인 천상병의 아내가 경영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 분점을 내어 인사동에는 두 군데의 귀천이 있다. 술과 담배, 친구를 좋아했던 천상병 시인은 결혼 후에도 생활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고, 부인 목순옥 여사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곳 인사동 골목에 작은 찻집을 열었다. 이후 카페 '귀천'은 예술인, 작가, 언론인, 지식인들이 찾는 작은 명소가 되었다. 카페 이름은 천상병 시인의 초기작이자 대표작 중 하나인 <귀천^{歸天}>의 제목을 붙인 것이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귀천〉

천상병은 생전에 이 카페를 소재로 한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카페’라는 제목의 그 시에서 “내 아내가 경영하는 카페/그 이름은 ‘귀천’이라 하고/않을 의자가 열다섯 석밖에 없는/세계에서도/제일 작은 카페//그런데도 하루에 손님이/평균 60여 명이 온다는/너무나 작은 카페//서울 인사동과 관훈동 접촉점에 있는/문화의 찻집이기도 하고/예술의 카페인 ‘귀천’에 복 있으라.”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



전통찻집 귀천

북촌과 남촌의 경계선, 청계천

조선시대 북촌과 남촌의 경계였던 청계천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민족의 거리’ 종로와 웨인들의 마을 혼마치[本町]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다. 이것은 곧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의 차별의 선이 되었다. 마을 이름에서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청계천 북쪽은 ‘동_洞’과 같은 전래의 마을 이름을 사용하였지만,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청계천 남쪽은 ‘혼마치’와 같은 일본식 지명을 사용하였다. 도로의 확장, 주요 시설물의 신축 등 도시의 기반 시설은 주로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청계천 이남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한 신문에는 “북부(청계천 북쪽) 일대에는 아직도 원시 시대의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 있지마는 본정[本町] 일대는 길에 밥이 떨어져도 주위 먹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였다.

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생계를 위하여 서울로 모여든 피란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변에 정착했다. 이들은 반은 땅 위에, 반은 물 위에 떠 있는 판잣집을 짓고 생활하였다. 천변을 따라 어지럽게 형성된 판자촌과 여기에서 쏟아내는 생활 하수로 청계천은 빠르게 오염되었다. 청계천은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나라의 가난하고 불결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슬럼 지역이었다. 위생 면에서나 도시 경관 면에서 청계천을 그대로 두고 서울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다.



1960년대 청계천변 판자촌

복개 이후 청계천은 도심 산업의 중심지로서 도로 양편으로 공구상, 조명 가게, 신발 상회, 의류 상가, 현책방, 벼룩시장 등 크고 작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복개도로 와 고가도로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대의 차량들이 지나다녔다. 복개 이후 청계천은 서울에서 가장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청계천 주변을 낙후시키고 서울의 이미지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었다.

집보다 빈 지게 위의 허공이 더 무거운 날
고난처럼 후미진 청계천 뒷길 따라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거기 춘심이네 집
마치 둑지처럼 아득한 불빛이 고여 있었지
막아선 담벼락엔 지게 서로 몸 포개 기대어 있었고
그 지게를 닦은 사람들, 노가리를 대가리째 씹으며
술청인 좁은 부엌에 서서 막걸리를 마실 때
춘심이는 부뚜막에 앉아 바느질을 하곤 했었지
잔술을 팔며, 찢겨지고 해진 막벌이꾼들의
작업복을 기워주고 있는 흰 솜털
보송송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연탄불
위의 노가리처럼 검게 타며 오그라들었고
빼 하나 남김없이 나를 씹어 먹고 싶어져 망연히
창밖을 바라보면 시커먼 매연의 하늘
가슴 가득 차오르는 어스름 속, 잔광이듯
그 티 없이 맑은 미소의 바늘이 한 올 한 올
허망과 알 수 없는 분노로 터진 자리를
밟아올 때마다 아무리 땀 흘려도 내 몸뚱이
하나도 채 적시지 못하는 나의 땀방울들이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되어 짓눌러와 나를 더욱
남루의 노가리로 여위게 하곤 했지

바깥은 찬 바람이 제 가고 싶은 데로 불고 있었고
담 밑의 지게들은 서로 온몸 오그려
추위를 견디고 있었지만 노상 비틀거리는 것은
가난의 양상한 형해形骸, 그림자뿐인
귀로, 아무리 같아도 자꾸만 돌아나는
쥐의 이빨처럼 취기가
하루의 빨뒤꿈치를 야금야금 깊고 있을 때
그 가녀린 풀씨 같은 손길이 여미준 작업복은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풀잎으로 떠올려주곤 했지
그래, 거리 곳곳에 피어오르는 모닥불로
관절염을 앓고 있던 청계천의 그해 겨울

김신용, 〈청계천 시편 3〉

노동자 시인으로 알려진 김신용의 시는 청계천 주변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게꾼으로 막노동을 하고, 하루의 피로를 청계천변의 허름한 술집에서 달래는 생활이 그것이다.

2003년 이후 청계천은 대대적인 복원 공사에 들어갔다. 복개한 청계천로와 삼일로 주변 5.84km 구간을 복원하고 총 22개의 다리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쉼터로 바꾸는 대대적인 공사였다.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조성된 무대에서 각종 문화 행사 등이 열리면서 청계천 주변은 문화공간, 예술공간으로 변화하였다. 광교갤러리와

청계창작스튜디오 같은 창작무대에서는 예술가들의 감성을 만날 수 있다. 주말에는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청계천이 복원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뒤따른다.

복원된 청계천을 다녀온 이의 말이 아니래도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게 된 놀라움을
신문이고 방송이고 정치인의 입이고
내 귓가에 전해주느라 여념이 없다

음험한 역사의 맨홀 뚜껑이 열리듯
수십 년 쌓여 빠진 냇물에 수억 톤의 햇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쏟아진다니
아무런 추억은 없지만 내게도 기쁜 일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비 오는 날이면
안양천이 여느 때보다 슬쩍 더러워지는 거짓이
상류 어딘가에 변함없이 웅크려 있다는 사실보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른다는 일이
더 큰 기만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기계의 힘을 빌려 한강 물을 끌어왔다는 기발함이
어디선가 지금도 돌고 있을 모터의 굉음이
대도시에 짓눌린 사람들의 탄성에 눈 녹듯 사라져버리는 현실이

어떤 이적異跡으로까지 보인다

황규관, 〈청계천에 관한 사변〉

황규관의 시는 복원된 청계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청계천에 흐르는 물은 자연을 되살려 흐르는 물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한강 물을 끌어와서 흘려보내는 물이다.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길들, 이를테면 안양천 같은 곳은 수량이 줄거나 비가 오면 천변이 더러워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출되지만, 인공 하천인 청계천은 1년 내내 변함없는 수량과 깨끗한 천변 풍경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말 그대로 부자연스럽다고 시인은 판단한 듯하다.



현재의 청계천 모습

2

동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서울의 동쪽 관문, 동대문

동대문은 서울의 사대문 중 하나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동대문의 정식 명칭은 흥인지문이다. 흥인지문은 한양 도성의 사대문과 사소문 가운데 정동^{正東}에 위치한 대문으로 일명 동대문으로 불리었다. 한양 도성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며, 조선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동대문에 위치한 동대문시장은 역사적으로는 종로 지역 재래시



홍인지문

장의 흐름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위치상으로 보면 홍인지문 일대부터 숭례문에 이르기까지 도심부에 긴 건물 무리를 형성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창선방·두모방·명철방 일대를 포함하였고, 현재 행정 구역으로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종로구와 중구로 나뉘며, 종로5가·종로6가·신당동·홍인동·광희동1가·광희동2가·방산동·쌍림동·을지로5가·을지로6가·을지로7가 일대를 포함하는 동네가 동대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일대에는 동대문신발상가·동대문종합상가·평화상가·신진상가·광장시장·방산시장의 건물들이 위치하여 서울의 소규모 가내공업과 도매 상가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가 되었다.

이 문이 열리면 조선의 동쪽이 열리고
이 문이 닫히면
조선의 동쪽 사람들은 이문동이나
신설동에 와 머물러야 했다
조선의 동쪽은
동대문의 문짝만큼만 했을까
소나 나귀도
사람이나 화물도
동대문 하나면 족했다, 조선의 동쪽은
이 문이 열리면 열리고
상감께 올리는 공물도
서울 시민 먹일 옥수수며 감자도
족히 들어왔다
어둠을 맞고 이 문이 닫히면
소도 나귀도 잠들고
들어올 사람도 짐도 문밖에서 잠들었다
잠든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이제
종로는 힘차게 달려오다 여기서 멎고
건널목도 지하로 숨어
사람들은 속삭이며 지하도 어디로 사라지는데
이 문은 닫혀 있다

버스도 사람도 문을 두고 돌아
돌아서 어디로 가고 있다
닫힌 것은 동대문만이 아니며
돌아가는 것은 자동차뿐만 아닌 것같이.

고운기, 〈동대문〉

고운기가 주목한 것은 동대문이 가지고 있는 서울의 동쪽 관문으로서의 성격이다. 조선의 동쪽, 경상도나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은 동대문이 열려야 서울로 들어갈 수 있었다. 동대문이 닫힌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하면 그들은 서울로 들어갈 수 없었고, 동대문 밖의 이문동이나 신설동에서 하루를 더 지내야 했다.



옛 동대문운동장 모습



오늘날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러나 근대 이후 언제부터인가 동대문은 서울의 동쪽 입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굳게 닫혀 있고, 사람들은 닫힌 문을 돌아 자유롭게 서울을 오간다.

동대문에는 한국 스포츠의 여가와 함께한 동대문운동장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육상 경기장, 야구 경기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대문운동장은 2007년에 폐장하였고, 이 자리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개장하였다. 2014년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라는 복합문화공간이 생겼다. DDP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패션쇼, 신제품 발표회, 포럼과 콘퍼런스를 개최해 오고 있다. 매우 독특한 외관으로 주목을 끄는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는 “이른 새벽부터 밤이 저물 때까지 쉴 새 없이 변화하는 동대문의 역동성에 주목해 곡선과 곡면, 사선과 사면으로 이뤄진 특유의 건축 언어로 자연물과 인공물이 이음매 없이 이어지는 공간을 만들어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동대문시장 일대는 서울의 어느 장소보다도 빠르게 변화했지만, 그 내부에는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그 무엇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것이 동대문시장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고, 서울의 문화 자산이다.

가도 가도 추억이 남는 거리, 왕십리

왕십리는 조선시대에 지리적으로 동대문 밖 성저십리에 자리잡은 곳으로 일찍부터 취락이 형성된 지역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전차 노선의 부설과 교외 지역의 성장 속에 공장 지대로 변모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지방민의 집단 이주와 더불어 서울 도심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가내공업 지대로 그 모습을 변형하며 역사적 층위를 형성해왔다.

이렇듯 서울의 형성과 성장의 역사를 적중하고 있는 왕십리는 뉴타운 개발로 인해 그 흔적들이 송두리째 사라졌다. 왕십리뉴타운



1980년대 왕십리 일대 모습

지역에는 왕십리의 시대적 지층을 상징하는 잔상이 많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동대문·광희문과 동남방 지역을 연결하던 교통로가 전차가 다니면서 난 왕십리길 아래 살아 있고, 뉴타운 지역 곳곳에 일제강점기 공장 건물이 자리를 지키며 당시의 역사를 응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광복 이후 농촌에서 이주해 도시를 구성한 지방 이주민들의 판잣집들과 1970년대 제조업의 성장 빌전을 상징하는 금형 제조업과 봉제 가공 공장이 곳곳에 남아 그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왕십리하면 떠오르는 시는 무엇보다 김소월의 〈왕십리〉일 것이다. 김소월은 그 시에서 특유의 비애감 어린 시어들로 “가도 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라고 노래했다. 김소월이 왕십리를 간명하지만



현재의 왕십리

비애감 어린 시어로 묘사한 이후 왕십리라는 지명에는 웬지 모를 슬픔이 어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시영은 그러한 왕십리에 대한 추억을 토로하고 있다.

왕십리 하면 야간 수업을 일찍 마치고 나와 왕소금을 뿌려가며 구워 먹던 좁은 시장통의 그 대창집이 생각난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면서 심야의 아스팔트 길을 가르며 나이가던 심 선생의 날렵한 오토바이 도. 그는 단축 수업을 너무도 좋아하는 Y고의 2부 주임. 4교시가 끝나 갈 무렵이면 수업시간표가 빼곡한 칠판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백묵을 들고 교감 선생에게 달려가 단축 수업을 권의하던 그의

그 생글거리던 소년 같은 얼굴이 떠오른다.

왕십리 하면 또 어둑한 교무실을 밝혀주던 따뜻한 배 선생이 생각난다. 늘 남의 숙제를 대신 해줄 것 같은, 웃을 때면 콧잔등에 잔주름이 많이 접히던 여자. 무슨 일인가로 면목동에 갔다가 허름한 여관에 들어 새우처럼 서로의 등을 오그리고 자던 통금의 밤이 생각난다. 이튿날 함께 결근을 하고 대낮의 긴 골목길을 걸었던가. 아, 또 생각난다. 수학 이 선생, 체육 오 선생이랑 여럿이서 알 수 없는 열기에 둘 떠 달려 갔던 남이섬의 겨울밤들. 얼어붙은 겨울 강에서 얼음을 지치면서 우리는 늑대처럼 울부짖었지.

왕십리. 어딘가에서 벼림받고 왔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보다 먼저 이마가 달아오르던 시절의 우리들의 거처. 밤새도록 헤매이고 이튿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업에 들어가곤 했지만 늘 별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 있지? 그러나 그때 우리 나이는 겨우 스물넷. 바람 부는 별판으로부터어서 떠나고 싶은.

이시영, 〈왕십리〉

이시영 시인은 왕십리에서 보낸 청년 시절을 되살리고 있다. 갓 부임한 교사였던 시절에 수업을 마치고 달려가던 대창집, 그곳에서 함께 어울리던 소년 같은 얼굴의 동료 교사들 얼굴을 하나하나 되

새기게 되는 장소가 왕십리이다. 성인이 되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청소년들 못지않게 미숙하고 마음속에 아직 피지 못한 꿈을 간직하고 있는 청년 교사들의 풋풋한 기억이 왕십리라는 장소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영원한 만물시장, 황학동

황학동이라고 하면 누구나 황학동 만물시장을 떠올릴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황학동 만물시장’은 청계천 7가와 8가 사이 영도교 남쪽 영역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전체와 흥인동 일부에 해당한다. 20세기 후반부 그곳에는 빨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그보다 훨씬 많은 중고품들이 침침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황학동 가운데 청계천 주변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 가로에는 시멘트와 아스팔트, 보도블록으로 깨끗하게 마무리된 도로와 산뜻하게 새로 지은 현대식 건물들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고 이곳의 시장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황학동 만물시장’은 청계천로와 성동공업고등학교 뒤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만물시장 영역이 축소되었고, 상인과 점포의 수도 줄었으며, 이곳을 찾는 인파는 그보다 훨씬 더 적어졌다. 거래되는 물품도 많이 줄어 ‘만물시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가 되었다.



황학동 벼룩시장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황학동' 또는 '황학동 만물시장'의 존재는 점점 사라져갈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황학동 안쪽 영역에서 각종 중고품을 파는 점포상들은 꾹꾹하게 자리를 지키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신기료 할아버지 땡볕 아래 혼자 앉아 계신다.

어휴, 저 많은 구두를 언제

서울 사람들이 신다 벼린 구두를 남산보다 높이 쌓아놓고

밑창을 갈고, 새 끈을 끼우고, 금단추를 달고, 무두절하고
아이구, 저 구두는 원래 달렸던 것이 이제 하나도 남아 있지 않구나.
행려병자의 시신이었나 해부하고 나니 국물밖에 없네
신기료 할아버지 새 구두를 만들어내고 있다.
거짓말 같다, 새 구두가 남산보다 높이 쌓여간다.

김혜순, 〈황학동 벼룩시장〉

김혜순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황학동을 유명하게 만든 황학동 벼룩시장의 신기료 할아버지의 모습이다. 신기료란 신을 길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신기료장수란 본래 정착하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 떠돌면서 사람들의 신을 길던 사람들이 신을 기우겠냐는 뜻으로 “신 기리오?” 하고 외치고 다니던 데서 나온 말이다. 황학동 시장의 신기료 할아버지는 시장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사람들의 신을 고친다. 그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신발들이 남산보다 높이 쌓여간다는 말은 그만큼 오랜 기간 한자리에서 신을 길고 살아온 할아버지의 오랜 이력에 대한 시인의 공감을 드러낸다.

그가 신발 고치는 데 사용하는 “십 년이 지난 모터”는 다 많아서 본래의 모습보다 녹이 더 많이 슬어 있지만, 시인은 할아버지의 기침에서 새로운 무쇠 모터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상상한다. 시인의 상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작업복 입은 청년이 ‘전자 뇌’를 만들어내고, 수건 쓴 아줌마들이 시멘트를 으깨어 부처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장면으로 전개되면서, 황학동 벼룩시장을 하나의 우주적인 세계로 확장해간다. 이 시가 조명한 황학동 벼룩시장의 창조적 활력은 과거의 것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참 동안 서울의 한자리에서 그 명맥을 이어갈 것이다.

햇살 빨라 맘 시린 날
황학동 간다
다 피먹어도 허기지던 조그만 솔이랑
아무것도 부쳐 먹을 것 없어 미안하던 빨간 프라이팬
칠 벗겨진 개다리소반 위
늙은 전기밥솥이 얼른 추억에 플러그를 꽂는다
거기 문간방 해가 떨어지기도 전
이불을 뒤집어쓰고 속삭이던 긴 실직기, 굽어도 좋았던……
너무도 끼워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알반지랑
호랑인지 개인지 분간도 안 가는
물 건너온 벽걸이

문득 소환당한 아무 날들이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이
변덕스런 2월 말의 가랑눈이 날린다

초로의 사내들, 자신보다 더 후줄근해 보이는
외투를 흥정하느라 목울대를 돋우고
누런 개 한 마리 경비반장처럼 다가와
살 거냐고 쳐다본다
황급히 옛 생각에서 빠져나오느라
추운 날 오줌 눈 듯 마음이 진저리친다
기억은 그대로인데
조금씩 늙고 지친 신발들이 모여서
접 백 고스톱 판을 벌이고
개평이나 뜯을까 하고 청계천 쪽에서 넘어온 바람이
어깨너머로 기웃거리는 황학동

진해령, 〈황학동〉

황학동에 가면 사람들은 늘 과거의 기억 속으로 소환당하게 마련인가 보다. 시인은 황학동에 가서 오래된 솔이나 프라이팬, 개다리소반 등을 보며 자신의 가난했던 날들의 추억 속으로 빠져든다. 추억을 음미하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황학동에는 2월 말의 가랑눈이 날리고 있다. 이곳은 짧음의 거리가 아니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후줄근한 외투를 흥정하는 초로의 사내들, 황학동에 몰려든 물건들만큼이나 조금씩 늙고 지친 모습의 이웃들 모습이다. 언제 든 황학동 거리로 가면, 여전히 추억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풍경

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다.

걸어가는 모든 마음들, 청량리

청량리와 이 주변 지역은 예로부터 도성 안 사람들이 도성 밖을 나갈 때 잠시 머물거나 거쳐가는 장소였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도성과 청량리를 잇는 전차가 놓였고, 그 궤도를 따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청량리 일대는 부도심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더불어 중앙선·경춘선 등 동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건설되면서 서울과 한반도 동부 지역을 잇는 교통 거점으로 부각되었



청량리종합시장 입구



경동시장 내부

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청과물과 영동 산지 지역에서 채집한 약재들을 거래하는 청량리시장·경동시장·약령시장 등의 시장이 발달하였다.

서울의 주요 역 주변이 흔히 그랬듯이, 청량리역 배후 지역에는 지방에서 상경한 상인들이나 동부 전선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을 호객하는 집창촌이 대규모로 형성되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588'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적도 있었다. 시인 허연은 〈청량리 황혼〉이라는 시에서 “시대극장 앞길/유난히 눈길이 자주 마주치던/조그만 창녀 애를 구해내는 꿈을 꾸다 잠이 깨던/제기동 자취방/눈이 많았던 겨울이었습니다”라고 자신의 학창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청량리역 일대

한편 일제강점기에 청량리 일대에는 경성제국대학 예과·경성농업전문학교·경성여자사범학교 등의 교육 시설과 청량리 정신병원 등의 의료 시설이 입지하고 있었다. 더불어 지난 100년 동안 청량리는 관사 주택, 부홍 주택, 도시 한옥 그리고 시민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도심 주변부의 근대 도시 주거지로 확장되어온 지역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인 1940년에 식민통치 30주년 기념행사로 청량리역 남쪽 철도 부지에서 조선대박람회가 열렸으며, 광복 이후 청량리역 광장을 중심으로 맘모스백화점·롯데백화점 등이 들어섰다. 2010년에 청량리 민자 역사가 준공되면서 청량리 일대의 도시 풍경이 크게 바뀌어, 서울 동부권의 새로운 소비문화 중심으로 부각

되고 있다.

그 무렵 경동 악령시를 걸어보면
아프지 않던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
다친 마음이 천천히 피어나며

어디서 귀뚜라미 울음이 들리고
파란 풀잎들의 피가 마르는 소리
목이 쉰 가을의 아름다운 전령들이
한 묶음의 병처럼 단을 이루고
청량리나 이문동 하늘 쪽으로
딸랑딸랑 서울의 강북을 데려가는
흰구름은 누군가의 마음 같아라

햇살이 끊어지고 다시 이어진다
면 상강 무렵 수척한 경동 악령시
걸어가는 모든 마음들, 온통 병이다

고형렬, 〈경동 악령시를 가면〉

청량리에는 전국적인 한약재의 집산지인 경동 악령시라고도
불리는 서울약령시가 있다. 서울약령시는 유통의 편리함 때문에



서울약령시 입구

1960년대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동대문구 제기동·용두동 일대 약 26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한의원·약국·한약국·한약방·한약재상 등 1,000여 개의 한약 관련 전문 업소가 모여 있는 시장이다. 시인은 경동 약령시를 거닐며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몸의 아픔들은 다친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시인은 그 마음에 아픔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살피며 감각을 집중한다. 병을 고치기 위해 모아놓은 온갖 약재들이 가득한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 귀뚜라미와 풀잎의 소리에 귀를 열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들을 살피는 것이 시인들의 걸음이다.

3

정동에서 홍대까지

기와 담장이 있는 풍경, 정동

조선 건국 4년 후인 1396년, 신덕왕후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태조는 죽은 왕비의 묘를 사대문 안에 들여놓게 한다. 당시 도성 안에 묘지를 쓰면 안 됐지만 태조는 무덤 공사를 강행한다. 신덕왕후의 묘는 ‘정릉’이라고 명명됐는데, 지금의 정동은 이 정릉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궁궐과 빈민 촌락이 뒤섞여 있던 정동이 또 한 번 바뀐 건 19세기 후반부터였다. 당시 세계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서구 열강들이



석조전

자신들의 공사관 등을 만들어 제국주의 정책으로 식민지 쟁탈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조선에서 그 거점으로 삼은 지역이 정동이었다. 정동에는 고종이 거닐었던 마지막 흔적이 남아 있는 덕수궁과, 단아한 단청과 단정한 목재들로 지어진 조선식 건물도 있고 서양식 이오니아와 로코코풍의 건축 기법이 들어간 서양식 건물도 있다. 가장 화려한 건물은 석조전이다. 고종의 계획하에 영국인 건축가 하딩이 설계한 석조전은 한국 최대의 서양식 건물이다. 건물 내부는 화려하게 코팅된 적갈색의 목재와 황금 도색이 된 고풍스러운 영국식 가구들, 순백의 천장이 낯설 만큼 아름답다.

미대사관과 덕수궁 사이길에 서울시립미술관이 있다. 1928년에



오늘날의 서울시립미술관 건물

지어진 이 건물은 당시 법원으로 쓰였다. 조선고등법원·경성복심법원·경성지방법원 등 세 법원이 입주하여 많은 조선인들이 치안유지법 등으로 재판받던 곳이다. 가정법원은 덕수궁 옆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자리에 있었다.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연인과 헤어진다는 말은 가정법원이 그곳에 있던 시절 나온 말이다.

얼마나 우쭐대며 다녔었나,
이 골목 정동 길을.
헤어진 교복을 입었지만
배움만이 나에겐 자랑이었다.

도서관 한구석 침침한 속에서
온종일 글을 읽다
돌아오는 황혼이면
무수한 피아노 소리,
피아노 소리 분수와 같이 눈부시더라.

그 무렵

나에겐 사랑하는 소녀 하나 없었건만
어딘가 내 아내 될 사람이 꼭 있을 것 같아
음악 소리에 젖는 가슴 위에
희망은 보름달처럼 둉긋이 떠올랐다.

그 후 20년

커여다란 노목이 서 있는 이 골목
고색창연한 긴 기와담은
먼지 속에 예대로인데
지난날의 소녀들은 어디로 갔을까,
오늘은 그 피아노 소리조차 들을 길 없구나.

장만영, 〈정동 골목〉

장만영은 정동 골목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커다란 고목이 있고 고색창연한 기와담이 있는 골목은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 좋

은 느낌을 주는 풍경이다. 그 골목을 지나며 학창 시절을 보낸 시인은 가난했던 그 시절,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점 자체를 행복하게 여겼던 듯하다.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이라 해도 청춘은 늘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기 마련이다. 20년이 지나 성인이 된 지금 돌아보는 그 골목길은 여전하지만, 자신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소녀들의 흔적은 정동 골목에 남아 있지 않다.

이화여고 앞길

나의 행방이 오랜만에 눈발 속에 들었구나
발길은 시정市政 밖으로 낮게 조아린 길들과 내연하며
꺾어진 한 길목의 꺾인 고백이 되어주고
주머니까지 흘러내린 가슴을
두 손은 꼭 쥔 채 놓을 수 없구나
덕수궁이, 자꾸 자기 그림자만 물끄러미 쳐다보지 마
자기自己야

단추 떨어져 열린 속도 품이라고
바람 든 눈송이들 기웃기웃 찾아들어
가슴을 헐값에 임대 놓고 싶구나
눈이 길을 막으면(제발 막아주었으면!)
내 죽음도 아무 테서고 일박一泊

맞닥뜨려야겠지

그래야겠지

장석남, 〈배호 5〉

장석남 시인은 정동의 눈으로 젖은 돌담길을 걸으며 덕수궁의 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의 발걸음은 쓸쓸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을 아직 간직하고 있어서, 바람 듣 눈송이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보금자리로 내어주고 싶은 따듯함을 드러내고 있다. 길을 걷는 자에게 길이 막힌다는 것은 죽음을 대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시인은 〈덕수궁 돌담길〉이란 노래를 불렀던 죽은 가수 배호를 떠올리며 자신의 죽음과 맞닥뜨리겠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덕수궁 돌담길



강변의 추억이 깃든 언덕, 마포와 아현동

전통적으로 아현_{阿峴}은 한강 변의 마포나루 터에서 서울 도성 내로 진입하는 육로에 위치한 작은 언덕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것을 중심으로 한 주변 일대를 통칭하는 지명이었다. 조선시대 아현은 도성 인근 안산 구릉의 고지대로서 인구가 집적되는 주거지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상업의 발전에 조응해 세곡과 상품의 유통 경로로 변성하면서 인근에 갓 시장과 유기전 등이 입지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현이 본격적으로 주거지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정책적으로 토막민을 집단 이주시킨 곳 중 하나가 바로 아현이었다. 이후 8·15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급속히 증가한 월남민과 이농민이 무허가촌을 이루었고, 1960년대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이 일대 언덕의 구석구석에 서민들의 빈한한 가옥이 빼곡히 들어차면서 소위 '산동네'의 전형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아현 뉴타운 일대는 행정동으로는 아현 2·3동·염리동·공덕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마포로·신촌로·서강로·대홍로 등 대로변으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지구 내에 부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되어 고밀도 아파트 단지가 산발적으로 입지해 있어 고지대 서민 주거지와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대로변에는



이현뉴타운 일대

업무용 빌딩과 주상복합 빌딩이 입지하고 있어 노후된 주택단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해마다 장마 때면 이곳은 홍수에 잠기고
지나간 물살에 깨인 산허리 드러낸 몸을 보면서
역사는 자란다 그 홍수 치른 여름 강가 태우는 땡볕
역사는 자란다 떠내려가는 흙탕물은 한없어
영영 성난 바다만 같아 보이고
움켜도 움켜도 움켜잡히지 않는 밭 아래 한줌의 흙

뿌리는 이대로 영영 이별만 같아 보이고
죽음같이 빨려 들어가고만 싶은 진흙창 속으로

김정환, 〈마포 강변 동네에서〉

김정환은 〈마포 강변 동네에서〉라는 시를 통해 장마철마다 홍수 피해를 입어 물에 잠기던 강변 동네 마포의 기억에 대해 말한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의 여름 강가의 진흙창 속으로 잠겨가던 이별의 기억이 있고, 그 안에서 시인은 “아지 못할 고통이 주는 삶의 침듯을” 되새긴다. 그것이 “가난하고 피난 내려온 사람들의 판잣집 만 들어선” 마포 강변 동네의 삶이다.

마포 새우젓 동네의 마지막 보루였던
옛 우체국이 간밤 통째로 사라졌다.
'철거 중' 헷갈 러나 없이
누구는 공중 부양된 것을 보았다 하고
누구는 땅속 깊이 주저앉아버렸다고 한다.
사방 빙벽처럼 둘러서 있는 초고층 유리벽 건물들 사이
반딧불이같이, 희미한 등대같이
한밤중까지 불빛 깜박이던 납작 집 한 채.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노향림, 〈마포우체국〉

마포 또한 서울 전역에 불어닥친 재개발 열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노향립 시인은 〈마포우체국〉에서 마포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우체국 건물이 통째로 사라진 상황을 목격한다. 그곳은 자신이 처음 낸 시집을 소중히 안아 들고, 하나하나 육필로 쓴 봉투에 담아 지인들에게 보냈던 기억이 있는 곳이다. 그 기억의 장소는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퇴적층처럼 쌓인 잔해 속에 다만 깨진 화분 하나”만이 남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들, 북아현동

북아현동은 서울의 서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시청, 광화문 등의 도심과 매우 밀접한 주거지를 형성한 동네이다. 북아현은 일반적인 단독, 다가구, 빌라, 다세대 주택과 고지대에 노후화된 간이 주택 형태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신촌로와 북아현길을 중심으로 재래시장과 가구 시장, 각종 음식점, 슈퍼마켓,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상가들이 늘어서 있으며 이화여대 방향으로는 웨딩숍이 분포되어 있다. 신촌로를 기준으로 마포구 아현동과 마주 보고 있으며 안산 자락을 사이에 두고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인접해 있다. 이 안산의 지맥에 의해 형성된 동서 양축의 고지대와 북아현길 주변의 평지가 혼성되어 있어 지형의 고저 차가 심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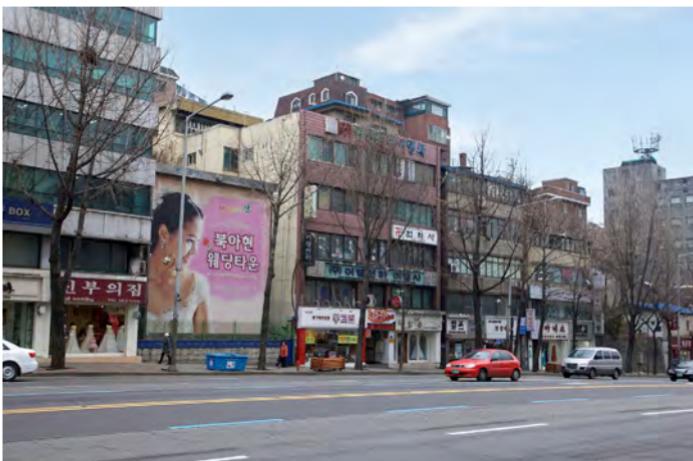
박소란은 〈아현동 블루스〉에서 웨딩숍이 즐비한 아현동에 관한 기억을 풀어내고 있다.

부랑의 어둠이 비틀대고 있네 텅 빈 아현동
넋 나간 꼴로 군데군데 임대 땡지를 내붙인 웨딩타운을 지날 때
쇼윈도우에 걸린 웨딩드레스 한 벌 훔쳐 입고 싶네
천장지구 오천련처럼 90년대식 비련의 신부가 되어
굴레방다리 저 늙고 어진
외팔이 목수에게 시집이라도 간다면 소꿉질 같은 살림살이라도 차린
다면
그럴 수 있다면 행복하겠네
신랑이 어줍은 몸짓으로 밤낮 스으윽사악 스으윽사악
토막 난 나무를 다듬어 작은 밥상 하나를 지어내면
나는 그 곁에 앉아 조용히 시를 쓰리 아아 아현동,으로 시작되는
주린 구절을 고치고 또 고치며 잠이 들겠지
파지처럼 구겨진 판잣집 지붕 아래
진종일 품삯으로 거둔 톱밥이 양식으로 내려 밥상을 채울 것이네
날마다 우리는 하얀 고봉밥에 배부를 것이네
아아 그러나 나는 비련의 신부, 비련의
아현동을 결코 시 쓸 수 없지 외팔의 뒤틀린 손가락이
식은 밥상 하나 온전히 차려낼 수 없는 것처럼

이 동네를 아는 누구라도 끝내 행복할 수는 없겠네
영혼결혼식 같은 쓸쓸해서 더욱 찬란한 웨딩드레스 한 벌
쇼윈도우에 우두커니 걸려 있고 그 훌러간 시간의 언저리
도시를 떠나지 못한 혼령처럼 서 있네 나는

박소란, 〈아현동 블루스〉

시의 화자는 웨딩숍 거리를 지나며 자신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비련의 신부가 되는 장면을 상상한다. 그 기억은 영화 〈천장지구〉 같은 1990년대식 홍콩영화를 경유한 상상력이다. 그 안에서 화자는 외팔이 목수의 신부가 되어, 밤이면 아현동으로 시작되는 시를 쓸 것이다.



아현동 웨딩타운

오늘은 아현동 산동네에 갔다

오래전 월세 들어 살던 방, 더듬이가 긴 곤충들이 출몰하던 방, 연탄불을 넣던 방, 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울먹이던 방, 외롭던 방, 고맙던 방, 아주아주 춥던 방,

그 시절 내 마음에 전세 들어 살던 첫 애인을 생각하는 밤, 나의 아름다운 남동생의 흐려진 얼굴빛을 걱정하는 밤, 고단한 토끼에게 아무 약효도 없는 안약을 건네던 밤, 가난한 추억과 합체하던 밤,

안현미, <post - 아현동>

웨딩숍과 가구 거리가 있는 대로변과는 달리 북아현동 깊숙이 들어가면 안산의 고지대에 자리 잡은 산동네의 정경이 펼쳐진다. 안현미가 들려주는 것은 아현동 산동네에 오래전 세 들어 살던 시절의 기억이다.

청춘은 오래 그곳에 머물러 있거라, 신촌

신촌은 조선시대에는 도성 밖 성저십리에 속한 한적한 농촌 지역이었다. 1918년 연희전문학교의 새 캠퍼스가 조성되고 1920년 경

의선 신촌역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동네 신촌이 시작되었다. 이어 1935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도 이전하였으며 1936년 경성부 행정 구역의 확장으로 신촌이 경성부에 편입되었다. 이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재 신촌의 도시 기반 시설이 조성되었다.

광복 이후 신촌은 학생들과 지방에서 상경한 서민들이 몰려들었고, 교통로 발달 및 지하철 2호선의 영향으로 서울의 부도심으로 급부상하였다. 특히 1970~1990년대에는 문화예술가들의 아지트이자 사회운동가들의 집결지로서 신촌은 새로운 문화의 유입 통로이자 중심으로서 전성기를 구가한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상



신촌로터리 일대

권의 대형화로 기존 도시 조직이 지워지고, 한편으로 대학문화가
위축되면서 이 지역은 위기를 맞고 있다.

목에 오만도 초라함도 아닌 목걸이 건
잠자리들이,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앞에,
날고 있다
잠을 자며,
반짝반짝하는 것은,
햇빛과 상품과 하늘과 그레이스백화점과
건너편 아래서 신호등 기다리며
쳐다보는 눈과
잠자리들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
물방울 같은 황금 나락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꿈과 반짝이는 것은,
그레이스백화점 가을 오후 햇살 사이
목이 좀 무거운
금목걸이,
털그려 부딪치는, 꿈이 잠자며 날고 있다

고형렬,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햇살 같은〉

고형렬 시인은 한때 번성했던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앞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주목한다. 그들은 반짝이는 목걸이들을 목에 건 잠자리들처럼 신촌의 거리에 모여들고 있다. 그 물방울 같은, 황금의 나락과도 같은 사람들의 꿈은 신촌의 그레이스백화점 앞에 내리비치는 오후의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다.

나무 의자 밑에는 벼려진 책들이 가득하였다
온백양의 숲은 깊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는 나뭇잎조차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 아름다운 숲에 이르면 청년들은 각오한 듯
눈을 감고 지나갔다, 둘층계 위에서
나는 플라톤을 읽었다, 그때마다 총성이 울렸다
목련 철이 오면 친구들은 감옥과 군대로 흘어졌고
시를 쓰던 후배는 자신이 기관원이라고 털어놓았다
존경하는 교수가 있었으나 그분은 원체 말이 없었다
몇 번의 겨울이 지나자 나는 외톨이가 되었다
그리고 졸업이었다, 대학을 떠나기가 두려웠다

기형도, 〈대학 시절〉

기형도는 신촌의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시인이다. 그는 〈대학 시절〉이라는 시에서 신촌에서 보낸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연세대학



연세대학교 전경

교 교정의 은백양 숲의 그 아름다움은, 나뭇잎조차 무기로 사용되고, 총성이 울리는 시대의 분위기와 공명하여 더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오늘날의 신촌은 여전히 대학생들의 거리이고 청춘의 거리이지만, 상권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전과 같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서울의 첨단과 유행의 장소, 홍대

홍대 앞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영향으로 펼쳐진 실험적 독립

문화와 대규모 자본이 결합한 소비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이다. 홍대 앞은 양화진 부근에 건설된 당인리 화력발전소로 무연탄을 운반하는 당인선 철길을 따라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지역이다. 광복 이후 서교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 제2한강교 건설 등을 통해 주거지가 조성되는 등 현재의 도로망과 공간적 구조가 확립되었다. 1955년 홍익대학교의 이전으로 홍대 앞은 대학가를 이루었고, 미술대학의 성장으로 1970년대부터 미대생들의 작업실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장소성이 만들어졌다. 거리에는 예술적 분위기가 넘쳐 났고 독창적이며 다양한 문화 실험들이 시도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고급 카페 문화 지역, 1990년대 중후반부터



홍대거리 버스킹

는 클럽 문화 지역, 2000년대 이후에는 한류를 대표하는 관광 지역 등으로 홍대 앞은 계속 변화해왔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의 유입과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및 2010년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의 개통 등으로 유동인구의 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상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홍대 앞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은 현대 서울이 겪어왔던 상업적·문화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홍대 앞 해장국 콜목 공동 화장실에서 보스톤 백을 든 남자가 섹시 잔
다르크 룩의 여자에게
키스를 한다

아니, 숫제 빨아 먹고 있다, 서로
모드 룩의 남자와 초미니스커트의 여자
울고, 싸우고, 토하고, 집에 가기 싫다고 소리치는
펑크 소녀의 달콤한 과일 향과
업고, 두드리고, 맞고, 달래는
힙합 소년의 휴고 보스 향수 냄새
패션은 육체다 - 몸 밖으로 불거져 나온 남근처럼
육체를 외연한다

주차장 골목에서 당인리발전소까지 - 지하에서 올려 나오는,

오르페우스의 쓰리 코드

〈Bela Lugosi's Dead〉

프랑켄슈타인의 신부 같은 팜프파탈풍의 여자가

에쎄 담배를 손가락에 걸고

문자를 날리고 있는 놀이터

혐오와 승배는 한 끗 차이다

(나는, 내가 이미 죽도록 사랑했던 여자 사랑했던 겨울)

자폐적인 슈게이징-음악을 먹어, 음악을 먹어, 저들이 너의

음악을 듣지 못하게

혼다 CBR 600이 질주하는 극동방송국 앞

에스닉 모드의 여자가 라운지 음악에 기댄 채

더러운 화장실을 가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서로

함성호, 〈홍대 앞 금요일〉

홍대 앞은 언젠가부터 젊은이들의 첨단 유행을 대표하는 거리가 되었다. 홍대 일대를 클럽 밴드들이 장악하면서 한국 언더그라운

드 음악인들의 성지로 자리 잡았고, 청년들이 그 클럽들로 모여들면서 서울에서 가장 힙한 거리가 되었다. 이른바 '불금'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전부터 홍대 앞의 금요일은 평크 소녀와 힙합 소년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온갖 패션의 외장으로 감싼 채 몰려드는 풍경을 연출했다.

홍대앞은 이후 빠르게 변해 갔다. 홍대 문화를 이끌던 예술가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건물들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등 홍대는 새로운 상업 문화가 자리 잡은 거리로 변모하였다.

홍대상업지구



4

남산 주변의 마을들

먹빛 꽃잎이 떨어지는, 필동

필동이라는 동명의 유래는 조선시대 이 마을에 남부의 부청이 있어 ‘부동_{部洞}’으로 부르다 와전되어 ‘붓골’로 바뀌었고, 이 ‘붓골’을 한자로 표기해 ‘필동’이 되었다고 한다. 필동의 골목 곳곳에는 군사 독재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 1970년대 계엄군을 지휘하던 수도경비사령부가 있던 곳이 필동이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남산골 한옥 마을이 들어와, 필동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필

동의 골목에는 인쇄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해서, 오해로부터 시작된 필동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인쇄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남산 끝자락에 갈필을 흉내 낸 골목들이 있었다 사라지는 먹향을 쫓는 사람처럼 나는 하숙집에 들곤 했다 저체중으로 출산된 산새들이 종종 하숙집 뒷마당에 나타나고 새들의 밥 먹는 소리가 나는 좋았다 음계에 대해 들 허기졌지만 하숙집엔 울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남자의 노래가 있고 곡이 없는 새들은 그냥 따라 울곤 했다 주인집 남자는 오늘도 늦다 걸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업혀 오는 혼잣말을 듣고 있으면 분노란 꼭 누구를 겨냥한 것은 아닌 것도 같았다 하숙이란 남산 아래 잔다는 뜻이었고 몸이란 흡집은 언제나 바닥 잠을 잔다고도 했다 야 경뿐인 밤은 흐린 먹선으로 그린 일용공의 손금을 배 위에 올려주었다 손금 밖을 나가지 않는 갈필이었다

하숙집을 떠나는 날 비 오는 필동은 먹빛 꽃잎을 토하듯 흙탕물이 넘쳤다

정든 방황이 없다면 하숙할 곳이 없었을 것이다 제일로 길 안쪽이었다

황학주, 〈필동〉

황학주 시인의 시는 남산 자락에 위치한 필동에서 보낸 한 시절을 회고하고 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필동의 기



남산골한옥마을

역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자연물인 새의 울음 보다 더 깊은 울음이 하숙집 남자의 분노와 일용공의 손금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느낌을 시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그곳에 당신이 있을 것 같은, 명동

명동의 본격적인 변화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다.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가로이자 문화와 위락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6·25전쟁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전후 복구 과정에서 금융, 문화, 상업, 위락 등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면서 명동은 서울



1960년대 명동거리

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개발 시대 명동은 서구의 유행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유행에 민감한 양장점과 양복점, 양화점, 미장원 등이 밀집하기 시작했고, 최신 유행을 이끄는 대표적인 소비 공간으로 발전했다.

1970년대 강남과 여의도 개발에 따른 주요 기능의 이탈과 1980년대 명동성당 주변의 시위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명동은 잠시 쇠퇴기를 겪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업가로로서의 지위와 변하지 않는 상징성으로 계속 진화해왔다. 특히 과거 명동의 문을 열었던 외국인이 주된 소비 계층으로 급부상하면서 명동은

다시금 특별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오늘날 명동의 모습을 다시 변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명동 입구, 하고도 맑은 대낮

옛날 옛적에 박새가 날며

또는 굴뚝새가 날며 혼들어놓았을 나뭇가지 두어 개

아직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혼들리고 있는

그 길로

들리지 않는 비비새나 두어새 소리 사이의 길로

지리산 화엄사의

그 불이문不二門을

그 둘이 아닌 문을

멈추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덜컥 덜컥

사람들이 들어가듯

겁없이, 턱없이, 길없이

명동이 무슨 산의 문인지나 아는지

사람들이

오규원, 〈명동 1〉



명동밀리오레 전경

오규원은 명동의 밝은 대낮에 지리산 화엄사의 불이문을 떠올린다. 불이문不二門이란 사찰로 들어가며 통과해야 하는 세 개의 문 중 마지막 문을 지칭하는 말로, 여기를 지나면 금당金堂이 바로 보이는 자리에 세운 문이다. ‘불이’는 본래 진리는 둘이 아님을 뜻하는 말로, 불이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불佛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문이다. 둘이 아닌 문, 지리산 화엄사의 불이문을 사람들이 주저 없이 들어가듯이, 명동 입구로 사람들이 들고 나고 있다. 본래 명동은 서울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 중 하나이고, 사람들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명동을 찾

거나,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도심의 중심에 있기에 그곳을 찾아 쇼핑을 하거나 거리 구경을 한다. 그 명동 입구에서 사람들이 그 장소를 드나드는 모습을 시인은 진리를 위해 사찰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

그곳에 내가 있을 것 같은
그곳에 꼭 당신이 있을 것 같은 명동에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눈이 내리지 않는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성당의 종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때 그 골목
우리가 있을 것 같은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홀로 눈물짓고 있다면
그 사람만을 위해 명동 거리를 거닐어야 한다
목마와 숙녀가 지나가고 세월이 가고
숨 막히던 최루탄이 다시 쏟아진다 해도
지금은 없는 우리를 고요히 불러내어
칼국수를 먹고 은성다방 커피를 마시고
죽은 시와 시인과 어깨동무하고 목청껏
통기타를 두드려야 한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곳에 내가 있고 그곳에 꼭 당신이 머무는 명동에는
그때처럼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햇빛이 출렁인다
눈사람이 고구마를 굽는다
당신의 목소리가 종소리로 찾아온다

박정원, 〈명동에서〉



명동성당

명동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성당인 명동성당이 있고, 1950년대 서울의 모던과 낭만을 노래했던 박인환 시인의 시가 있고, 저 불의 시대에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모여들던 민주화 운동의 열망과 그들을 향해 날아가던 최루탄이 있다. 박정원의 시 〈명동에서〉는 그러한 명동의 기억과 현재의 명동을 노래하고 있다.

색이 다른 거리의 장소성, 이태원

이태원은 ‘서울 속의 외국’ 혹은 ‘서울의 이방인동’이라 불리며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이색적이고 독특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러한 서울 속의 예외적인 외국 문화 지대로서 이태원의 공간 성격은 1990년대 이후 더욱 다채로워지는 변화를 보였다.

6·25전쟁을 거치면서 용산에 들어선 미군 기지의 영향을 받으며 미국적 색채를 강하게 띠던 이태원이 1990년대 미군의 지속적 감축으로 비어가던 자리를 제3세계 이주 노동자들이 메우며 다국적, 다인종의 외래문화가 모이는 공간으로 탈바꿈해간 것이다. 여기에 한국 내 해외 문화 요소를 소비하려는 한국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태원은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가 찾는 서울 중심부의 특별한 영역으로 인식되는 공간성의 확대를 보이고 있다.

이슬람 사원 첨탑에는
낮에도 초승달이 빛나지
간판 불빛들이 술 취해 잠든 아침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한 무리 양처럼 사원으로 들어가고 나면
나는 막 짹을 틔운 화분에
지난밤 떨어진 벌을 갈아 뿌리지
하수구에 처박혀 있을
지독한 사랑에 무심해지기 위해
사원의 초승달을 잠시 가져와
날을 갈고 또 갈지
간혹 푸른 눈 가진 여인의 언어처럼
알아듣지 못했던 너의 말들
언제고 내 뿌리에 닿아
생장점을 자극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썩지 않고 나 버틸 수 있을까
온몸에 잎마름병이 퍼지고 있는
이태원의 날들, 물을 마셔도
목마른 목마른 날들

길상호, 〈이태원에 산다〉



이슬람 서울중앙성원

〈이태원에 산다〉에서 길상호는 이태원의 적막을 응시하고 있다. 다인종, 다문화의 시끌벅적한 동네로 이태원을 떠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선 풍경이다. 이태원의 한 쪐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다. 행정 구역상으로 서울시 한남동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의 정식 명칭은 서울중앙성원으로, 이태원을 찾는 사람들이 이국적인 풍경의 하나로 방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시인은 이슬람 사원의 첨탑에 달려 있는 초승달을 모티브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안에는 낯선 언어를 쓰는 외국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서로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랑의 기억이 있고, 그 기억으로 상처 입은

시인의 내면이 있다. 사랑의 상처를 떠올리는 그날들의 기억은 이 태원이라는 장소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듯하다.

내 음성은 거리에서 뭉개졌다. 외국인이 많은 번화가에서 당신은 나를
버려두고 떠났다. 나는 색이 다른 인간이 무섭다. 도사견보다, 삶보다,
증기 기관차보다. 나를 부르는 낯선 목소리보다 더.

도처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른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기를 바라
며 걸음의 불륨을 높인다. 두 발로 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폭으로 다
른 사람인 척해본다. 뒤크치를 들어 당신의 뒷모습을 찾는다.

동물이나 산업보다 무서운 인간의 직립, 걸어 떠난 당신은 지금 지구
바깥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의 공포는 설명되지 않는다.
나는 번화가의 가나 사람을 껴안는다. 최초의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비
롯되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우리는 최대한의 보폭으로 살아왔고 여기
에 이르렀다.

나는 색이 다른 사람이 된다. 소리 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세로 여럿
이 한꺼번에 고개를 돌린다. 나는 그들이 싫다 나보다도 더.

서효인, 〈이태원〉



이태원 거리

서효인의 시는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장소 정체성에 맞게 다른 인종들과 만나는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색이 다른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그들이 언제든 뒤에서 자신을 호명할 것 같은 거리, 그곳이 이태원이다. 이태원 번화가에서 그는 결국 '색이 다른 인간'인 가나 사람과 포옹하고, 자신 또한 색이 다른 인간의 하나임을 발견한다.

5

사당동에서 여의도까지

되돌아가다 마주친 얼굴들, 사당동

사당동은 옛날 큰 사당이 있던 마을인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삼국시대에는 이곳에 커다란 도요지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부터 경기도 과천의 일부였고, 서울의 확장으로 1963년에 뒤늦게 서울에 속하게 된 지역이다. 사당동이 서울에 편입된 직후 한강 이북의 서울시 철거민들이 이주하여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언론은 사당동에 이주한 철거민들이 사는 곳을 사당동 철

거민촌, 사당동 정착촌, 사당동 철거민 정착지 등으로 불렀다.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냈을까

김혜순, 〈별을 굽다〉



예전 사당역 인근 모습

사당동에는 2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 있다. 시인은 사당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다가 마주친 사람들의 얼굴이 지하의 불가마에서 빛어낸 붉은 흙의 가면 같다고 느낀다. 시인은 사당동에 커다란 도요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떠올린 것일까. 그 가마에서 빛어낸 듯한 무표정한 얼굴들은 제각기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밀물져가게 하는 힘”을 숨기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 저마다 피로한 삶의 한순간을 견디며 묵묵히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몸속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고 저마다의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라고 시인은 노래한다.

1992년 늦가을 저녁

이제 아무도 지는 해를 보지 않는다.
베란다 아래는 사당동 모^某 아파트 주차장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바람 소리.

베란다에 시퍼렇게 살아 있는 벤자민 나무.
다들 시들할 때 잘도 버티는구나.
속내의 바람으로 슬쩍 안아본다.
인간의 체온을 재확인할 뿐.
사당동 모 아파트 주차장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바람 소리.

베란다 공간에 꾸부정한 한 획劃 인간.

황동규, 〈풍장風莽 47〉

황동규는 〈풍장〉이라는 제목을 붙인 연작시의 47편에서 '사당동 모 아파트 주차장'의 바람 소리를 홀로 듣고 있다. 그의 주목을 끄는 것은 베란다에 살고 있는 한 그루 벤자민 나무이다.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나무들이 다 시들할 때 홀로 잘 버티고 있는 벤자민 나무에게 화자는 남다른 애착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그가 이렇게 벤자민 나무에 애착을 느끼는 이유는 이 시의 마지막 행에서 드러난다. 자기 자신이 베란다에 나와 있는 꾸부정한 획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이 들고 꾸부정해가는 삶의 외로움과 힘겨움에 대한 자각은 살아가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특별한 감정을 갖게 해주고 있다.

하늘에 제일 가까운 동네, 신림동

관악구 대학동은 신림9동의 변경된 행정동명이다. 신림9동을 포함한 신림동 일대에는 1960년대 서울 도심의 재개발 사업에서 밀



신림동 고시촌

려난 철거민들이 터를 잡기 전까지 서원말·복은말·난곡마을·자하마을 등의 집성촌이 분포하였다.

대학동은 1980년대 사법고시 합격자를 다수 배출한 하숙촌을 기반으로 고시촌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고시생 관련 생업에 종사해온 대학동 주민의 생계는 물론 대학동의 지역적 특색을 갖춘 문화 시설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미 2000년을 전후하여 이념 지향의 대학 문화가 쇠퇴하면서 대학동의 몇몇 사회과학 서점이 문을 닫았고, 1980~1990년대식 카페는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또 1990년대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고시전문학원은 공무원시험전문학원 등으

로 업종이 변경되면서 현대적인 시설물로 개축되었다.

이제 '신림동 고시촌'은 과거의 가난한 고시촌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 더불어 고시촌을 빠져나간 상당수의 고시 준비생의 빈 자리는 20~30대 청년과 직장인, 신혼부부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처럼 1970~1990년대 한국의 사회문화적 지형에 의해 구축된 대학동의 시공간은 2000년대 이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1

부엌 지붕 새로 스며든 빗물이 판자 를 휘어놓았다 식기들이 비스듬히 걸터앉아 아침 햇살에 이 빠진 웃음을 웃는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식구를 계산하는 그릇들도 이 집 식솔들이다.

2

지나는 곳마다 고개턱이어서 길들도 한숨을 부려놓는 곳, 그 길을 091021-2023527 김복례 할머니가 오른다 마을의 수도꼭지들이 할머니를 따라 첫물을 쿨럭거린다 소리의 음계를 밟으며 할머니 길을 오르신다.

3

이곳에 시멘트 끝이 열기설기 솟았을 때 김복례 할머니가 왔다 고려 때도 고려장은 없었다는데 자식들은 끈 떨어진 구슬들처럼 흘어졌다, 아니 구슬이 끈을 놓아버린 것이다 저녁마다 할머니는 방바닥에 대고 걸레 잡은 손을 휘휘 젓는다 아무도 못 보게 손사래를 치는 것이다.

4

산 아래는 지금 영구 임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포클레인은 술 취한 애비를 닦았다 마구 가산家産을 부수어놓는다 레미콘이 임신한 여인네처럼 뒤뚱거리며 뒤를 따라온다 흙발로 여기저기 쿵쾅거리며 뛰어 다니는 트럭들…… 시끄러운 이웃이다.

5

바람만 바람만 따라오던 낸출 가로등 돌아가고 건너편 산등성이 불빛들도 까무룩 조는 초여름 저녁, 김복례 할머니 형광등 값을 아끼려 일찍 자리에 듦다 별씨 눕느냐고 칭얼대며 은초롱꽃들이 등을 켜들고 슬레이트 처마 아래를 들여다본다

6

아채나 생선 차도 이곳엔 들르지 않는다 해서 이곳엔 기다림이 없다 그저 마른 방구들 풀썩이며 노는 먼지들뿐이다 그 위로 햇살이 부서진다 하늘에 제일 가까운 곳에 세워진 빛의 고딕 성당 서울시 신림동 산 77번지, 거기에 김복례 할머니가 산다.

권혁웅, 〈서울시 신림동 산 77번지의 하루〉

권혁웅의 시 〈서울시 신림동 산 77번지의 하루〉는 신림동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듯한 김복례 할머니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신림동 산동네의 판자촌, 지나가는 곳마다 고개턱인 그 동네에 김복례 할머니가 살고 있다. 이곳이 처음 시멘트 숲이 솟기 시작했을

때 신림동에 자리 잡은 김복례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끈 떨어진 구슬처럼 흩어진 후에도 신림동 산동네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살고 있다. 야채나 생선을 파는 트럭조차 좁은 길을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자식들도 찾지 않는 동네, 하늘 제일 가까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김복례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신림동이라는 오래된 동네를 제일 잘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두운 골목의 사람들, 영등포

영등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영등일(靈燈日 음력 2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지금의 여의도 샛강 변에서 성행하였던 영등굿에서 한자가 변형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등 永燈’과 물가에 있는 마을을 뜻하는 ‘포浦’가 합쳐져 유래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또 다른 견해는, 지금의 영등포역 주변으로 추측되는 소머리재(牛頭嶺)와 관련하여 《여지도서(輿地圖書)》의 “멀리 동쪽으로 왕성을 바라볼 수 있어 궁궐을 사모하는 사람 의례 이곳에 오른다.”라는 기록에서 추측건대 영등포(永燈浦)가 되었다는 견해이다.

영등포구는 1963년 서울시 행정구역 확장편입을 계기로 영등포구 관내에 신동·관악·오류·양동·양서 5개 출장소를 두었다. 또한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신규 편입된 지금의 서초동·사당동·봉천동·

공항동·목동·개봉동·시흥동까지 관할하였다. 영등포는 서울의 커다란 구의 명칭으로 다양한 동네를 포함하고 있으나, 보통 영등포라고 부를 때에는 영등포역이 있는 주변을 의미한다.

영등포역 골목에 비 내린다

노란 우산을 쓰고

잠시 쉬었다 가라고 옷자락을 불드는

늙은 창녀의 등 뒤에도 비가 내린다

행려병자를 위한 요셉병원 앞에는

끝끝내 인생을 술에 바친 사내들이 모여

또 술을 마시고

비 온 뒤 기어 나온 달팽이들처럼

언제 밟혀 죽을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기어 다닌다

영등포여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고

병든 쓰레기통은 뒤지지 말아야 한다

검은 쓰레기 봉지 속으로 기어 들어가

홀로 웅크리고 울지 말아야 한다

오늘 밤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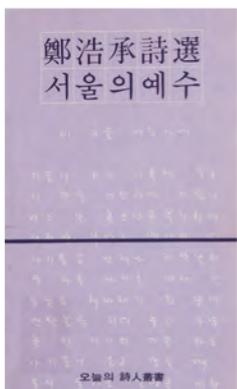
저 백열등 불빛이 다정한 식당 한구석에서

나와 함께 가정식 백반을 들지 않겠느냐

혼자 있을수록 혼자 되는 것보다
혼자 있을수록 함께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마음에 꽂힌 칼 한 자루보다
마음에 꽂힌 꽂 한 송이가 더 아파서
잠이 오지 않는다
도대체 예수는 어디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가
영등포에는 왜 기차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가

정호승, 〈영등포가 있는 골목〉

영등포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부도심지의 역사이고, 흔히 그렇듯이 역사 주변에는 사창가가 있었다. 이는 1970년 이전에 영등포에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지대가 몰린 결과라고 한다. 정호승은 영등포역 골목에 있던 서울의 대표적인 사창가를 시에서 재현하고 있다. 또한 행려병자들을 위해 설립된 요셉병원 앞에 모여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친구들, 가족들과 결별하고 홀로 어두운 골목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따듯한 밥 한 끼 대접



정호승 시집 『서울의 예수』



현재의 영등포역

하여 같이 먹고자 하는 마음은 당대 대표적인 서울의 빈민가였던 영등포 골목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강이 우는 정경, 여의도

여의도 汝矣島는 서울의 한강에 위치한 대표적인 섬이다. 너섬이라고도 부르며, 행정 구역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국회의사당 전경

속한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북부 연희방 소속이었으며, 1914년 울도와 함께 고양군 용강면 여율리로 개편되었다. 1936년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여의도정으로 바뀌었고, 광복 이후인 1946년 여의도동이 되었다.

여의도에는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비행장이 건립되어 광복 후에도 여의도공항으로 쓰였고, 1971년까지 공군 기지로 사용되었다.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정치지구, KBS를 위시한 방송업무지구, 금융 산업이 밀집해 있는 금융업무지구, 아파트로 이루어진 주거지구,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 여의도공원과 한강시민공원으로 이루-

어진 대규모 녹지지구가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에는 〈한강개발 3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국회의사당이 들어서면서 변화를 맞이했으며, 1980년대에는 63빌딩이 지어지고 한강에는 유람선이 다니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고층 빌딩과 방송국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다.

가물거리는 정신의 한 끝을 헤집고 나와
다시 다른 한 끝에서 침몰하기 위하여
원효대교, 그 허상의 다리를 넘어
섬으로 진입하는 사람들.

여의도증권타운



유해 색소의 헛빛에 조금씩 들끓으며
발효하기 시작하는 거대한 반죽 냉어리.

- 여의도는 거룩한 천상의 빵

(중략)

지렁이들도 꾸물꾸물 꿈을 꾸기 시작하고
네온사인의 젖은 미소 피어오르고
지하의 사자들도 감겼던 눈을
일제히 치켜뜨고 지상을 응시하는,
거두절미하고, 밤이 온다.
반신불수의 밤, 그러나 영혼불멸의 밤

최승자, 〈여의도 광시곡〉

최승자의 시는 여의도라는 섬의 변천 과정을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원효대교를 건너 여의도로 모여드는 사람들이란, 여의도가 너섬이라고 불리던 시절부터 금융과 정치의 중심지로 성장한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조그만 섬을 어느새 가득 채운 빌딩들과 사람들의 운집은 여의도를 '거대한 반죽 냉어리'로 비유하기에 이른다.

여의도 분식집에서 저녁밥을 먹고 강변을 걸었다
강은 내게 오래된 저녁과 속이 터진 어둠을 보여주며
세상을 내려갔다

청동오리도 몇 마리 산문처럼 물 위에 떴다
날곧 날곧 했다 그러면 강은 끼루루룩 울었다
내가 너댓 개의 발걸음으로 강을 걷는 것은
보고 싶은 자가 내가 닿을 수 없는 멀리에 있는
사사로운 까닭이지만, 새가 나는데 강이 우는 것은
울며 갑작스레 내 발치에서 철썩이는 것은 이 저녁을
어찌하겠다는 뜻일까

장석남, <저녁의 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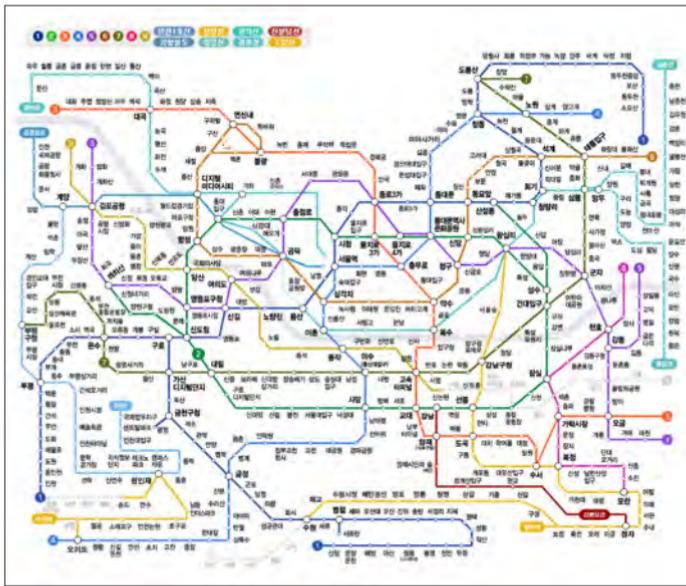
장석남은 <저녁의 우울>에서 여의도를 걷는 사람의 우울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여의도 주변을 흐르는 한강 가를 정처 없이 걷고 있다. 그의 발걸음이 정처 없는 것은 보고 싶은 사람이 멀리에 있어 만날 수 없기 때문인 듯하다. 그 그리움의 정서는 사사로운 내면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가 날고 강이 우는 여의도 강변의 정경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다.

6

서울의 연결망, 지하철의 풍경

시인들이 노래한 서울의 많은 장소들을 이어주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은 지하철이다. 모두 9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 지하철은 1971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1974년에 최초로 1호선이 개통되었다. 서울 지하철은 서울의 웬만한 곳을 모두 연결해주는 교통망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울시의 핏줄이라 불릴 만하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8번째로 긴 도시 철도망이다.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지하철 탄다



서울지하철노선도

평일 한낮 한산한 열차 안, 서울

사람들은 앉자마자 눈감아버린다

잠든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눈감고 암흑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같이 핏기가 사라진 서울의 표정

무덤 같다, 긴 지하 무덤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정일근, <서울 - 지하철에서>

정일근은 지하철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한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눈을 감고 암흑 속으로 빠져든다. 타인들의 시선을 느끼는 것이 불편하고, 자신도 타인을 바라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눈을 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서울의 표정이라고, 지하 무덤 같은 이동 수단을 통해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바쁜 서울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하철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듯하다. 요즘 같으면 눈을 감기보다는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풍경에 대해 이야기 했을 것이다.

지하철은 지구와 같은
속도로 달려가고
지하철 안의 나는
지하철과 같은
속도로 달려간다
내가 너와 같은
속도로 살아가고
빛과 같은
속도로 죽어간다
다음 생으로 갈아타기 위해
바쁜 걸음으로 출구를 빠져나가는

이생을 향해 나는
지는 나뭇잎 같은
덧없는 손을 흔든다

박후기, 〈지하철 정거장에서〉

서울 사람들은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과 같은 속도로 어
딘가로 달려가고 있다.

서울의 시

개항 이후 서울의 100여 년이 넘는

역사와 공간을 시에 나타난 모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근대성의 산실이 도시라는 점을 떠올려본다면, 한국의 근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할 때 서울만큼 그 근대성의 표상이 잘 드러난 도시는 없을 것이다. 서울에서의 삶은 근대적 삶의 급진적 경험을 그 어느 도시보다도 잘 느끼게 만들었다. 시인들은 서울에서 만난 새로운 도시 공간의 경험을 문학 작품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다. 서울은 단순히 근대적 개인의 삶이 전개되는 배경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삶을 구축하고 와해하고 재구축하는, 근대성의 새로운 전개가 펼쳐지는 무대였다고 할 수 있다.

문학에 나타난 공간과 장소에 대한 분석은 그 장소가 시간과 역

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였는가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장소의 새로운 구성과 그 속에서 발생한 근대 문화의 복합적인 구성을 이해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식민지 경성의 모습과 그 문학적 표상을 모더니티의 결과로 다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나, 광복 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서울이 변모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일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 모더니티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시인들은 식민지 경성의 거리에서 식민지 권력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그것에 저항할 장소성을 거리에 새겨 넣고자 했다. 그들은 식민지의 결과로 이중 도시가 된 서울의 구획 속에서 주저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보행자의 발화를 작품 속에 각인해놓는다. 시인들이 중언하는 식민지 경성의 모습은 단지 나라를 빼앗긴 과거의 수도로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모더니티의 중심으로서 근대의 새로운 경험과 활력을 간직한 문화적인 장소로서의 서울이기도 했다.

식민지 시대의 경성은 1945년 광복을 맞아 새로이 형성된 국가의 수도로서 그 의미를 새롭게 지니게 되었다. 시인들은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그 중심인 서울에서 기획하고자 했고, 그러한 열정과 경험들을 자신의 시를 통해 전달했다. 6·25전쟁이라는 민족의 환란을 경험할 때에도 시인들은 서울을 떠나는 것과 서울을 수복하는 경험을 자신들의 시에 의미 있게 담고 있다.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로부터 서울에 몰려든 사람들로 서울이라는 도시는 비대해지기 시작했다. 산업화 시대의 서울을 살던 시인들은 독재 권력이 민중들을 변두리로 내모는 폭압적인 면모들을 그 내몰린 사람들의 삶에 주목함으로써 기억하고자 했다. 서울의 변두리에 몰려와 자리 잡은 사람들의 도시 경험은 그것을 전달하는 문학 작품을 통해 그 역사적인 의미를 생생히 간직하게 된다.

식민지 경성에서부터 광복 후의 서울을 거쳐 포스트모던 도시의 표상이 펼쳐지는 서울의 현대를, 그것을 배경으로 쓰인 시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서울의 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새겨진 역사와 문화의 흔적들을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사람들 각자가 서울을 기억하는 방식이 있으나, 시를 통해 그 장소를 다시 읽는 것은 의미 있는 관점을 얻어줄 수 있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서울의 각 장소들에 어떠한 시의 기억이 새겨져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장소를 돌아본다면, 그곳은 전혀 새로운 모습을 가진 장소로 다시금 의미를 지닌 채 다가오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형렬, 『김포 운호가든집에서』, 창작과비평사, 2001.
- 고형렬, 『성에꽃 눈부쳐』, 창작과비평사, 1998.
- 길상호, 『모르는 책』, 천년의시작, 2016.
- 김광규 『하루 또 하루』, 문학과지성사, 2011.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민음사, 1995.
- 김규동, 『오늘 밤 기러기 떼는』, 동광출판사, 1989.
-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 김사이,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한다』, 창비, 2018.
- 김사이, 『반성하다 그만둔 날』, 실천문학사, 2008.
- 김수영, 백낙청 엮음, 김수영 시선집 『사랑의 변주곡』, 창작과비평사, 1988.
- 김정환, 『지울 수 없는 노래』, 창작과비평사, 1982.
- 김혜순, 『나의 우파나샤드,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 데이비드 하비 저, 구동희·박영민 역,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4.
- 박노해, 『노동의 새벽』, 풀빛, 1994.
- 박소란, 『심장에 가까운 말』, 창비, 2015.
- 박재삼, 『햇빛 속에서』, 문원사, 1970.
- 서영애·심지수, 〈일제강점기 광장의 생성과 특성 – 조선은행 앞 광장을 중심으로 →〉, 『한국조경학회지』45-4, 한국조경학회, 2017.
- 서정주, 『국화옆에서』, 삼중당, 1975.
- 서효인, 『여수』, 문학과지성사, 2017.

- 신경림, 《사진관집 이충》, 창비, 2014.
- 신경림, 《여름날》, 미래사, 1991.
- 신동엽, 《신동엽전집》, 민음사, 1984.
- 안현미, 《이별의 재구성》, 창비, 2009.
- 유하, 《세운상가 키드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95.
- 이시영, 《만월》, 창비, 1980.
- 이시영, 《은빛 호각》, 창비, 2003.
- 장정일, 《서울에서 보낸 3주일》, 청하출판사, 1996.
- 장정일, 《햄버거에 대한 명상》, 민음사, 2002.
- 정일근, 《오른손잡이의 슬픔》, 고요아침, 2005.
- 정호승, 《서울의 예수》, 민음사, 1995.
- 정호승, 《이 짧은 시간 동안》, 창비, 2004.
- 조기조, 《낡은 기계》, 실천문학사, 1997.
- 조세희, 〈민들레는 없다〉, 《시간여행》, 문학과지성사, 1983.
- 조정권, 《허심송》, 영언문화사, 1985.
- 천상병, 《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 오상출판사, 1999.
- 함성호, 《56억 7천만 년의 고독》, 문학과지성사, 2000.
- 함성호, 《키르티무카》, 문학과지성사, 2011.
- 허연, 《불온한 검은 피》, 민음사, 2014.
- 황학주,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창비, 2014.

■ 도판출처

쪽	도판	소장처
017	서울시청 부근 태평로일대	서울경관아카이브
021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YMCA) 앞의 거리 풍경	서울역사아카이브
054	승실중학교 시절의 윤동주(뒤쪽 오른편)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056	광복 소식에 서울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	국가기록원
060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여운형과 청년들	동양여운형기념사업회
067	서울역 앞 전투	서울역사박물관
071	6.25전쟁 당시 폐허가 된 서울 시내	국가기록원
072	6.25전쟁 당시 전쟁고아	국가기록원
083	1960년대 세종로	서울역사박물관
085	청계천 주변 판자집	국가기록원
091	윤락여성 단속 관련 기사 스크랩	서울기록원
094	1970년대 흥제동과 무악동 일대의 모습	서울역사박물관
100	4.19 혁명 직후 철거되는 이승만 동상	국가기록원
102	국립4.19민주묘지의 4.19학생혁명기념탑	서울경관아카이브
109	1960년대 남대문시장	국가기록원
117	화계사	서울경관아카이브
139	영동지구에 완공된 공무원아파트	국가기록원
141	1973년 지어진 영동시장 아파트	서울역사박물관
150	정선의 <입구정>	성 베네딕토회 왜관수도원
168	일제강점기 서울역 전경	서울역사아카이브
173	청파동 전경	서울역사아카이브
175	남대문시장의 노점들(2012년)	서울역사박물관
177	회현동 남대문시장 일대	서울경관아카이브
179	인사동 거리	서울경관아카이브
190	홍인지문	서울경관아카이브
192	옛 동대문운동장 모습	서울경관아카이브
193	오늘날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경관아카이브

쪽	도판	소장처
196	현재의 왕십리	서울경관아카이브
199	황학동 벼룩시장	서울경관아카이브
203	청량리종합시장 입구	서울경관아카이브
204	경동시장 내부	서울경관아카이브
205	청량리역 일대	서울경관아카이브
207	서울약령시 입구	서울경관아카이브
209	석조전	서울경관아카이브
213	덕수궁 돌담길	온그라피
215	아현뉴타운 일대	서울경관아카이브
219	아현동 웨딩타운	서울경관아카이브
221	신촌로터리 일대	서울경관아카이브
224	연세대학교 전경	서울경관아카이브
228	홍대상업지구	서울경관아카이브
231	남산골한옥마을	서울경관아카이브
232	1960년대 명동거리	국가기록원
239	이슬람 서울중앙성원	서울경관아카이브
241	이태원 거리	서울경관아카이브
243	예전 사당역 인근 모습	서울경관아카이브
246	신림동 고시촌	서울경관아카이브
252	현재의 영등포역	서울경관아카이브

※ 표기하지 않은 도판은 공공저작물 또는 서울역사편찬원 소장이미지입니다.

집필 허병식(동국대학교 서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감수 고봉준(경희대학교 교수)

서울문화마당 23

서울의 시

발행인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발행처 서울역사편찬원 (history.seoul.go.kr)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전화 02-413-9622)

기획·편집 박명호(시사편찬과장), 류상진, 서준석, 김동선

발행일 2023년 9월 30일

판매가 10,000원

편집·인쇄 온그라피

사진촬영 수포토

발간등록번호 51-6113542-000094-01

ISBN 979-11-6071-161-5

978-89-94033-23-5(SET)